

394.26

GOVP1201333355

394.26 -13-3



2012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



대한민국 방방곡곡
소문난 잔치에서 찾는 희망과 신명

굿 과 제(祭), 그리고 사람의 어울림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Foundation



2012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소문난 잔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양식, 그 중에서도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는 가족이나 마을의 안녕을 위한 제(祭)와 굿, 즉 우리 고유의 잔치이자 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징과 개성을 보여주는 지역 고유의 마을축제 소개는 지역 방문과 취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은 마을 단위 소규모 전통축제를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 사업으로 제작되었으며, 단순히 지역 문화를 소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을축제와 민속놀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 입니다.

한국 문화의 원형이 살아있는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는 세계인이 함께 향유할 중요한 문화유산이 될 것 입니다. 이 책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관광콘텐츠로 널리 활용되어 우리 모두가 한국의 문화를 더 가까이 느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2013.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진 롱

대한민국 방방곡곡!

소문난 잔치에서 작은 희망과 신명

충청북도

-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목계마을 대보름 축제

충청남도

-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광경동 마루제
-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백월산 산신제

전라북도

-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내요리 불모산 당신제
- 정수군 번암면 죽림리 죽림마을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제주도

-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와흘 본향당 신과세제

강원도

-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건금마을 용돌달기
-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도배(합동세배)
-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 신날리 해신제

경상북도

- 칠곡군 가산면 석우2리 화산소금단지 물기 및 달집태우기
- 칠곡군 자천면 영오리 영오리 천왕제

전라남도

-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사초해신제
- 고흥군 남양면 활악마을 활악 당신제
-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 선정마을 12당산굿별신제
- 고흥군 무두면 원봉림(봉림리) 포두면 달맞이 축제
-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 광주시 광산구 송산동 내동마을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 나주시 경현동 진동 액막이굿
- 보성군 벌교읍 대포리 대포리 갯귀신제
- 완도군 노화읍(노화도) 이포리(포전리) 달맞이 축제
- 완도군 악산면 해동리 악산 당목당제
- 장흥군 호계리 호계리 별신제
- 진도군 지산면 갈은리 한가위 술래놀이

목차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 신남리 해신제	8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도배 (합동세배)	14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건금마을 용물달기	20

충북/충남

충북 /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목계마을 대보름 축제	28
충남 /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백월산 산신제	34
충남 /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광경동 미륵제	40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1리 영오리 천왕제	48
칠곡군 가산면 석우2리	
화산소금단지 물기 및 달집태우기	54

전북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내요리 돌모산 당산제	62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죽림마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	68





광주/전남

광주 / 광산구 송산동

내동마을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74

전남 / 진도군 지산면 길은리 **길은리 한가위 술래놀이** 80

전남 /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약산 당목당제** 88

전남 / 보성군 벌교읍 대포리 **대포리 갯귀신제** 94

전남 /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사초해신제** 100

전남 /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 **선정마을 12당산굿별신제** ... 104

전남 / 고흥군 남양면 월악마을 **월악 당산제** 110

전남 /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포두면 달맞이 축제** 116

전남 /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오곡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120

전남 / 나주시 경현동 **진동 액막이굿** 124

전남 / 장흥군 호계리 **호계리 별신제** 128

전남 / 완도군 노화읍(노화도) 이포리 **포전리 달맞이 축제** ... 134

제주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와흘 본향당 신과세제** 140



신남리 해신제 외 2곳

강원도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신남리 해신제



조금은 푸르밀지만
이렇게 맑은 날은
이제껏 보지 못 해 좋습니!

해신당 공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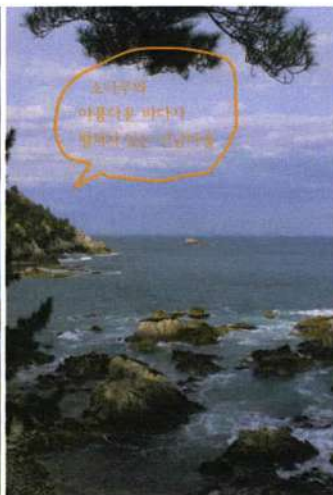
생명과 생명을 잇는 나무의 신화, 신남마을

예부터 성황당 근처의 나무들을 함부로 벨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현재 신남마을. 단지 마을에 초상이 났을 때 마을 공용의 상여틀을 만들 때만 몇 그루 벨 수 있었다는 신남마을에서 '나무'의 신화를 생각해본다. 영험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 '나무'를 귀하게 여겨온 마을 주민들에게 그 믿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소설가이자 번역가로 활동했던 작가 이윤기. 그가 쓴 장편소설 <하늘의 문>에서 읽은 한 장면이 퍼뜩 떠올랐다. 6.25 전쟁이 끝난 이후, 먹고 사는 일조차 힘들었던 시절에 유년을 보낸 두 소년이 등장하는 소설이다. 형제는 생계를 위해 어린 힘이나마 닿는 대로 나무를 베어 팔아 가사에 보탬 했다. 장날이 다가오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던 형제. 그 중 형은 베어야 할 나무 앞에서 “나무요, 나무요, 도끼 들어가요”라는 말을 세 번 읊었다. 그를 오래 기억하고 있던 동생이 꺼낸 과거에서, 형의 말은 곧 나무에게 자신들의 고단한 삶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무에게 도움을 구하려던 간절한 바람이 읽혔다. 그리고 또한 형이 베었던 나무는, 곧 가족의 생계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형의 모습과도 겹쳐진다.

나무라는 존재는 지금도 여러 문학 작품에서 그러하듯 '사람'을 상징하는 존재이자, 자신이 뿌리 내린 자리에서 곳곳하게 살아가며 세상의 풍파를 겪어내는 강건한 존재로서 그와 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지혜로움을 일깨우는 대상으로서 비견되고 그려져 왔다. 나무가 곧 사람이요, 사람의 삶이 곧 나무와 같기를 바랐던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남마을이 지켜온 나무를 귀하고 영험한 대상으로서 대하는 태도는 지금 사람들이 잊고 있던 바를 일깨우는 부분이 크다. 생명과 생명을 이어온 존재, 그것이 바로 '나무'가 상징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신남리 해신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에 속하는 신남마을에서 열리는 이 제의는 '나무'의 의미와 맥락이 닿는 서낭제다. 시월 첫 오일과 정월대보름에 지내는 서낭제 중



일부인 이 해신제는, 향나무로 깎은 남근목을 해신당에 봉헌하는 제의다. 해신당(海神堂)은 신남마을에 있는 서낭당으로, '서낭술'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소나무가 있었던 예전의 본당(本堂)과 함께 마을과 주민들의 삶을 수호해주기를 바라는 뜻을 지켜온 곳이다. 이들 성황당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나무'다. 소나무와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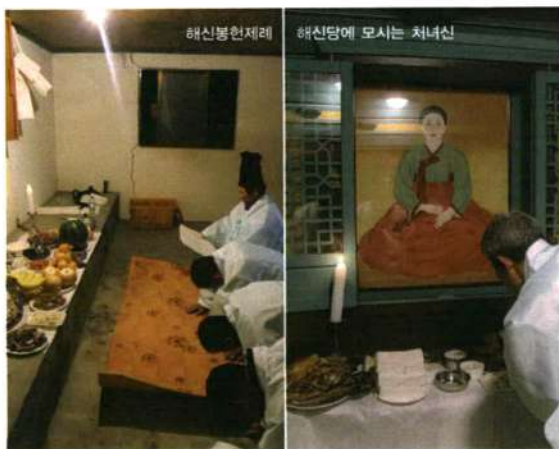


나무, 이들 나무는 신남마을 주민들을 지켜온 존재들이다. 뿌리부터 줄기, 잎, 꽃가루, 솔씨, 송진, 관솔 등 어느 부분 하나 버릴 것 없이 고루 다 쓰여진 소나무는 건축재료나 가구재 등 목재로서는 물론, 어려운 시절에는 구황식물이었고 병을 고치는 약용식물이기도 했다. 그야말로 한국인 삶에서 소나무는 <아낌 없이 주는 나무>와 같았다 할 수 있다. 소나무 밭에서는 송이 버섯도 자라고, 죽어서도 호박이라는 보석을 남기니, 그야말로 소나무는 그 가까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살펴왔다 할 수 있다. 향나무는 또 어떤가. 정신을 맑게 하고 부정을 없애는 나무로서 제사와 상중에 사용하는 향재로서는 물론 여성들이 주로 생활에서 쓰던 보석함이나 실패, 장롱의 내부를 구성하던 가구재 등으로도 사용되어온 향나무 또한 버릴 것이 없는 귀한 나무다. 이 두 가지의 상징적인 '나무'를 소중하게 지키고 다뤄온 신남마을의 해신제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가 거기 있다.

남근 숭배 문화를 간직한 삼척 신남리 해신제

먼저, 엄숙한 신의 기운을 어지럽히지 않기 위해 어린 아이들의 접근을 금했고 부정한 기운을 막기 위해 여성들의 출입도 금했던 성황당 본당은 현재 마을 어귀 오른편 언덕 위에 자리한다. 큰 물이 나기 전인 1900년 무렵까지는 마을 가운데에 본당이 자리했지만, 수해 이후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예전 본당이 있던 자리에서는 신성한 소나무 앞에 제단을 설치하고 제를 올렸다고 전해지며, 나중에는 제단을 헐고 그 자리에 당집 형태의 목조 건물을 지어 제를 올렸었던 역사가 있다. 이 본당은 '숫서낭', 즉 남성을 성황신으로 모시는 장소다. 1600년 즈음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한 엄씨 할아버지가 바로 그 성황신으로, 할아버지당이라고도 불리는 본당은 또 하나의 성황당이자 '여신당'이라고 부르는 바닷가에 위치한 해신당에 모시는 처녀신과 함께 신남마을을 지키는 제의를 올려온 곳이다.

신남리 해신봉헌제례는 본당과 해신당 두 곳에서 모두 치러지는데,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공동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해신당이 위치한 해산이다. 서낭산이라고도 불리는 해



산은 마치 그 생김새가 바다를 향해 볼끈 일어난 남근과 같다. 신남마을의 가장 안쪽 바닷가 언덕이자, 남근 생김새를 한 해산의 귀두부분에 해신당이 자리한다. 해신당에 올라가는 길목에는 500년 이상 수령의 향나무가 서있다. 이 향나무는 해신당의 신목으로서 처녀 애랑의 영혼을 상징한다. 이 신수와 같은 향나무를 깎아 만든 남근목을 만들어 바치는 해신제는 시월 첫 오일과 정월대보름에 지내는 서낭제 중 일부다. 왜 남근목일까? 그 배경은 해신당 입구 비석에 쓰인 전설이 말해준다. 처녀 애랑과 총각 덕배에 관한 전설로, 미역을 따러 바위섬으로 간 애랑이 갑자기 인강한 바람과 집채만한 파도에 휩쓸려 죽은 이후 바다에서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처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바다에서는 해난사고도 자주 발생했고, 애랑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동쪽 바위섬을 향해 고사를 지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기는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점차 피폐해지는 생활과 고단한 생계에 지쳐가던 어느 날, 한 어부가 술에 취해 바다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소변을 보고 화풀이를 한 이튿날 그 어부만 만선으로 돌아왔던 전설에서부터 '남근목'을 바치는 유래를 짐작할 수 있다. 너도나도 바다를 향해 소변을 보고 조업을 나가 만선으로 돌아온 어부들은 이후 풍어를 기원하며 처녀 애랑을 위해 산 끝자락에 애랑신을 모시고 남근을 깎아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제를 지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뿐만 아니라 풍어신으로서 여신이 된 처녀 애랑의 전설이 깃든 신남의 해신제, 나무를 깎아 만든 남근을 바다의 신에게 바치는 예들은 어업에 종사하는 이

'나무'와 관련된 삶의 책 읽기



「고규홍의 한국의 나무 특강」

나무 인문학자라는 일명어로 불리는 저자 고규홍은 '나무 컬럼니스트'다. 예부터 마을마다 한 그루씩은 꼭 있었던 마을나무를 잃어버린 현대의 사람들에게 나무를 통해 사람의 삶을 빚어보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가 이제까지 쓴 여러 권의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책 중 가장 최근 출간된 「고규홍의 한국의 나무 특강」은 우리 강산의 크고 오래된 나무들을 성리히 기록하자 나무에 쓰여진 우리 삶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다. 작은공예체 전통예술전지와 같이 이 땅에서 오래 살아온 역사가 오늘날의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지켜지기를 바라는 뜻을 공유하는 맥락에 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나무 이야기라고 했지만, 사실 나무가 서 있는 아름다운 마을을 찾아가고, 그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노인들이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나무와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이 다시 보인다고 얘기하는 저자는, 800년을 살아온 원주 만계리 은행나무, 스승의 삶을 따르 세사의 지극한 존경심을 담은 순천 송광사 천자암의 향나무 두 그루, 배고픔의 기억을 생생히 아로답게 바쳐주는 진안과 순천의 이팝나무, 스님의 지팡이가 된 정선 청암사 주목 등의 이야기를 140여장의 나무 사진과 함께 책에 담았다.

종교의 의미를 묻는 책 읽기



「하늘의 문」

유교와 기독교 등 동서양 기존 종교에 할류하지 못하던 주인공의 종교적 방황이 아버지의 유골이 묻힌 고향 전사자리에서 비로소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종교의 의미를 진지하게 묻는 이야기를 담은 삼편 소설이다. 한국어로 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소설가이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해 우리의 전통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번역가로서 활동했던 고 이운기는 「하늘의 문」을 통해 인간의 삶과 죽음, 종교라는 '믿음'의 본질을 파고든다. 민간 신앙과 전통 제례, 유교와 기독교와 같은 내·외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들이 많은 바다를 끼고 살아가는 지역들에서 종종 들을 수 있다. 삼척이 위치한 동해안의 다른 지역에서도 남근목을 봉헌해온 마을이 여럿인데, 현재까지 그 맥을 충실히 잇고 있는 곳은 고성군 망개마을과 삼척시 신남마을 뿐이다. 남근숭배 문화는, 다산과 풍요의 의미를 담은 제례지만 더 크게는 '나무'의 존재와 같이 생명이 생명을 잇는 원리를 뜻한다는 점에 뜻이 있다. 5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남근 깎기의 유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신남마을에는 조각가 홍순태가 마을에 세운 남근형상을 한 70개의 솟대와 장승 등도 자리한다.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일이라는 점에서, 동해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신남리에서 열리는 해신제가 갖는 의미는 꽤 크다. 1996년부터 신남마을 주민들이 남근 깎기 전통을 우리의 현대적 전통유산화 하며 1998년부터 삼척시가 개최한 남근 깎기 대회를 열고 있으며, 이들을 지역 문화 자원으로 활용해 '남근 공원'을 포함하는 해신당 공원을 조성해온 일련의 노력들은 앞으로 신남마을이 이뤄가려는 '풍요로운 미래'를 일구는 소중한 자산인 셈이다.

해신당 한편, 새끼줄에 꿰어진 남근목들과 같은 모양으로 '해학'의 표정을 담은 장승크기의 남근목들이 세워진 해신당 공원을 돌아보며,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촌의 삶을 더듬어 본다. 오늘날에도 이 삼척의 바다에서 잡아 올린 생선 한 마리를 우리의 밥상에서 만나듯,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



신남리 여행하기

신남리 해신당 공원

국내에서는 유일한 성(性) 민족공원으로 조성된 테마 공원이다. 해신당을 비롯해 남근조각공원과 삼척어촌민속전시관, 세계성민속 전시관, 습지생태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는 유료 관광지로, 이 곳에 다녀가면 2세를 잉태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삼척시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다. 12지를 재해석해 만든 남근을 모티브로 조각된 십이지신상도를 비롯해 처녀 애랑과 총각 덕배의 집은 물론, 해안산책로를 따라 처녀 애랑이 풍랑에 휩쓸려 죽었다는 전설이 깃든 애바위와 기암 괴석과 바다가 조화를 이룬 신남마을 바닷가의 숨겨진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가까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신남 해수욕장

해신당 공원과 인접해 있는 신남 해수욕장은 옥빛 바다가 인상적인 곳으로, 해변이 아름답기로 소문나 여행 전문가들이 한적한 가족 단위 피서객들에게 추천하는 여행지다. 해수욕장의 남쪽 해안가에는 우리나라 지도모양의 지도바위, 병풍 모양의 상재바위 등 기암절벽이 이루는 절경이 많다.





모두함께 세배하여
전통과 예술 지키는
위촌리 도배마을의
합동세배 보실라우?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도배 (합동세배)



전통예절 이상의 의미, 합동세배

‘어서오세요~ 위촌리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도배마을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표지다. 마을 전통문화전승관으로 향하는 길,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차려 입은 어르신들이 눈에 띈다. 이 마을의 전통행사, 위촌리 ‘도배’를 위해서다. 1577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행사인 도배는, 위촌리 주민들에 의해 전승된 합동세배다. 450여 년 간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위촌리 도배는, 매년 정월 초이튿날 행해진다. 이 전통 행사가 행해지던 장소는 원래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촌장 집이었다. 이 행사를 올해 마을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게 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최하는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도배식은 위촌리 외에도 강동면 모전2리, 언별2리, 구정면 어단2리, 구정리, 금광 1,2리, 내곡동, 송정동 1,3통, 경포동 즈르마을, 성덕동, 병산동 등에서도 이뤄진다. 이 가운데서 위촌리 도배가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로 선정된 데는, 그 깊은 역사에 있다. 매년 설 명절이면 옷어른께 합동세배를 올려온 위촌리 주민들에게 도배는 단순한 전통 행사가 아니다. 이 곳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아니라도, 이곳을 떠나 오랫동안 타지 생활을 했던 이들이라도, 설이면 한데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인사는 ‘고향’이라는 터전이 삶에서 큰 힘이 된다. 이 도배 덕분에 한 자리에서 모일 수 있는 이유를 가질 수 있는 주민들에게는 전통예절 이상으로 의미 깊은 ‘만남’을 갖게 한다. 도배는, 각각 집에 세배 다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고령의 촌장을 위해 동네 사람들이 한 번에 촌장에게 세배를 하고 이웃 간에 함께 세배를 나누는 의식이다. 촌장에게 참가자 일동이 세배를 하면 촌장이 답례로 참석자들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비는 덕담을 한다. 이어 차위 연장자 2명에게 함께 세배를 하고 참석자들이 상견례로 막절을 한다. 도배식을 주관하는 촌장은 갓과 두루마기를 입고, 도배식에 참석하는 고령자들 역시 모두 갓을 쓰고 두루마기와 도포를 입는다. 갓을 쓰지 않는 주민들도 두루마기는 반드시 입고 예를 갖추며, 젊은이들은 평상복을 입는다. 합동 세배가 열린 2월 11일, 전통문화전승회관에서 17대로 6년째 마을 촌장을 맡아온 고세환 웅과 부촌장 조규상, 이촌장 박철동 웅이 학병풍을 뒤로 하고 상 앞에 자리를 갖추자 참석한 마을 주민들이 한데 예를 갖추고 세배를 올린다.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고 촌장이 덕담을 전하는데, 올해 감회는 좀더 특별한듯 목소리에 힘이 서린다. 더구나 올해부터 마을 부녀회도 촌장님께 세배를 드리기로 해 주민 화합에도 더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올해 도배는 예년과 달리 도배 진행에 앞서 2012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에 선정되며 받은 지원금으로 마련한 전통공연이 추가 되어 더욱 주민들의 마음을 흥겹게 했다.



다양한 전통행사도
준비된 위촌리 도배레



이웃간의
세배를 나누는
정있는 행사



마을의
최고 어른들이
세배를 받으시는 훈훈한 모습



장유유서 마을 위촌리의 자궁심 도배

10시 가량 시작된 공연을 1시간 여 관람하고 진행된 도배에는 약 150명 가량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었고, 행사를 마친 후 마을 부녀회가 차린 손님상에 둘러앉아 함께 특별히 정성들여 준비한 소머리 국밥과 갖은 잔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애기 꽃을 피웠다. 위촌리 도배의 시작은 조선 중기인 1577년, 마을 주민들이 조직한 대동계에서부터 이어 내려오기 시작했다. 농경사회의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으뜸 생활문화의 일종으로, 합동 도배식은 대동계 주관으로 출향인사와 주민 등이 참석해 오래 이어온 장유유서의 정신을 되살리고 주민이 하나되는 역할로서 위촌리 주민들에게 큰 자궁심이 되어 온 전통행사다. 대부분의 대동계원은 할아버지 대부터 집안 대대로 계원으로 활동해온 이들이다. 이 외 몇몇은 위촌리로 이사온 후 기존 계원들의 추천을 받아 합류했다. 현재 대동계 회원은 모두 66명으로, 매년 이들 중 유사로 정해진 2명은 촌장을 모셔오고 모든 잔심부름을 도맡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들 중 집례 1명, 찬인 1명을 정해 치르는 도배는, 새해를 치르는 경건한 의미의 행사이자 예향 강릉의 미풍양속을 잇는 중요한 문화 자원인 동시에 세월의 변화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경료효친 사상과 마을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위촌리 도배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 강릉의 명물인 초당순두부를 맛보기 위해 초당동 초당순두부 마을로 향했다. 전통문화보존의집, 전통문화보존명인장인 김재영 장인이 운영하는 원조 초당 순두부, '상기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보존에 힘써온 분으로써 한국전통 음식 명가에 선정수록된 전통명장인임을 기념하기 위하여 본장을 수여합니다'는 명인장 문구가 눈에 띈다. 간수가 아닌 바닷물을 사용해 대를 이어 직접 초당순두부를 만들어 판매 하는 집, "포장 판매는 절대 불가능 합니다"는 메뉴판 글귀와 이미 2009년 11월 NHK 방송출연 경험이 있다는 2008년생 4대의 사진에 써든 '세뇌교육중'이란 말이 묘하게도 '위촌리 도배' 풍경과 겹쳐진다. 무엇이 이들을 '대'를 이어 이곳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오게 했을까? 이들이 나누던 '도배'에서 본 바와 같이, 올해부터 도배를 마을 부녀회와 함께 하기로 한 것처럼, 전통을 단지 허울 좋은 이름으로 묶어두지 않는 이들의 열린 마음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초당동에서 시작하는 강릉 둘러보기 코스



원조 초당두부

소나무 숲에서
걸어서 10분



허균 허안설현 기념관

자가용 이동 5분



경포해변

자가용 이동 3분



참소리 박물관

경포호를 낀 소나무숲 초당동에는 순두부, 모두부가 유명하다. 초당의 순두부는 콩물에 바닷물을 부어 만들기 때문에 맛이 특이하다.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은 꼭 한번 둘러 맛을 보고 간다.

<원조초당순두부>는 1930년 고(故) 조동인 할머니가 처음으로 간수 아닌 바닷물로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이후 KBS [우리동네 매일노인], MBC [강원사람들], SBS [출발! 새이월 백남봉의 토종기행] 등에 방송되었으며 홍성우 작가의 한국 맛있는 집 777호, 전국 맛있는집 999호로 발간되었다. 지금은 고(故) 조동인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 김재영, 최남숙씨와 손자 김원희군이 대를 잇고 있는 강릉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집이다.

강릉시 초당동 309-4

<영업시간> 오전 6:30 ~ 오후 8:00 (추석,구정 당일만 휴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인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1569~1618)과 그의 누이이자 조선시대 유명 여류시인인 허안설현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허균·허안설현 기념관'은 강릉시 초당동 4223㎡ 터에 지상 1층 연면적 186㎡ 규모의 목조 한옥형태로 한옥의 장점을 잘 살려 허안설현 유적공원 근처에 세워졌다. 기념관의 건립으로 강릉이 배출한 개혁 사상이 허균과 여류 천재시인 허안설현의 얼을 선양하는 두 남매의 사상과 문학세계를 연구,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출처:솔향강릉>

강릉시 초당동 474-8

해안 최대 해변으로 유명하며 시내에서 북으로 6km, 경포대에서 1km되는 곳에 동해의 창파를 가득 담고 펼쳐진 명사오리(明沙五里)이다. 붉은 오리바위와 십리바위에서 밀려와 하얀 모래밭에 흰 빛깔을 내는 초록빛 바다. 여름은 이글이글 타는 더위 속에 추억과 낭만(浪漫)을 즐길 수 있는 바다. 가을은 물결이 혼자 거닐고 싶은 바다. 겨울은 어디서 누굴까 찾아 온 것만 같은 바다로 경포는 사계절 관광지이다. 강릉바다의 푸른 물이 맹하(猛霞)의 태양 빛에 반짝이는 은광(銀光)의 모래위로 밀려오고 붉게 타고르는 해돋이와 해저무는 저녁 노을은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여름휴강 중에는 해마다 여름해변축제와 관노기연극, 강릉농악, 사물놀이, 한산오독떼기 등의 전통문화행사, 해변무용제, 홍길동전, 공개방송 등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져 피서지의 열기를 달군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유람선, 혼자만의 추억을 간직하게 되는 마차여행, 싱싱한 생선회, 깨끗한 숙박시설, 편리한 대중교통 등이 경포해변 매력중의 매력일 것이다. <출처:강릉시 경포해변>

강릉시 안현동 산1, 강릉문 산1

<개장시간> 매년 7 ~ 8월중 06:00 ~ 24:00

참소리축음기박물관은 설립자 손성목관장이 소년시절 선친으로부터 받은 축음기가 연인이되어 한평생을 축음기 수집가로서 목숨을 건 위엄속에서 세계60여개국을 돌며 수집한 축음기 및 유적품, 라디오, TV 4,000여점과 관련자료 5만여점이 전시되어 있는 소장품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의 박물관이다. 1982년 강릉시 송정동에서 "참소리방"으로 설립된 이래 3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가이드의 안내로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으며, 음악감상실에서는 최신오디오시스템으로 음악감상을 할 수 있다. <출처:솔향강릉>

강릉시 저동 36번지 / 홈페이지 : <http://www.edison.kr/>

경포대(鏡浦臺)는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로 고려 충숙왕 13년(1326) 강원도 안렴사(按廉使) 박숙(朴淑)이 현 방해정(放海亭) 뒷산 인월사(印月寺) 옛 터에 처음 지었던 것을 중종 3년(1508) 강릉부사 한급(韓汲)이 현 위치로 이전한 후 영조 18년(1742) 부사 조하망(曹夏望)의 중수를 비롯한 수차례의 중수가 있었다. 경관을 감상하기에 좋은 위치에 맞추어 놀이터를 설정하고, 다양한 행사에 따라 공간을 나누며, 시각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곳에 적절히 공간 형태를 부여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출처:솔향강릉>

강릉시 저동 94



강릉 경포대

조선말기의 전형적인 사대부의 저택으로 안채, 사랑채(열화당), 별당(동별당, 서별당), 정각(활래정), 행랑채등 민가로서 거의 모자람이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조선후기의 주거생활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출처:솔향강릉>
문의처 : (선교장)033-648-5303 (문화예술과)033-640-5119

강릉시 운정동 431

홈페이지 : <http://www.knsgj.net/>



선교장

선교장에서
자가용 이용 시
10분 미만

1536년(중종31년)율곡 이이선생이 탄행한 곳으로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별당 사람 채로 우리나라 주거 건축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이다. 율곡이 태어난 오죽헌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팔작지붕의 건축물이다. 세종조(世宗朝)당시 공조참판과 예문관 제학의 벼슬에 오른 강릉 12향원 중의 한 분인 최치운에 의해 건립된 조선시대 양반가옥의 별당 사랑채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처음 오죽헌이 지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600여년 전이다.

오죽헌을 정면서 보면 왼쪽 2칸은 대청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오른쪽 한칸은 온돌방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이 방이 바로 율곡 이이가 태어난 뽕실이다. 최치운은 이후 오죽헌을 아들인 최응현에게 물려주었고, 최응현은 다시 그의 사위인 이사온에게 물려 주었으며 이사온은 그의 사위인 신명화에 물려 주었으니 이때 율곡 이이가 태어난 것이다. 문성사는 율곡 이이선생의 영정(影幀)을 모신 사당이며, 여제각은 율곡 이이선생이 어릴때 사용하던 버루가 보관되어 있다. <출처:솔향강릉>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

홈페이지 : <http://ojukheon.gangneung.go.kr>



오죽헌



풍요한 인심, 건금마을 용물달기

용녀가 거문고를 타는 형군이라서 금산(琴山)이라 하였다가 후에 강릉김씨들이 많이 산다고 하여 '금(琴)' 자 대신 음이 같은 '금(金)' 자를 써서 금산리라 한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이 마을 앞에는 넓은 들과 남대천이 있다. 뒤로는 솔봉이 있는데 산줄기가 세 갈래로 뻗어내려 솔의 발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강릉시 외곽에 위치한 금산리는 현재 267가구에 558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서 2월 23일 음력 정월대보름을 맞아 '건금마을 용물달기' 놀이가 펼쳐졌다.

용물달기는 용수(湧水) 기원제 형식으로,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 전날 저녁 짚으로 수신(水神)인 용 모양을 사람 크기로 만들어 마을 동서남북 네 곳 우물에 용을 잠시 담갔다가 자정 무렵 꺼낸 다음 임경당(臨鏡堂) 우물로 옮겨 제사를 지냈다.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주관으로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 지원 축제로 행해진 올해 용물달기 놀이는 마을 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 및 외부 관광객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3시 가량부터 진행되어 일몰 이후 휘영청 달이 뜬 가운데 달집태우기 행사로 끝났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 놀이를 마을 대동제로 흥겹게 즐기는 모습이었다. 처음 이 놀이를 찾은 외부 관람객들 역시 그 참여인원의 규모와 마을 분위기, 푸짐하게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축제를 즐기며 그야말로 '풍요' 한 인심(人心)을 체감할 수 있었다.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건금마을 용물달기

칠으로 만든
대형 풀이 인상적인
건금마을 용물달기!





물동이를 이고, 지고 가는
마을 어르신들의 행렬이
장관이랍니다!

“용아 용아 물달아라”

건금마을 용물달기 행사는 강릉김씨 집안에서 행해지기 시작해 현재는 건금마을용물달기 보존회 주관으로 마을 주민 전체가 동참해 행해지는 정월대보름 축제가 되었다. 용물달기가 행해지는 임경당은 조선 중종 때 강릉의 12향현 중 한 사람인 김열의 고택으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되어 있다. 강릉김씨 집안에서 행해진 정월대보름 행사지만 이곳 우물을 공동으로 사용한 마을 주민들도 동참하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용물달기는 “용이 물을 달고 온다”는 뜻으로 우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는 주술적인 의미를 지닌다. 500여년 역사를 가진 건금마을 용물달기 재연이 시작된 때는 오후 3시경이다. 마을회관에서 풍물패를 앞세운 가운데 마을을 돌며 지신밟기를 하는데, 이때 짚으로 만든 용을 수백 명이 양 옆으로 붙잡고 가는 행렬과 풍물패 뒤를 이어 마을 주민들이 저마다 물동이를 하나씩 이고 지고 가는 모습이 장관이다. 또한 용이 불을 내뿜는 모습을 형상화한 모습이 인상적인데, 용이 내뿜는 연기는 잡귀와 액을 쫓고 마을을 정화하는 의식의 하나로서 세심하게 만들어진다. 용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데, 건금마을에 사는 어임수, 김홍남, 최근우의 고증에 따르면 짚으로 먼저 줄 꼬기를 한 뒤 줄 드리우기, 줄 엮기, 줄 말기 등의 순으로 용을 네댓 개 만든다. 사람이 어깨에 메고 달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크게 만들어 수십 명이 들어 나르거나 암수로 나누어 만드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짚으로 용을 만드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약밥을 시루에 찌고 백설기를 하여 제물을 장만한다.

제례는 임경당 우물 안에 넣어두었던 짚용을 꺼내놓고 우물 앞에서 거행하는데, 유교식 축문을 간단하게 읽는다. 신주는 ‘영정용왕지신(靈井龍王之神)’이며 축문 내용은 용왕신에게 물이 잘 용출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제물을 차려 빈다는 것이다. 임경당 뒤, 우물을 들여다보니 꽤 깊이가 된다. 제례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은 뒤꼍 담장 안쪽을 에



떡메로
찰떡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궁덕궁덕

워싸고 건금마을만의 정월대보름 의식을 관람했다. 전통 제례를 경험할 일이 거의 없는 아이들 역시 신기하게 이 제례를 참관했다.

제사가 끝나면 사람들이 물 뜰 그릇을 하나씩 들고 용을 새겨줄에 대달아 들고서 “용물달자! 용물달자!” 외치며 동서남북 사방의 샘터로 가 용에게 물을 적시고 끌고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샘터 물을 용 뒤에 조금씩 뿌리다가 임경당 우물까지 와서 물을 붓는다. 물을 뜨러 나설 때는 나무막대기로 물그릇을 두드려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들판을 향해 새 쫓기를 하며 마을의 나쁜 액을 쫓는다. 주민들이 용을 앞세우고 사방 샘터에서 “용아 용아 물달아라”를 외치며 물을 떠다 다시 임경당에 붓는다. 이곳은 가뭄이 시작되기 전 물줄기가 풍부한 샘에서 물을 길어 우물에 부으면 그 또한 물이 풍부해진다는 믿음에 바탕한 세시풍습이다. 이후 마당 앞에서 대나무를 들고 한바탕 흥겹게 춤을 추는데 이 또한 건금마을 용물달기의 독특한 의식으로 마을 공동체의 소속감을 고취시킨다. 모든 행사가 끝나면 우물 옆에 용을 말아 정리 모시고 음복을 한 뒤 약밥 시루를 들고나와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 건금마을 부녀회에서 정성을 들여 넉넉히 준비한 약밥과 소고기무국과 갖은 나물, 갓 절인 김치와 깍두기를 곁들여 떡과 부침, 동동주와 묵 부침 등으로 대보름 음식을 나누어 먹는 가운데, 임경당 마당 한쪽에서는 떡메로 찰떡 만들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곁에서 난로에 구운 고구마와 식혜를 즐기며 그야말로 잔치집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신명 넘치는 잔치 분위기에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달집태우기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저녁 7시경 해가 넘어가자 달집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이미 대형 달집은 사람들이 달아둔 소원지로 한 가득이다. 풍물패와 함께 마을 주민들이 달집을 둘러싸고 한 해의 무사안녕과 풍년을 빈다. 달집이 선 빈들이 사람들의 소원으로 꽉 들어찬다. 달집에 불을 놓자 그 꼭대기까지 단번에 불이 쏜다. 🌈

대관령박물관

강릉시 성산면 대관령옛길 1

대관령 박물관은 대관령을 뒷배경으로 산에서 굴러 내린 돌 한 점의 느낌을 주는 고인돌 형태의 건물로 지어졌다. 박물관은 한국건설협회와 설계사 협회에서 선정한 우수건축상 및 강원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건축물로, 자연림으로 숲을 이룬 주변과 어울려 전혀 손색없는 단아한 한 폭의 산수화의 구도와 같아서 태백산맥 대관령 산자락에서 흘러 내리는 많은 물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 경관을 벗삼아 사계절 풍광을 고스란히 마음에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전시관은 전통적 사방을 상징하는 좌 청룡, 우 백호, 북 현무, 남 주작의 4개 전시실과 토기실 및 민속품이 전시된 우리방의 2개 전시실을 포함한 총 6개의 전시공간이 있었다. 청동기 시대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총 2,000여 점의 유물이 관람하기에 편리한 동선구조와 더불어 전시되어 있고, 야외전시장에는 장승을 비롯한 동자석, 문관석류 등이 풀밭에 제멋대로 놓여진 듯 치장되지 않은 어울림 그대로의 멋을 간직한 채 놓여져 있고, 단산과 풍요의 옛 성문화를 볼 수 있는 아름달기까지 한 남근석 앞에서 득남의 소원을 슬며시 기원해 볼 수도 있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

대관령 자연휴양림

강릉시 성산면 삼포암길 133

물맑은 경포호수와 아름다운 바다로 유명한 강릉, 강릉은 바다만 유명한 것이 아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산도 자리잡고 있다. 강릉 주변은 온통 아름다운 관광지로 가득한데, 가까이 있는 소금강과 오대산국립공원은 강원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여름철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리고 대관령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대관령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산림이 아름다워 많은 야생동물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비록 장작불을 지피는 캠핑을 할 수 없지만 딱 하룻밤만이라도 자연이 주는 산들바람을 흠뻑 맞고 뽕뽕한 소나무 향기를 베게삼아 행복한 여행을 즐겨보는 것은 다시는 못할 추억이 되어 줄 것이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

건금마을 둘러보기

임경당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별당 건축물인 임경당은 김광현의 장자 김열 선생의 아호에서 유래했다. 김열 선생은 이율곡과 동시대 사람이다. 임경당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전면에 퇴청이 있고 대청 2칸과 방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청은 여름을 위한 공간으로 전면에 있는 굴널 네 짝 세쌍 분합문은 '들어열개'에 의해 전면이 개방되어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게 하였다. 대청 바닥은 넓은 널을 짧게 잘라 끼워놓은 우물마루이며 천장은 우물 천장으로 되어 있다. 온돌방은 대청과 방 사이에 사분합문을 두어 큰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 실내 환기 및 통풍을 위해 전면 벽체에는 개폐 가능한 환기창을 두고 있다. 퇴청에는 난간이 있고 퇴랑은 원호로 아름답게 만들었다. 팔작지붕 형식의 1고주 5량 구조로 된 익공계 양식의 건축물이다. 현재의 건물은 1825년 증수한 것으로 몇 차례의 보수 공사가 있었다. 전면 기둥은 동근 기둥이며 외부로 향하는 창호는 겹 창호로 짜여져있다. 별당 측면에 'ㅁ'자 배치의 본 채가 있고 제월루와 사당이 있다. 조선시대 별당 건축의 전형적인 건축물로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다.



강릉 먹거리

감자 웅심이

감자를 갈아 거른 건더기와 가리얌은 앙금을 섞어 소금 간하여 새알 크기의 감자웅심이를 빚은 후 장국에 감자웅심이를 넣고 끓이다가 애호박채, 어슷하게 썬 붉은 고추와 풋고추를 넣고 끓여 깨소금과 황백지단을 곁들여 얹은 것으로 강원도 정선군·영월군 등지에서 시작된 요리이다. 웅심이는 '웅시미'로 쓰기도 하는데, 모두 '새알심'의 사투리(방언)이다.



출처: '강릉의 역사'

여 백

목계마을 대보름 축제 외
2 곳

충북/충남





목계마을 대보름 축제



어영차 달구경 가세~

“어영차 달구경 가세~” 2013년 충주세계조형선수권대회 성공을 기원하고 충주시민과 함께 정월대보름 축제를 즐기자는 현수막 글귀다. 2월 23일, 목계강변 일대에서 열리는 정월대보름 축제를 후원하는 곳 중 하나인, 목계나루터 횃집에서 건 현수막이다. 활활 타오르는 횃집을 둘러싸고 선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함께 있다. 그 앞으로 빈 눈에서 몇몇 어른들이 장작불을 피워 놓고 무언가에 열심이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쥐불놀이로 쓰일 틀을 만드는 중이다. 하나 둘 만든 쥐불놀이 틀을 걸어둔 옆으로 잘게 쪼갠 폐목 장작까지 준비해 놓았다. 또 한 칸에는 알록달록 색이 고운 종이를 대나무 살에 붙인 방패연도 여럿이고, 한두 해 쓴 것이 아닌 듯한 옷판과 옷, 자리까지 제대로 깔아두었다. 어릴 적 보던 대보름 맞이 풍경을 마주친 것에 반가워 보고 있으니, 방패연은 아이들 몫이 아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달집 높은 곳에 걸어둔 방패연은 일종의 소원지인 모양이다. 마을 입구, 백구한 마리가 외지인을 맞는다.

제가 바로
마을의 마스크
미박이 꼭두 일장이랍니다!





제기차기, 율농미, 호투 등
전통놀이도 함께하는
흥겨운 대포동축제!



달집에 소원지를 다는 주민들



달집태우기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고장, 목계마을

충주시 엄정면에 소재한 목계마을은 산계동(山溪洞)으로도 불렸다. 1914년 일제에 의해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며 여러 자연 마을들을 하나로 묶은 현재의 목계리가 되었다. 충청도의 가장 큰 고을인 충주가 가까이 있고, 경상도 충청도 일대의 세곡을 모아두는 가흥창지가 인근에 있었던 목계는 수운교통의 중심지로서 가흥의 공창과 더불어 발전한 상인들의 활동처였다. 세곡의 수합과 보관을 위해 각지에서 싣고 오는 물품들을 내리거나 한양으로 떠나는 세곡선에 선적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고 이런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편의시설이 필수적이었다 해서 생겨난 것이 목계나루다. 이곳 나루는 소금과 석유, 곡물 등이 거래되던 조선 5대 항구였다. 번성했던 과거의 흔적이 포구 곳곳에 남아있는 현재 목계는 조선시대로부터 일제강점기, 한국 근대에 걸친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고장이다. 1930년대까지 목계 마을에서 마을의 발전과 뱃길 운행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며 지내던 동제가 있었다. 또한 충주에는 세곡을 받아들이던 기흥창이 있어 충청북도 전지역과 경상도 일부 지역의 세곡을 받아들이고 이를 서울로 운송하기 위한 수운이 발달하면서 정기적으로 이 지역에 장이 서게 된다. 그 장이 목계장터다. 오늘날의 대보름 축제는 뱃길의 안전 운행을 빌던 동제와 목계장터의 번영을 기원하고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유지시키기 위해 진행하게 된 민속행사다.

목계마을 옆 남한강변 노천에서 진행되는 대보름 축제는 며칠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준비를 하는 달집 쌓기로 시작된다. 마을로 들어오며 보았던 풍경이다. 본격적인 행사는 오후 4시경 마을 풍물패의 지신밟기로 시작됐다. 재미있는 것은, 풍물패와 함께 등장한 인형이다. 일명 마빡이 인형으로 불리는 이 꼭두인형은 목계 지역에 실존했던 최돌이 마빡이를 토대로 만들어졌던 예전 것을 재현한 것. 코미디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마빡이와 같은 동작을 하는 꼭두인형은 과거 목계나루와 목계장터에서 시시때때로 펼쳐지던 난장과 그것을 보며 잠시 고단함을 잊고 박장대소를 터트리던 목계 사람들처럼 대보름 축제에 모인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지신밟기가 끝나고 본 행사장에서 본격적인 대보름 축제가 시작된다. 전문 풍물굿패 물개가 마을 풍물패와 함께 한 차례 풍물판을 펼친 후 한해 소원을 비는 비나리를 하며 고천문(告天文)을 읽고 마을 사람들과 덕담을 나눈다. 곧 달집에 점화를 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적은 소원지와 뱃집으로 만든 액막이 인형인 제웅, 건강과 다복을 비는 방패연 등이 함께 타오르는 달집 주위를 돌며 소원을 빈다. 대보름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은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널뛰기, 쥐불놀이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둔 ‘판’에서 서로 흥을 겨루는 놀이에 한창이다. 어떤 복이든 웃어야 들어오는 법이다. 그것이 나루와 장터를 오가던 이들에게 목계 사람들이 나누려던 진짜 재복이다. 🌈

충주 관광지

충주 미륵리사지(미륵대원지)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미륵리사지에 들어서면 거대한 석불입상이 석축 사이에 들어 있어 위압적으로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미륵리사지에 전해오는 전설 때문인지 친근해 보이면서도 슬퍼 보인다. 신라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고려에 의해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고 금강산으로 가기전에 이곳에 머물렀는데 누이동생인 덕주공주가 머물고 있는 덕주사를 향해 불상을 조성하였다. 덕주공주는 월악산에 덕주사를 지어 남쪽을 바라보도록 바위 절벽에 마애불을 조성하여 서로 마주보면서 그리움을 전했다는 이야기이다. 이곳의 석불은 국내 유일의 복향 불상이며 석불이 있는 석굴의 방형의 주실은 가로 9.8m, 세로 10.75m의 넓이이며 높이 6m의 석축을 큰 무사석으로 쌓아 올렸고 그 가운데 불상을 봉안하였다. 모든 조영계획은 석굴암을 모방하였고 규모가 웅장한 반면에 퇴화과정이 역력한 석굴이라 하겠다.



충주 탄금대

충주시 칠금동 산-1

충주에서 서북쪽으로 3km 지점에 충주사람들에게 추억을 심어주는 명승지 탄금대가 있다. 오대산에서 발원한 남한강이 탄금대 북쪽으로 유유히 흐르고 속리산에서 발원한 달천강이 한강과 합수되는 지점에 자리한 탄금대는 대문산, 건문산이라 부르기도 하는 해발 100m 정도의 나즈막한 산이다. 악성우룩이 망국의 한을 달래며 가야금을 타면서 제자들에게 노래와 가야금, 춤을 가르쳤다는 곳이며, 임진왜란 때 팔도 순변사 신립장군이 순절한 곳이기도 하며, 야외음악당과 궁도장이 있다. 탄금대는 원래 대문산이라고 불리워 오던 작은 산으로 그 밑에는 남한강과 면서도 기암절벽에 송림이 우거져서 경치가 좋은 곳이다. 탄금대에는 현재 충주문화원, 야외음악당, 충훈탑, 감자꽃노래비, 탄금정, 탄금대기비, 악성우룩선생추모비, 신립장군순절비, 조웅장군기적비, 궁도장, 대홍사 등이 있고 조각공원과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최근 탄금대토성에 대한 발굴조사결과 삼국시대 백제세력에 의해 축조된 토성으로 밝혀져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충주 먹거리

충주 사과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충주사과의 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1997년부터 매년 10월에 열린다. 사과야つま선발, 사과관련게임, 관광객 사과따먹기, 사과야つま 축구대회, Farm stay, 사과따기 체험 등 이색적인 행사로 찾은 이들을 즐겁게 하고 사과식품 전시회와 품평회 및 사과장터가 열려 값싸고 품질 좋은 사과를 구할 수 있다. 충주 사과 100년 역사의 전통성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특산품인 사과를 통해 충주사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사과 과학관은 역사관, 현재관, 국제관, 미래관과 사과의 발자취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 가공품 전시 및 판매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과시험장엔 100여종의 사과품종들이 선보이고 있다.



풀향기 궁중 갈국수 (경연대회 수상업소)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검은 콩, 흑임자, 들깨가루 등을 넣어 만든 쫄깃한 면과 푸짐한 해산물과 야채가 어울어진 담백한 해물육수로 맛이 일품이다.

- 주요메뉴 : 궁중해물갈국수, 수제만두전골, 올갱이매운탕
- 영업시간 : 여는시간 11:00~ 닫는시간 21:00 쉬는날 연중무휴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백두월산 산신제



시장 특유의
정신과 흥겨움이 묻어나는
파열감 완창제





백월산 정산에서 바라본 홍성



홍가신 일가의 목상 5기

무릇 평안하기를

일월산(日月山) 혹은 월산(月山)으로도 불리는, 충청남도 홍성군의 백월산(白月山), 거대한 코끼리 형상의 바위를 지나 정상으로 올라가면 ‘백월산산신제’를 지내는 홍가신사당이 자리한다. 정상을 향해 오르는 동안, 여러 사당과 기도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예부터 무속인들이 많이 오는 산으로 유명하다는 백월산, 이 산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일까. 바위봉을 등지고 벼랑 위에 선 청난사와 홍주 청난사중수비, 정난사라고도 불리는 청난사는 임진왜란 중 이몽학의 난을 평정한 홍가신 등 다섯 충신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또한 경술국치를 전후해 많은 의병들이 백월산에 들어와 장렬한 최후를 마친 청난사는 민속신앙의 당집도 겸하고 있다. 산머리에 둔 충신을 받들고 그 뜻을 기리는 사당,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 지정된 날에 이곳에서 지내는 백월산산신제는 홍성읍민의 건강과 평안, 개인의 평안과 번영 기원하는 뜻이다. 예부터 계속 이어온 전통문화행사다. 사당 안에는 ‘백월산신지위(白月山神之位)’라는 산신 위패와 함께 오른쪽에는 홍가신 목사(牧使), 최호 수사(水使), 박명현 우후(虞候), 임득의 파총(把摠), 신경행 등 청난공신의 위패가, 왼쪽에는 홍가신 일가의 목상 5기가 있다. 충신의 위패와 함께 홍가신 가족의 목상까지 모서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혼신의 노력과 지혜로서 질병을 퇴치한 홍가신 목사를 신처럼 받들었기 때문이다. 홍성 읍민들을 살뜰히 보살폈던 옛 목사의 마음과 같이, 홍성의 진산(鎭山)인 백월산은 이 나라와 이 땅에 사는 이들의 미래를 지키려 했던 충신들의 뜻과 같이 오늘도 서해바다를 내다본다.

정상에 다다를 즈음, 건너편 봉우리계 선 팔각정 위로 하늘을 뚫는 까마귀 몇 마리를 본 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홍조라고 오해 받는 까마귀는 사실, 옛 조상들이 길조라 여겼던 새다. 이 길조가 홍조로 여겨지게 된 이유는, 왜란이다. 우리나라로 쳐들어 온 왜군들이 배에 태워온 새가 바로 까마귀였다. 때문에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모습이 보이면 왜구가 나타난다는 신호처럼 믿게 됐다. 불운한 소식을 알리는 까마귀는 그러나, 어쩌면 동굴 속의 카나리아와 같이 불운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대비가 허술한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라 웃을지 모른다. 백월산 서쪽, ‘하늘이 내린 영험한 산’ 자락에 만해 한용운 선생과 백야 김좌진 장군이 태어난 생가가 있다. 사망이 막힘 없이 내다 보이는 산 정상, 천제단에서 그들이 기원한 미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산을 뚫는 까마귀는 또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들숨을 쉬는 역사, 날숨을 쉬는 문화

가을을 맞은 백월산, 9월 초하루 이곳 홍가신사당에서 산신제가 열렸다. 1년에 두 번, 봄가을로 지정된 날에 지내는 산신제는, 예부터 이어온 전통문화행사다. 2012년 가을 제사를 올린 9월 15일, 이 날은 좀더 뜻 깊은 행사가 함께 마련됐다. 바로, 홍가신지신위 행사 재현을 복원해 처음으로 진행한 일이다. 홍성군 군지에도 홍가신지신위 행차 행렬을 해왔다는 몇 줄 기록으로밖에 남지 않은 홍가신지신위 행사를 복원할 수 있었던 데는,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2012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에 선정된 힘이 크다. 2004년 원인 모를 화재로 소실된 홍가신사당과 내부에 있던 목상과 위패를 복원한 2006년 이후, 오랫동안 잃었던 문화를 다시 한번 복원해낸 일이다. 홍성내포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치러지는 백월산산신제를 오랫동안 지도하고 자문해온 강노심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내포전통민속문화보존회'와 현재 홍성군에서 문화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연구 <길>의 최철 소장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성과다.

유난히 우리나라를 빛낸 위인들을 많이 배출해낸 땅, 이 기운이 흐르는 땅에서 『신과 함께』 살아온 홍성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도 강노심 회장은 백월산산신제가 열리는 백월산의 홍가신사당을 관리하는 '내포전통민속문화보존회'를 설립하고 2004년 불에 타 소실된 홍가신 목상을 직접 복원한 이로써, 백월산산신제와 함께 오랫동안 최영장군영신굿보존회 회장을 맡으며 최영장군 영신굿을 활성화 시켜왔다. 올해 복원한 홍가신지신위 행차 재현은 20~30여 년 전 명맥이 끊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강노심 회장은 행차에 쓰이는 홍가신 인형을 직접 만들며 이번을 계기로 행차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바랐다. 그 뜻을 담아 원래 짚으로 만들던 인형을 새롭게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인형을 태운 리어카에 홍가신과 함께 난을 막았던 장수들의 이름을 올린 현수막을 세우고, 인형 앞쪽에는 청룡과 백호, 그리고 바가지에 황토를 담아 올려두었다. 이는 홍성군의 나쁜 것을 걷어 달라는 정화의 의미로, 행차 시 싣고 다니며 뿌린다. 홍성전통시장 상인풍물패 '길'이 펼치는 풍물과 함께 한 행차는 홍성5일장이 열리는 홍성전통시장을 돌아 시장 내의 마늘전 광장까지 이어졌다. 장날에 맞춰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일환인 '홍성장터 난장축제'가 함께 열린 이날, 행사를 찾은 많은 외국인들이 시장 상인들과 함께 행차를 반겼다.

오후 2시, 홍가신사당 앞에서 백월산산신제가 시작됐다. 내포민속문화보존회 회원들의 진행으로 산신제가 올려지는 동안, 행사에 참여한 많은 이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토한 기원한다. 그간 저마다 살아 가는 동안 무시로 마음 속에 컸던 촛불을 한 자리에 선 시간이기도 하다. 김종삼 시인의 시(詩)를 빌어 바람한다. "하루를 살아도/ 온 세상이 평화롭게/ 이들을 살더라도/ 사흘을 살더라도 평화롭게// 그런 날들이/ 그날들이/ 영원토록 평화롭게" 

홍가지신위 행차 맨뒤에
함께하는 대령 홍가신 민형!



홍가지신위 행차 행렬



홍성 5일장이 열리는
홍성전통시장!
행차는 전통시장을 돌아
마늘전 광장까지 이어진데요



백담산 산신제



홍성 문화 체험

홍성의 굿

홍성에는 최영장군 영신굿과 홍성 앓은 굿이 대표적이다. 최영장군 영신굿을 치내는 경우 백월산 산신제를 먼저 지내고 마을의 미륵불에서 미륵제를 지낸 후 굿을 하는 것이 순서다. 이전에는 각 제와 굿을 각기 따로 진행했으나 2004년 홍가신 사당 화재손실과 많은 무속인들의 방문으로 인한 등산객의 불편 등의 문제로 일괄적으로 지정된 날에만 제를 치르도록 '내포천통민속문화보존회'에 백월산 관리를 위임한 이후, 2012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에서 선정한 '백월산산신제' 행사와 '미륵제'를 이어 지내고 다음날부터 2~3일간 최영장군 영신굿을 진행하고 있다.

홍성내포문화축제

홍성은 과거 홍주로 불리던 곳으로 조선 실학자 이증환이 저서 택리지에 통해 충청도에서 살기 좋은 곳이라 칭한 곳이다. 홍성내포문화축제는 김좌진 장군과 우리 나라의 민족 시인이자 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선생을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다. 백야 청산리전투 재현, 백야 어록 부채 만들기, 독립운동 체험마당, 홍성 옛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매년 9월, 홍구성 일원에서 펼쳐진다.



홍성팔경

해발 381m로 기암괴석이 수려한 서해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제1경 용봉산, 서해의 관문이자 국방의 요새였던 제2경 홍주성과 여하정,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이며 시인인 한용운 선생이 태어난 제3경 만해한용운생가, 자연의 순수함을 최대한 보존한 친환경문화휴식공간인 제4경 그림이 있는 정원, 충남 서북부 최고봉으로 정상에 중심으로 약 2km 주능선이 운동 역새밭으로 장관을 이루는 제5경 오서산, 광활하게 펼쳐진 천수만과 어우러져있고 연중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제6경 남당항, 우리나라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였던 백야 김좌진장군이 태어나고 성장한 제7경 백야김좌진장군생가, 일몰과 일출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제8경 굴리포구가 내포역사를 지닌 홍성의 대표 관광명소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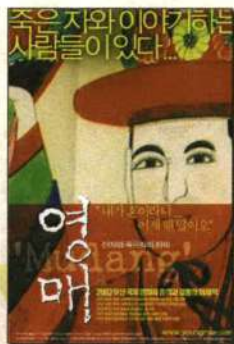


홍성 제 8경 굴리포구

제의를 체험하는 문화 탐험

영화 <영매: 산 자와 죽은 자의 화해>

한국 무속을 다큐멘터리로 다룬 영화로 '무당과 굿'이라는 다분히 미신이라고 치부돼온 소재로 현대사회에서 주변부로 내몰린 무속을 다룬 수작이다. 산 자와 죽은 자를 화해시키는 무당의 모습을 친근한 우리 이웃으로 그리는 영화는 무당의 내면에 숨어 있는 애환을 또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린다. 포항의 별신굿에서부터 무업을 기업으로 삼는 세습무, 신들림의 체험으로 무당이 된 진도와 인천의 강신무 등 세 명의 서로 다른 무당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역사의 인물을 만나는 책 읽기



『조선시대 아산지역의 유학자들』

만전 홍가신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으로, 이 외에도 맹희도, 맹사성, 조익, 박지개, 이간, 임헌희 등 조선시대 아산지역의 유학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인물에 대한 탐구는 물론 아산지역의 학술평화 전통에 대해서도 헤아릴 수 있다.



『만전당 홍가신 연구』

만전당 홍가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서. 만전당 홍가신은 조선조 중기, 특히 임진왜란의 현장에서 지방관리로 활동했던 인물로, 당시 가장 위협적이었던 '이몽학의 난'을 토평한 현장의 지휘자였다. 이 책에서는 홍가신의 정치활동을 통해 그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문학유산을 통해 그의 정신세계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마을의 수호신, 광경동 미륵불

미륵불은 오래 전부터 대교리 주민들의 신앙 대상물이었다. 광경동 미륵제를 지내며 마을과 주민들이 모두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음력 1월 14일 제사를 지냈다. 옛날에는 미륵불을 상당히 신성시 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미륵에 대한 신앙심도 많이 식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홍성에서는 미륵불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현재 자리인 놀이터로 옮긴 후 홍성5일 시장에 큰 불이 났다. 후자는 미륵불이 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 이후 당시 시장변영회에서 주관해 미륵제를 활성화 되는 계기로 삼았다. 민간신앙은 민간인의 생활 속에서 형성되어 생활을 통해 전승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의식과 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친다. 예전처럼 미륵제에 대한 신앙심보다는 마을 주민들과 홍성정기시장 상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홍성 대교리 광경동 미륵제는 마을의 수호신에게 액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제의를 올려온 마을 공동체 신앙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평안이 곧 마을의 평안과 번영을 가져온다는 의미로서 대교리 주민들의 지역적 생태와 생업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교리는 광경동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름은 아주 오래 전 이곳에 광경사라는 큰 절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졌다. 현재 마을회관 앞 놀이터에 세워져 있는 문화재자료 제160호 광경동 미륵불은 광경사지라는 절에 있던 석불로 알려져 있다. 광경사가 폐사되면서 수백 년 간 이 미륵불도 땅 속에 묻히게 되었는데 한 농부가 논에서 일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후로 미륵불을 논 옆에 세워두고 신성시한 농부는 이전까지 없던 자식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다.

올해부터 대교리 주민들이 미륵제를 대보름날로 옮겨 지내기로 결정한 데는 주민들 대부분이 홍성5일시장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상인들이 관계로 대보름 전날인 14일에는 나물장이 서기 때문이다. 홍성군 홍성읍 도심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대교리는 홍성군의 대표시장인 홍성5일시장이 속해있는 마을로, 주변 홍성천에 군민들의 산책로와 대형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중심도로 주변으로 명동거리와 같은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홍성역과 홍성고속·시외버스 터미널과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해 장날이면 최대 유동인구 2만 여명에서 최소 5천 여명 정도가 오간다. 마을의 주요 생업은 대교리의 대표적인 구역인 홍성5일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상업인 약 400여 점포와 장날에 유입되는 약 1천여 명의 난전 상인이 있다. 1999년부터 광경동 미륵제 제관을 맡고 있는 이상 우성재 씨는 “우리 마을은 우리 홍성군의 대표 전통시장인 홍성5일시장이 있으며, 마을 주민 대부분이 시장에서 생업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시장변영이 곧 마을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마트에 밀려 위축되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민이 예정보다 많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마을주민은 물론 상인들과의 화합 및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우리 마을에서 개최해오던 미륵제를 마을보다는 시장상인들을 중심으로 개최해오던 것은 그 때문입니다.”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홍성 광경동 미륵제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수호신 미륵불이 주인공인
홍성 광경동 미륵제!





주민들의 소원을 담은
색색깔의 초지

시장상인들로 구성된 풍물패!
흥겨운 가락이
전문가 못지 않네요!

전통을 계승하기가 늘 의미있는 발걸음

경기침체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부족으로 해가 갈수록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을 공동체 신앙은 그 원초적인 목적이 개인의 생업과 마을의 안녕을 비는데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합동으로 제비를 추렴해 제를 올려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단합과 우의를 다지며 애향심을 기르는 근간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마을 사람들의 심적 유대와 단합을 촉진시키며 오랜 역사를 지켜가는 공동운명체의 일원으로서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는 동시에 전통문화를 계승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광경동 미륵제는 그런 점에서 현재적인 변화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마을의 오랜 전통을 지키고 계승해갈 수 있는 접점을 끝없이 고민해온 가운데 치러져 왔다. 올해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로 마을 대동회를 겸한 미륵제를 연 24일 본 행사는 미륵불이 있는 행사장 주변에서 부녀회와 청년회 등의 지원으로 참여객이 보름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투호던지기, 윷놀이 등의 소박한 행사와 함께 달맞이 행사와 풍물놀이, 미륵제를 지내고 비나리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미륵제 제관은 예부터 생기 복덕을 보아 정갈한 사람으로 선출해 지냈는데, 세월이 흐르며 미륵제에 대한 관심이 줄면서 한때는 마을의 몇몇 사람들이 맡아 지냈다. 1999년부터 작년까지는 현재 흥성정기시장 상인회에서, 작년부터는 광경동 부녀회에서 미륵제를 주관해온 가운데 제관은 20년간 마을 일을 맡아온 우성제 이장이 맡고 있다. 제의 순서는 상인풍물패의 지신밟기, 법사의 축원, 삼배, 축문과 소지를 올리는 순으로 진행하는데, 올해 지신밟기는 본 행사 전날인 23일 전통시장 상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이뤄졌다. 제물로 시루떡, 삼색식과, 사과, 배, 포, 술, 밥 등을 준비하고 법사를 불러 마을 사람들을 위한 축원을 한 후에 소지를 올린다. 최근에는 원하는 사람만 소지를 올려주고 있는데, 올해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뤄드립니다” 하고 누구나 소원문을 쓸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축제 참여객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흥성전통재래시장 입구, 광경동 미륵제 및 전통민속놀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내에도 이 자리에 걸고 더욱 더 풍성한 축제를 벌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미륵불은 다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

홍성 볼거리

천수만

충청남도 서쪽, 홍성군 서부면에 위치한 천수만은 입구 너비 2km, 만입 길이 40km의

전형적인 익곡만(溺谷:지반의 침강이나 해면의 상승으로 육지에 바닷물이 침입하여 해안에 생긴 골짜기)으로, 범람을 비행기로 뿌려야 할 만큼 넓은 농경지에는 새의 먹이가 되는 곡식 낱알이 풍부하고 새의 보금자리가 되는 갈대숲이 형성돼 있어, 해마다 수많은 철새들이 찾는 철새들의 낙원이 되었다. 천수(淺: 얕을 천, 水: 물 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천수만은 예로부터 수심 10m 이내의 얕은 바다였다. 수심이 얕고 작은 섬들과 암초가 많아 대형선박의 출입과 항행이 어렵지만, 높지 않은 수심과 심한 간만의 차로 예전부터 연안어업과 수산 양식장의 적지로 알려져 왔었다. 넓게 발달된 갯벌에서는 바지락, 김, 굴 양식과 천일제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른 간척지는 또한 간척의 호조건이 되어 79년부터 농경지와 담수호 조성을 위한 간척농경지로서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출처: 천수만 공식홈페이지 <http://www.cheonsuman.go.kr/>

홍성 먹거리

홍성 한우

홍성은 축산물의 고장이며,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양질의 소를 사육하는 고장이다. 축산과 함께 유기농이 처음 시작된 곳도 홍성이다. 어디서든 지나가다 목마르면 어디서든 마실 수 있는 지하수도 풍부하고, 공기도 맑다. 홍성한우는 이러한 곳에서 생산되는 사료(벼짚과 알곡)를 섞어 먹여 사육한 한우이기 때문에 육질이 부드러우며 그 맛이 일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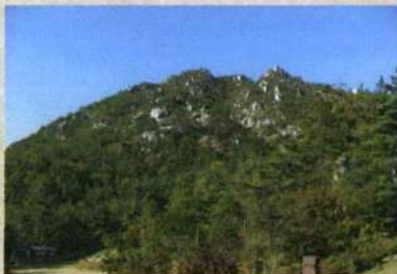




홍성 즐길거리

용봉산 자연 휴양림

용봉산은 해발 381m이며,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덕산면 및 삽교읍에 걸쳐있는 산이다. 산 전체가 바위로 뒤덮여 있으며 골짜기마다 기기묘묘한 기암괴석이 많아서 등산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용봉산 전체를 뒤덮고 있는 아름다운 기암괴석들은 등산객들의 감탄을 자아내면서 남한의 작은 금강산이라는 애칭이 붙어있다. 산 모습이 용의 몸집과 봉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용봉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구전된다. 용봉산의 고려시대 이름은 북산(北山)이었고, 조선시대 이름은 팔봉산(八峯山)이었다. 일제강점기에 홍성쪽은 용봉산으로 바뀌었고, 예산쪽은 수암산으로 바뀌었다.



출처: 용봉산 공식홈페이지 <http://www.yongbong.or.kr/>

산림욕이란?

공기통풍과 땀흘림수가 잘되는 간편한 복장으로 울창한 숲 속에 들어가 거닐면서 신선한 공기를 가슴 속 깊이 호흡함으로써 숲에서 발산되는 피톤치드를 마시거나, 피부에 닿게 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맑아져 안정을 가져오며, 건강이 매우 좋아지게 되며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건강증진법이다. 피톤치드는 나무가 자라는 과정에서 상처부위에 침입하는 각종 박테리아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방향성 물질로 그 자체에 살균, 살충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욕의 효과

숲의 나무들이 발산하는 테르펜류(피톤치드)가 유해한 물질을 죽이고 제거해준다.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심신을 순화시켜 주며, 숲속에서의 산책은 신체 리듬을 회복시키고, 운동신경을 단련시켜 준다. 심폐기능 강화로 기관지 천식, 폐결핵 치료에 도움을 준다.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는 초여름~가을, 맑고 바람이 적은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산림욕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여 백

영오리 천왕제 외 1곳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영오리 천왕제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담은 만장이
눈에 띄는 영오리 천왕제!





만장을 준비하는 손길

이야기 만사, 살아있는 만장의 풍경

수많은 만장이 휘날렸다. 징, 팽과리, 장구, 북 장단을 어우르는 오동풍물단을 뒤따르는 만장들의 행렬은, 곡식을 여물게 한 탐스러운 가을 별, 그 아래 세상에 사는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사람들이 벌이는 한바탕 축제를 알리는 신호다.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담은 휘장을 뜻하는 만장은 전통장례의식에서 죽은 사람을 슬퍼하며 지은 글이었다. 현대에 와서 축제의 성격에 맞게 마을사람들의 소원을 적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우리 선조들이 써 보내는 쪽이나 받는 쪽에서나 모두 가장 귀하고 큰 부의로 여겼다고 하는 만장의 풍습은 '앞에서 쓴다'는 뜻을 가진 만(輓)이 의미하듯, 전통민속을 선두로 한 행렬에서 쓰여온 우리의 오래된 공동체 문화에서 시작된 의식이다. 영오리 마을에서 매년 정월 초이튿날 천왕제를 모시고 정월 초이튿날 모시는 동제를 재현하는 행사인 '영오리 천왕제'를 한번이라도 참여해 본 사람들이 반드시 꼽는 것이 만장이다. 왜일까? 영오리 천왕제라 크게 쓴 우두머리 만장 뒤로 필체와 글자 크기와 내용도 제각각인 만사들이 쓰여있다. 그야말로, 저마다 개성이 한 가득이다. 이 만사들은 영오리 사람들이 쓴 것이다. 어른, 아이, 남녀를 가릴 없이, 어떤 소원들을 담아낸 소위 열린 게시판과 같은 만장의 만사를 통해 영오리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삶을 공유하고 응원하고 위로하며 화합한다.

6.25전쟁 당시 피난으로 2년여 중단됐을 뿐인, 300여 년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영오리 천왕제는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오래된 마을축제다. 이 축제를 재현하는 행사를 통해 이들이 도모하는 바는, 출향민과 인근 주민들을 모시고 영오리 마을 주민들의 한해 풍년을 기원하고 '생활문화공동체'로서의 화합이다. 사헌부 정량을 제수 받은 배한중이 임향조인 이 마을은 현재까지 달성 배씨 직계손들이 1/3로, 나머지 타성으로 이루어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마을 조직과 달성 배씨 장령공파 화수회 등 출향민들의 다수 모임을 통해 영오리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주민들이 화합을 이루는 가운데 참외, 오이, 상추, 연, 고추 등 특용작물을 생산해 고소득을 창출하는 근교농업의 표본이 되고 있다. 그간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불어 닥친 농촌의 암울한 공동화 현상으로 행사가 중단될 위기 또한 여러 차례 겪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화합으로 그 명맥을 이어



왔고, 최근에는 칠곡군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유관단체의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아 더욱 열의를 갖고 추진하게 되었다. 2010년 천왕제 재연행사를 결집인 마을축제를 처음 연 이후 마을축제를 통해 그 결속을 더욱 끈끈하게 다져온 이들에게 영오리 천왕제는 단순한 마을축제 이상의 의미를 갖는 공동체 의식인 셈이다.

지역의 인문, 지리, 사회, 경제적 특성을 기반으로 생활권 내 주민들이 생활 문화 및 생활 예술의 생산자가 되어 지역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고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영오1리 사람들이 지향하는 '생활문화공동체'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미래, 그 기틀을 견고히 다지는 '행복한 삶'의 든든한 울타리다. 그런 이들에게 미륵불상, 천왕제, 생활 노동요 등 토속적인 문화자원을 오늘날의 것으로 활성화하고 현대적으로 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이들이 일상에 쫓기는 가운데서도 마을회관에 자주 모여 나누는 이야기 시간과 같이 공동체 문화가 무엇보다 소중한 '자원'임을 알기에 일구어 올 수 있었던 동력에 근거한다. 다른 시골마을들과 달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이라 불릴 만큼 어린아이부터 90대 최연장자까지 세대별 20명 내외씩 고루 분포되어 있고, 평균 연령 36세의 젊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칠곡군 내에서도 인구 구조가 매우 탄탄한 이상적인 마을이 영오리다. 이곳에 들른다면 천왕제에서 본 개성있는 만장들처럼 또한 인상적인 집집의 문패를 꼭 한번 눈여겨 볼 일이다. 그야말로, '젊은 칠곡'을 대표하는 마을이 '사람과 사람'이 이웃되는 삶이란 무언지 한 눈에 보여주는 문패들이라서다.



생활문화공동체의 인문학 축제, 영오리 천왕제

〈삼간정지 춤을 추네〉라는 이름으로 2011년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영오1리 축제를 가진 이후 좀더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2012년 축제는 가을 걷이가 끝날 무렵인 청명한 가을 날인 10월 14일 열렸다. '영오리 천왕제' 재연 행사를 포함하는 '인문학 지역 마을축제'는 외부 단체 초청공연을 포함하는 마을 축제로서 신명 가득한 한판을 벌였다. '평생학습특별시'를 내세운 칠곡군이 정부공모사업으로 '인문학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의 잠재능력과 정체성을 찾고 경제 및 사회·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창조지역사업으로 인문학이라는 주민 중심 교육문화 콘텐츠를 조성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영오리 천왕제'는 칠곡군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이다. 마을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다양한 전통문화행사가
함께하는 영오리 천왕제

인문학적 자원을 발굴해 이를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인문학 마을 만들기에 지천면 영오리가 가진 300년 이상 전해 내려온 오래된 당산제는 주민 화합 프로그램으로서 대표적인 콘텐츠가 되고 있다. 지역은 물론 타지에서 이 ‘소문난 잔치’에 참여하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한층 늘었을 만큼 영오리 천왕제재연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길놀이 및 사자탈춤, 고전 모듬북 공연, 해금연주, 강령탈춤 미알과장, 영남사물놀이공연, 퓨전 기악 및 민요 한마당, 사물판굿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관객이 우리 음악과 전통문화를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10월 14일, 축제는 영오리 천왕제 마을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풍물굿을 마을 입구에서 시작해 강령탈춤의 사자탈을 쓴 연희자들이 천왕제가 재연될 마당의 기운을 정화하는 사자춤 판을 벌이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동민이 모두 모여 당산목으로 지정 관리하는 마을 뒤편 포구나무와 소나무가 있는 주산으로 풍물패를 앞세워 올라가 제관과 축관을 선두로 제사 날짜와 사옹 식수를 점지하는 천왕제를 올리고 행사가 끝나면 비로소 풍물패를 앞세운 지신밟기를 통해 일년 액운을 풀어내고 동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화합의 한마당을 이루는 판이 벌어진다. 영오리 먹골마을 앞 공터, 그곳에 세워진 석불입상(漆谷永梧里石佛立像)은 말없이 그들을 지키며 서 있다. 매일같이 그의 앞을 뛰어가는 아이들과 그들의 웃음소리와 마을 주민들이 쏟아내는 갖는 일상사가 빚어지는 모습들을 보며 이들의 ‘안녕’을 빈다. 그것이 한낱 미신이라 치부되었던 영오리 마을 천왕제가 동민들의 화합된 한마당 축제의 장이자 마을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았듯, 이들의 풀뿌리 문화가 곧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공동체’를 이루는 선도적인 예가 되기를 바라듯.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의 인문학적 콘텐츠

영오리 천왕제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길은리

마을 뒤편 포구나무와 소나무 당나무(서낭나무)로 지정 관리하면서 음력 정월 초이튿날 제관, 축관을 점지하고 제사 날짜, 사용 식수를 점지하는 천왕제를 올린다. 정월 초이튿날 동회관에 남녀노소 구분없이 동민 모두 모여 뒤산(주산)에 모신 당산목으로 풍물패를 앞세워 올라간다. 동민 중 한분은 천왕님 신대를 준비하고 마을 대표 어르신인 선도로 당산목에 정렬후, 천왕님께 새해 큰절을 공손하게 두 번 올린다. 동 대표자가 "00년 새해를 맞아 동제를 모시고자 하오니 천왕님께서 대를 내려 제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린다. 풍물을 울리며 정성스럽게 흥을 돋우면, 천왕님이 대내림을 통해 힘껏 흔들면서 제관의 집으로 인도한다. 제관의 집에 당도하면 올해 천왕제 제관의 인사를 받는다. 이에 동대표는 "제관의 집은 잘 알았으니 함께 제사를 모실 축관 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청하면 천왕님 신대가 다시 삼하게 흔들린다. 천왕대를 앞세우고 풍물패가 뒤따르면 축관 집으로 인도한다. 축관으로 점지된 이의 인사를 받은 후 동대표가 "제관, 축관을 점지하였사오니 제사 날짜를 여쭙겠습니다. 예년처럼 정월 초이렛날로 하면 좋을는지, 좀으시다면 대를 흔들어 주십시오"라고 묻는데, 이때 대가 흔들리면 정월 초 이렛날로 정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한참 후 다시 "초이렛날이 아니면 정월 열나흘날로 정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묻는다. 거의 대부분 초이렛날로 점지가 되지만 간혹 열나흘날로 점지되는 경우도 있다. 근년에는 1998년에 열나흘날 제사를 모신 경우가 있다. 날짜를 잡는 대가 흔들리면 역시 동대표가 대를 잡고 "제사에 쓰는 물은 작년에 사용한 상수도물로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묻고 이에 대한 대의 떨림이 있으면 제사에 사용할 식수를 정하는 것으로 천왕님 모시는 제사 정하는 행사는 모두 끝이 난다. 이날 하루는 풍물패를 앞세워 방문하여 지신밧기를 통해 일년 액운을 풀어내고 동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화합의 한마당을 이룬다.





영오리 석불입상(漆谷永梧里石佛立像)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먹골마을 앞 공터에 있다. 높이 175cm, 폭 120cm, 두께 20cm 가량의 화강암 판석에 새긴 것으로, 물결 모양으로 추름 잡힌 법의(法衣)를 걸치고 있다. 오른손은 가슴 앞에 올려 법의를 잡고 있고 왼손은 아래로 내려 시무외여원인(施無畏與願印)의 수인(手印)을 취하고 있다. 심하게 파손되어 3부분으로 조각나 있던 것을 다시 맞추어서 콘크리트 기단 위에 세워 놓았다.



영오리 서낭나무(漆谷永梧里)

매년 음력 정월 8일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먹골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동제(洞祭)를 지내는 나무이다. 먹골마을 서편, 마을 뒷산의 간이상수도 시설 옆에 있다. 현재 상당(上堂)에는 고사한 팽나무 2그루가 있고 20~30m 떨어진 하당(下堂)에는 오래된 팽나무 1그루가 있다. 나무에는 한지를 끼운 금줄을 둘었으며 제단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정월대보름에 달이 뜨면...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석우2리 마을의 음력 정월 대보름 행사는 이 지역 고유제인 화산 소금단지 묻기를 실시한다. 격년에 한 번씩 정월 대보름 전후로 달집태우기 행사와 함께 행하는 화산소금단지 묻기의 유래는 이렇다. 가산면 석우리 남쪽에는 높이 305m의 뾰족한 산인 소금재가 있다. 옛날부터 석우리는 불이 자주 일어 나 온 마을 사람이 항상 불안에 떨었는데, 한 도사가 이르기를 “소금재 꼭대기에 정월대보름 달이 뜨면 그곳에 소금단지를 묻은 후 달에 절하고, 산에 올라간 사람이 짚단에 불을 붙여 ‘불이야’ 를 세 번 외치고 마을 앞에 모인 사람들도 따라 ‘불이야’ 하고 고함을 질러야 마을에 불도 안 나고 아들 못 낳는 사람은 아들도 낳을 수 있다” 하여 생겨난 풍습이다.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민간 풍습으로, 새로 소금단지를 묻을 때는 작년에 묻은 소금단지를 파내 깨버리곤 했다. 소금단지 묻는 행사가 끝나면 소원지를 작성해 달집태우기를 하고 흥겨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풍물놀이 등을 같이 했다고 한다. 또한 정월대보름 먹거리를 장만해 주변 이웃들과 나눠 먹으며 외지 손님들에게도 대접했다고. 200년간 이어온 마을전통축제를 (재)작은공동체 전통예술단지 지원 사업으로 신청한 석우 2리 마을은,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인근 대도시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 행사를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지역 특화 축제 및 종합문화축제로 발전시키는 기회로서 올해 행사를 도모했다.

화산소금단지 묻기는 우리의 전통 풍수지리학을 따른 화기(火氣)를 제압하는 조치로, 마을 산에 묻는 일종의 제구(祭具)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神體)가 되기도 한다. 소금단지와 간물단지에 대한 유래와 역사를 알 수 있는 문헌자료는 따로 없는데, 한국민속신앙사전에 따르면 다만 마을에서 구전되어 오는 유래담이 있다. “유래담 가운데에는 그 연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시기는 사실상 신빙성이 없다. 소금단지와 같은 맥락의 간물단지를 묻었던 경북 영덕군 남정면 남정리에서는 유래의 배경이 고려 중엽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방증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소금무지산으로 유명한 충북 단양 두악산의 소금단지는 산의 명칭과 관련해 보면 오랜 역사성을 지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두악산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알려진 명산이었다. 단양은 1319년(고려 충숙왕 6)부터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지금의 단양 군청소재지가 이전되기까지 667년간 두악산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다. 공민왕 때에는 ‘합단의 난’ 을 물리친 공로로 단산부가 되고 두악산은 단양의 진산으로 품위를 다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두악산으로 산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소금무지산이라고 하였는데 언제부터 소금무지산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장성대보 불에
가이 해산소 주변
이웃들 함께 수 있습니다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화산소 금단지 불기 및 달집태우기



모든 행복이 불처럼 일어나기를

사실 소금단지에 담은 소금은 실생활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음식 간을 맞추는 기본 재료이고, 세척이나 소독을 할 때도 사용하며 채소를 절이는 데에도 쓴다. 세척, 소독, 절임 등의 기능이 있는 소금을 우리 민속 신앙에서는 부정을 가리거나 액을 쫓는 상징적인 기능으로 썼던 것이다. 예부터 무당은 굿을 할 때면 처음 부정거리에서 주변에 물과 소금을 뿌려 굿터를 정화했다. 월산임동권박사송희기념논문편찬위원회의 김명자 안동대학 교수가 쓴 <간물단지신앙의 용신신앙적 성격>에 따르면, “설화에도 소금 이야기는 종종 등장하는데, 특히 천지개벽과 관련된 설화에서도 소금은 중요한 소재가 된다. 천지개벽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등장함을 뜻한다. 이는 부정이 없는 깨끗한 세상으로, 소금으로 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고난의 해결은 대체로 지나가던 도인이나 지관 등이 해 주는데, 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별난 사람,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아닌, 영적(靈的)인 힘을 가진 사람이 항시 존재한다는 종교심성이 보편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 우리 문화 속 마을 신앙에 관하여 풀이한다. 석우 2리에서 열리는 소금단지 문기는 격년으로 시행해 왔다. 지난해 행사를 해서 올해는 쉬는데, (재)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의 소문난 잔치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올해도 대보름



화산소금단지 묻기와
달집태우기로
마을의 행운을 얻어요!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 잔치를 보기 위해 찾은 외지 손님들에게도 떡과 술을 나눠주며 함께 삶에 대한 덕담을 나눈 석우 2리 주민들이 결성한 풍물패가 마을을 돌며 지신밟기를 하는 것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이후 소금단지를 묻기 위해 산으로 행렬을 이루며 올라가는데, 마을에서 산으로 30여 분을 오르니 산 정상에 돌탑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돌탑은 소금단지를 묻는 곳으로, 달집에 만드는 일종의 달방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예전에는 없던 것으로 최근 들어 마을 주민들이 만든 돌제단이다. 석탑 하부 돌로 만든 제단 문을 열고 지난해 묻은 소금단지를 꺼내 깨고 올해 마련한 새 소금단지를 묻은 후 짚단에 불을 붙이고 마을 쪽을 향해 “화산에 불이야”를 세 번 외치자 마을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달집에 불을 당겼다. 한 눈에 마을 전체가 눈에 들어오는 산 정상에서 달집을 태우며 솟는 불이 보인다. 불이 나는 꿈을 꾸면 건강이나 재운, 화합, 정열, 애정 등으로 해몽한다. 큰불일수록 집안의 번성이나 큰 재물이 생기는 운수를 의미하는데, 활활 타는 것뿐이면 재수가 있을 뿐이고 불이 완전히 타 재만 남아야 재물이 수복이 쌓인다고 했다. 달집이 거의 사그러드는 동안 주변을 모아 완전히 타 없어질 때까지 그 모습을 지키는 석우 2리 사람들을 보며 든 생각이다. 이들에게 불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불이 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운명을 ‘복’ 되게 쓰러 아끼고 살피는 대상이기도 하다. 부디, 이들의 올 한 해에 모든 행복이 불처럼 일어나기를. 🌈

칠곡 여행하기

칠곡 가산산성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산 98-1번지 외



출처 : 한국관광공사

국내 유일의 3층성, 가산산성은 산골짜기를 이용하여 쌓은 석성(石城)으로, 조선 인조 18년(1640)에 축조되었다. 가산산성이 있는 곳은 신라시대 오악신앙(五岳信仰)의 중심인 명산 팔공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해발 901m의 가산은 일곱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일명 칠봉산으로 불리어지는 명산이다. 산정에 나지막한 7개의 봉우리로 둘러싸인 평지가 있고 여기서 사방으로 7개의 골짜기가 뻗어나가고 있다.

구상 문학관

칠곡에는 한국 시단의 거장 구상(1919~2004) 시인의 문학관이 있다. 구상 시인은 프랑스에서 '세계 200대 문인'으로 뽑혔으며, 그의 작품은 영어와 불어, 독어, 스웨덴어 등으로 번역되어 세계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시인이 경북 칠곡과 인연을 맺은 때는 1953년이다. 전후 이승만 정권에 대해 반독재 투쟁을 벌여 투옥되기도 한 그는 1952년 승리일보가 폐간되자, 부인 서영옥(1993년 작고) 여사가 의원을 차린 경북 칠곡군 왜관으로 내려와 1974년까지 기거하며 작품 활동에 매진한다. 이 무렵 그는 영남일보 주필을 맡아 대구를 오가며 시인 오상순, 아동문학가 마해송, 걸레스님 중광 등 당대의 예술가들과 폭넓은 친교를 쌓는다. 특히 화가 이중섭은 왜관의 그의 집에 함께 머무르며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이 무렵 그린 그림이 'K씨의 가족'이다. 칠곡군에 자리한 구상문학관은 2002년 부인이 경영하던 의원 자리에 세워졌다. 문학관 뒤편에 시인의 거처였던 관수재(觀水齋)가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자리하고 있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

칠곡 대둔사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신242



대둔사라는 같은 사명을 지닌 사찰이 혼치 않은데 경북 칠곡군 가산에도 같은 사명의 대둔사가 신라시대 고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신라 화랑도들의 수행도량으로 알려져 있다. 창건 이후 사적이 알려져 있지 않다가 1840년(조선 헌종 6) 대흥수로 사역 전체가 물에 잠겼다. 1992년 다시 수해로 대웅전이 무너졌으나 1999년 다시 극락전을 세웠다. 지금은 선방인 심검당도 세워져 있다. 현재의 대둔사는 대웅전과 함께 선방인 심검당을 함께 지어 스님 10여 명이 정진에 여념이 없는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둔사의 사명이 크게 싹을 틔운다는 뜻이니 이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때까지 대둔사는 또다시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워낼 것이다.



사진출처: '그리운 여행만들기'

칠곡 먹거리

칠곡 순대국밥 <고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85-84

고궁순대의 진한 국물은 정평이 나 있다. 진하고 구수한 맛은 돼지 무릎뼈의 면골에서 나온다. 섭씨 80도의 물탕크에서 1차로 핏물을 제거한 후 솥에 넣고 끓인다. 여기서 사용하는 솥도 중요하다. 곰탕은 가마솥이 좋지만 순대국밥은 열전도율이 높은 일반 백솥이 좋다. 순대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는 반드시 암컷으로 써야 하고, 응고된 피가 아닌 핏물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순대 속이 줄줄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 사장은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찹쌀가루와 전분, 10여 가지 채소를 넣어 순대 속을 완성해 현재의 순대에 이르게 된다.



출처: 한국관광공사

여 백

내요리 돌모산 당산제 외
1곳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내요리 돌모산 당산제



돌모산의 특별한 제물, 용줄

부안읍사무소에서 남쪽으로 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농사마을인 돌모산. 현재 4~50명 가량의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안읍 내요리 석제마을은 예부터 돌이 많은 마을이라 '돌외'라고 불렸다. 현재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석제와 석하로 나뉘었지만, 마을을 불러온 하나의 이름은 돌모산이다. 마을 민들과 향후들의 건강과 안녕, 한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해마다 '돌모산 당산제'를 500여 년간 지내온 이들은 초 사흘부터 대보름날까지 북을 울리며 가가호호 방문해 마당에서부터 방, 부엌, 우물에게까지 군무를 치고 모든 잡귀와 기타 병균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왔다. 그 지신밟기로 수렴한 쌀을 모아 경비를 충당했는데 마지막 보름에는 집집마다 짚단을 수렴해 두꺼운 동아줄로 엮어 용줄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왔다. 얇은 9개의 새끼줄을 만들고 각각 3개씩 나누어 꼬아 중간 굵기의 줄을 만들고 이것을 다시 하나로 엮어 만드는 용줄은 보통 길이가 100m가량 됐었다. 용줄 또한 원래는 27개의 줄을 만들어 세 가닥씩 엮어 9개의 줄을 만들고 다시 세 가닥씩 꼬아 하나의 큰 줄을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는 사람이 부족해 시간적·경제적인 이유로 7~80m 가량으로 그 길이를 줄여 만드는데도 그 무게가 상당히 20~30명 가량의 힘이 필요한 일인데,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을까 상상하니 그저 놀랍다. 새끼는 오른쪽으로 꼰 때보다 힘과 노력이 더 많이 드는 왼새끼여야 한다. 이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습을 따르는 것으로, 마을의 당산인 돌기둥을 감는 특별한 제물이기 때문이다. 종종 호흡이 맞지 않아 길이와 무게가 상당한 용줄을 만드는 중간에 새끼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온 마을 주민들은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다시 용줄을 엮어왔다.



마을 모두가 참여하는
용줄 만들기!
함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해봐요



어른아이 할것없이
짐대할머니께 두름 용줄을
어깨에 둘러 매었습니다!



줄다리기



짐대 할머니 옷 입히기



거친 풍랑 속 우리 마을 지켜주소

‘돌모산 당산제’가 진행된 2월 24일, 마을 주민들이 오전 일찍부터 돌모산 경로당에 모여 얇은 새끼줄을 준비한다. 또 한편에선 제사에 쓰일 음식 준비가 한창이다. 특별히 정해진 제물은 없지만, 정성을 들이는 손길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얼마 후, ‘돌모산 당산제 보존 고향 방문단’이라 써붙인 전세버스 한대가 마을 회관 앞 마당에 선다. 이 마을 출신 출향민들로 전국 각지에서 당산제에 참여하러 내려온 것이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오전 10시경부터 함께 큰 줄을 완성해 가는 풍경이 이채롭다. 이들이 당산에 입힐 새 옷을 준비하는 동안 한 무리는 당산 돌기둥에 묶어 둔 작년 새끼줄을 조심스럽게 벗겨내어 빈 터로 가져가 깨끗하게 태운다. 돌모산 당산은 높이 2.5cm, 둘레 85~98cm의 솟대형 석조산간 위에서 서북쪽을 향해 있는 돌오리가 놓인 솟대 모양의 전형적인 동구당산이다. 집대 할머니는 마을 수호신의 신체로서 마을의 평안, 태평,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믿어진다. 석 달 전부터 제를 준비해 임원과 제관을 정하고 마을 돌기, 남녀줄다리기, 집대 할머니 옷 입히기, 흥풀이 등의 흥겨운 풍물놀이가 끝난 오후 5시경 당산제를 치른다.

마을 주민들이 남과 여로 나눈 위듬과 아래뎌름으로 편을 나누어 줄다리기를 펼치는 데서도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 남자 편에 가시나무 회초리를 때리는 모습이다. 이유를 물으니, 항상 줄다리기를 할 때 여자 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믿어온 때문이다. 줄다리기를 마친 후 마을 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굵은 새끼줄을 어깨에 메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마을에 침입한 잡귀를 몰아낸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 쓴 깃발을 앞세우고 풍물을 치며 마을을 돌며 집대 할머니가 있는 할머니 기둥으로 가 새 옷을 입히고 제사를 지낸다. 당산 돌 기둥에 두꺼운 동아줄을 칭칭 감아 매는 이유는 무얼까. 옛날 돌모산 마을 앞은 바다였다. 사람들은 이 당산이 풍수적으로 배의 형국인 내요리에 안녕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배가 거친 풍랑에 안전하기 위해서는 큰 기둥을 꽂아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배를 정박하듯 마을의 부귀영화가 밖으로 떠나가지 않도록 마을 앞에 집대 당산을 만들어 새끼줄로 묶어 매어 두는 것이다. 당산제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없애 주고 풍요롭고 편안한 삶에 대한 소망을 기원하는 소원지를 날려보내는 것으로 축제는 끝났다. 고향을 떠나 사는 출향민들에게도 언제나 돌아올 고향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돌모산 당산제는 이 마을 주민들에게 큰 자긍심이 된다. 언제나 한결같이 서로가 협동하며 이 삶터와 생활문화를 지켜왔듯,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당산이 살아있는 한 이들의 삶터는 결코 떠내려가거나 파손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

부안 관광지

부안 벼락폭포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부안댐과 변산온천쪽으로 약 1.5km 쯤 올라가면 왼편에 기암절벽이 병풍을 두른 듯이 들어서 있고 해창천의 맑은 물이 산수화를 그리듯 계곡을 흘러가는데 산 중턱에서 급히 쏟아지는 물기둥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벼락폭포이다. 벼락폭포는 수원이 적어 가을 때는 말라 버리고 말지만 그 절벽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내소사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에서 북쪽으로 1.2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내소사는 백제 무왕 34년(633)에 창건되었다고 전한다. 해구(惠丘)두타 스님이 이 곳에 절을 세워 큰 절을 '대소래사', 작은 절을 '소소래사'라고 하였는데 그 중 대소래사는 불타 없어지고 지금의 내소사는 소소래사이다. 보유한 문화재로는 국가 지정문화재 4점과 지방 유형문화재 2점이 있다. 또한 잘 보존된 봉래루 화장실 등 옛 건축물과 근래에 신축한 무설당, 진화사, 범종각, 보종각, 선원, 회승당 등의 건축물이 도랑에 조화롭게 잘 자리잡고 있다.

내소사에는 수령이 약 5백 여년이 되는 느티나무(할아버지 당산)와 높이 약 20m, 둘레 7.5m의 약 천 여년 쯤 되는 느티나무(할머니 당산)가 있으며, 봉래루 앞 마당에는 하늘을 찌를듯한 수령 300여년으로 추정되는 거목 "보리수"가 자리하고 있다. 절 입구 울창한 전나무 숲길은 전나무 향기 가득한 매력적인 산책로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



우리나라 청자 도요지 가운데 전남 강진이 청자축제를 열 정도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데, 전북 부안 역시 그 못지않게 최상품의 상감청자를 생산했던 곳이고, 고려청자가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곳이다. 2011년 4월에 개관한 부안청자박물관(063-580-3964, www.buancela.go.kr) 박물관 곳곳이 청자로 꾸며져 있어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청자로 만든 출입문 손잡이, 청자의 유리질 화한 표면(도자기에 유약을 발라 구워낼 때 공기 수축으로 생기는 잔금 현상)을 형상화한 전면 유리창, 고려청자의 노르스름한 초기 빛깔부터 다양한 청자의 비색을 연출한 벽면까지 알고 보면 신비로운 청자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부안 먹거리

부안 백합죽

예부터 전북 부안의 별미는 백합죽·바지락죽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백합은 부안의 특산물. 포일에 싸서 삶은 백합과 백합 껍데기에 들어 있는 국물 맛은 일품이다. 한번 맛본 사람은 다음에도 꼭 찾는 부안의 먹거리. 조개가 나오는 이맘때는 백합과 키조개, 비단조개, 소라 등 10여가지 조개구이도 더없이 좋다. 부안의 너른 갯벌에서 자라는 백합조개, 백합죽은 이렇게 할 양념 없이도 담백한 맛이 난다. 부안의 백합죽은 맛있다. 맛있는 표현이지만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잘 어울린다. 대단한 양념을 하지 않아도 백합이 가진 특유의 담백함이 백합죽이란 걸출한 메뉴를 탄생시켰다. 그래서 한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백합죽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출처: 한국관광공사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죽림마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300년간 계승되어 온
죽림마을만의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죽림마을의 제일 큰 잔칫날, 정월대보름

사철 변함없는 '대나무' 처럼 곧고 바르게 번영하는 마을, 봉화산 자락 깃재 부근에서 솟아오르는 아침햇살이 제일 먼저 닿는 동향마을인 죽림마을은 백운산과 장안산 줄기가 만들어낸 대봉포태지라 하여 풍수지리학상 큰 인물이 많이 탄생하는 마을로 알려져 있다. 해마다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을 가장 큰 잔칫날로 여기는 죽림마을에서는 한 집도 빼지 않고 쌀, 조, 수수, 팥, 콩을 섞어 지은 오곡밥과 아홉 가지 나물을 해서 먹는다. 풍농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는 오곡밥은 '농사밥' 이라고도 하는데, 선조 때부터 정월대보름을 한해 농사의 시작이라고 여긴 전통을 따르고 있다.



지신밟기

생솔가지로
춤하게 만들어진 달집은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같이!

장수군을 대표하는 전통문화행사, 죽림마을 대보름잔치

전통적으로 실시하는 지신밟기와 달집태우기 행사 준비는 대보름 하루 전날 주민들이 산에서 해온 생솔가지로 달집을 만드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액땀과 농사 풍년을 기원하는 생솔가지로 만든 달집은 마을 가장 너른 터에 세우는데, 그 높이만 해도 10미터에 달한다. 달집이 큰 만큼 모든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담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보름날은 주민 모두가 동원되어 풍물을 준비해 마을 집집마다 방문해 지신밟기를 행하며 한해 풍년 농사와 무병장수를 기원해주는데, 마을 사람들은 미리 준비한 음식이나 쌀 또는 돈으로 답례를 한다. 처음 시작은 이 마을 어른들도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된 전통인 죽림마을 대보름잔치는, 약 300여 년간 전승되어 왔다고, 그간 단 한 해도 거른 적 없이 이어져 온 축제를 마을에서는 전통과 규모를 갖춘 축제로서 치르는데, 최근에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들과 출향객들, 인근 관광객들까지 참여할 정도로 큰 행사로 발전했다. 2008년경에는 KBS 전주방송 '2시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마을 행사가 방영되었을 정도로 전통마을예술잔치로 인정받고 있으며, 해마다 행사를 치를 때마다 지역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취재를 나오는 대보름잔치로 장수군을 대표하는 전통문화행사이다.



즐겁고 흥겨운
우리 죽림마을
정월대보름 잔치 ♪



본격적인 대보름잔치는 일년 중 가장 크고 밝은 달이 뜨는 밤에 달이 뜨기 직전 시작된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소원지를 적어 달집에 걸고 촛불을 세워 소원을 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 묵욕재개를 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는 제례를 달집 앞에서 올린다. 보름 제관을 맡는 마을 어른은 최고 연장자가 맡는다. 제물은 돼지머리와 시루떡, 삼색실과와 포, 해 등이며 제주로는 인근에 소문난 번암 청주를 사용한다. 제를 마치면 제관이 달집에 불을 붙인다. 주민들은 풍요의 상징인 달집을 둥글게 돌며 정화의 상징인 불의 기운으로 부족함 없이 넉넉하고 밝은 새해를 맞이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빈다. 그 동안 풍물패는 함께 달집을 돌며 액땀이긋을 겸한 풍물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달집이 다하면 그 숯불에 고기를 구워 주민들과 함께 귀밝이 술을 나누고 부럼을 깨며 한 해 무병장수하라는 덕담을 나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전북 장수군 번암면 죽림마을은 옛 고적이 많은 마을로 정평이 난 곳이다. 매산, 질매봉, 성지굴, 매산바위 등의 산과 골짜기, 황새월, 동화댐, 솔뚜껑, 물뚝바위, 큰보뜰, 매산바위들 등의 하천과 들, 죽림정사와 망향비, 6.25참전용사비, 도주막 등의 고적지를 비롯해 2010년 조성된 물빛공원은 외부 관광객들이 찾는 주요 관광지가 되고 있다. 🇰🇷



죽림마을 주변명소



장수 봉화산

변암면 노단리 동화리의 경계산령과 남원 야영면의 최북단 접경 지역에 위치한 해발 919m로 역사적인 유적지를 간직하고 있다. 봉수대의 유적이 현재까지 선명하게 남아있다. 고적조사자료에 따르면 이전에는 장안산으로 불리웠던 봉화산은 정상에서 지리산의 수많은 연봉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봄철에는 봉화산을 오르는 산등성이가 철쭉꽃으로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룬다.



죽림정사

장수군 변암면 죽림리 252



3.1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계의 대표이자 민족의 거목인 백용성 조사의 탄생지로 관련 사료를 정리한 기념관, 용성교육관, 대웅보전, 생가, 승방 등 10여 동을 갖춘 규모의 전통사찰 형식의 건축물이다. 화려한 단청, 작은 못이 주변 조경과 어우러져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아름다움이 살아 숨쉬는 명소다.

물빛공원

변암면 죽림리 동화댐 일대에 2010년 조성된 물 공원이다. 건강장수의 근원인 물을 활용해 조성된 공원으로, 상징분수, 터널분수, 조각분수, 바닥분수, 워터월, 물꽃정원 등 물과 빛의 조화가 신비로운 광경이 아름다운 명소다.



출처: 자연생태포럼

동화댐



백용성 조사 탄생성지와 장수 물빛공원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동화댐 제방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 남원시, 장수, 임실, 곡성군에 농업용수와 식수를 공급하고 수력발전까지 하는 다목적댐으로써 오염되지 않은 맑은물을 자랑한다. 동화댐 호반길이가 10km에 달해 산책하기에 좋은 곳이다. 호수가를 걸다 보면 동화댐 수물민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쉼터가 있고 특히 벼나무 가로수가 잘 조성되어 있어 벼꽃이 만개하는 봄철에는 환상적인 산책코스로 각광 받고 있다.

여 백

내동마을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외
11곳

광주/전남



광주시

광산구 송산동 내동마을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현대사회에 맞춰
전통을 이어나가는
내동마을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깃발이 ‘삼도동 정월대보름 전통민속놀이 계승 축제 한마당’ 현수막과 나란히 걸려있다. 송산동의 어제와 오늘, 아니 농업을 근간으로 삼았던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더하거나 뺄 것 없이 말해주는 ‘결정적 장면’이다. 농자천하지대본은 기(旗)의 하나로, 농촌에서 흔히 마을 단위로 만들어 모내기나 논매기, 추수 등 중요한 농사일을 할 때, 풍년을 빌거나 또는 축하하여 풍악을 치며 세우는 기다. 두레일을 할 때는 이 기를 앞에 들고 농악을 치며 나와서 하는데, 기의 자리를 옮겨 가며 일을 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동 내동마을은 주변이 전부 농경지였던 마을이다. 수해가 들면 범람했던 평림천변에 위치한 내동마을 사람들은 지금은 대부분이 평림천 건너 ‘보들’에서만 경작하고 있으나 예전에는 천변 안쪽과 바깥쪽 모두를 경작하며 살았었다. 송산동 내에는 내동, 세동, 송동, 죽산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 한 마을처럼 보이는 내동, 세동, 죽산은 나누오씨 집성촌이다. 이 가운데 송산동 내동마을은 마을 앞 들이 넓어 ‘너부되’ 또는 ‘광산’이라고 했는데, 가운데 있다고 하여 ‘내동’이라 불렀다. 동쪽은 어등산, 서쪽은 사랑산, 남쪽은 지평동 가삼, 북쪽은 용진산이 있는 내동의 마을 사람들이 지금도 경작하고 있는 보들은, 예부터 삼도동 관내에서 ‘송산동에서 쌀이 나가야 창고가 찰 정도’로 넓은 들녘이 펼쳐져 있는 곳이다. 과거에는 이 일대에서 알아줬다는 ‘내동농악’으로 매월 정월 14일 당산제를 지내던 내동 사람들은 정월 초사흘부터 송산동 일대와 마을 앞 평림천에 있는 내동교인 목교를 이용하는 본량동 일대를 다 돌아다니며 마을 곳곳을 치며 마당밧이를 했다. 이때 걷은 쌀이나 돈으로 당산제 비용을 충당하고 평림천에 놓여있던 목교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했는데, 이때 추렴한 쌀과 돈이 수십 석에 이르렀다. 또한 정월대보름에는 본량동 북산청년들과 불싸움을 했던 전통이 있었다. 도랑이나 내를 사이에 두고 평소 경쟁관계에 있던 두 개의 마을 젊은이들이 준비했던 불덩어리나 불이 든 깡통을 상대방에게 던지면서 하던 놀이로, 평소 비웃한 세력과 힘을 가진 이웃마을과 하던 힘겨루기와 가깝다. 청년들은 이기기 위해 온 힘을 다했고, 이 날을 위해 작전도 짜고 준비도 철저히 했다. 당시 북성동과 내동 젊은이의 불싸움을 두고 “왜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억세게 불싸움을 했다”는 마을주민들의 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 정월대보름에 치러지는 단순한 놀이라기보다는 자존심을 건 대결에 가까웠다. 이는 경작지로 가기 위해 남의 마을 앞을 지나다니고 남의 마을에 놓인 다리를 건너다니야 하면서 결코 편하지만은 않았던 젊은이들의 심리를 짐작하게 한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제 마을 앞과 다리를 지나다니는 것을 너그럽게 봐줘야 하는 젊은이들의 미묘한 심리와 평림천을 공동 소유로 보는 사람들과 제 마을 앞을 흐르기 때문에 당연한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들 간에 심리 싸움이 곧 불싸움이었던 것이다. 또한 불싸움은 마을공동체 단합 도모의 놀이이면서 적을 만들어 싸움으로써 그간의 내부갈등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정화작용’이라는 큰 기능도 담당했다. 즉, 두 마을은 연례행사로 벌이는 불싸움을 통해 한해 동안의 불편했던 마음을 풀어내고 긴장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함께 얻었던 것이다. 이러한 놀이도 시대가 변하고 농촌인구가 감소하며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지만, 송산동 내동마을 사람들이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시대로부터 ‘삼도동 정월대보름 전통민속놀이 계승 축제한마당’을 열게 된 오늘날 농촌마을의 변화는 ‘살맛나는 마을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겪을 수 밖에 없는 여러 변화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 맞춘 전통을 이어나가는 발걸음

과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마을 내의 여러 사정 등으로 한때 지내오던 당산제를 중단하던 때가 있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당산제를 중단한 이후 마을에서는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했다고 전해지는데, 가령 이유를 알 수 없는 도깨비불이 일으키는 화재로 마을 고생이 심했던 마을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이한 일들이 당산제를 지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마을 평안을 위해서는 당산 할머니의 노여움을 달래야 한다는 의견 등이 대두되어 다시 당산제를 지내게 됐다. 과거 내동에서는 당산제가 시작되기 이전인 정월 초사흘부터 마을 자금을 모으기 위해 집집마다 농악을 치며 지신밟기를 했지만, 지금은 마을인구의 노령화로 과거와 같이 지신밟기 등으로 자금을 충당할 수 없는 반면 축제화를 통해 당산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들과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의 시간도 변경하고, 제를 지내기 앞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민속놀이와 행사 등을 만들어 전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 경비 소요 비용은 증가해 지방자치단체와 출향인사의 찬조금 등으로 도움을 받아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렇듯 최근까지 내동 당산제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이런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달집태우기’다. 대부분 당산제가 현대화에 밀려 소멸되어 사라지는 세태 속에서 전통을 이어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내동 사람들은 마을공동체 의례를 넘어 당산제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축제화 시키고 있는 가운데, 당산제를 지내고 주민들이 음복을 하고 끝나는 것보다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아 시작하게 된 행사가 달집태우기다. 달집을 태울 때 마을 사람들과 외부에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비손을 하는데, 내동 당산제는 이렇게 당산제의 연행을 유지하면서 과거에 행하지 않았던 다른 행위들을 가감해 점점 현대화된 당산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송산동 마을 주민들의 행위는 전통에 대한 현대화, 전통이 그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송산동 내동마을의 정월 대보름 행사는 ‘삼도동전통민속놀이추진위원회’가 주관해 매년 정월 14일 열리고 있다. 설이 지난 후 줄드리기로 시작되는 이 행사는 정월 14일이 되면 삼도농악과 지신밟기, 줄다리기, 당산나무에 줄감기, 할머니 당산제,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로 성대하게 거행된다. ‘청풍대명월(淸風大明月)’ 깃발을 들고 사람들은 농악을 치면서 금줄을 메고 내동교를 건너갔다 다시 돌아와 이 금줄을 당산나무에 두른다. 이것을 ‘당산나무에 옷을 입힌다’ 혹은 ‘당산할머니가 허리가 아프니 허리를 감아 돌려준다’고 표현했는데, 보통 줄은 13번 정도를 감고 그 길이가 약 50m가 된다.

밝은 달 아래,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2월 23일, ‘삼도동 정월대보름 전통민속놀이 계승 축제만마당’이 열린 관수정(觀水亭) 앞 ‘송산동 내동 촌중회’라 쓰인 천막이 보인다. 마을 동쪽에 위치한 관수정은 오웅석이 은거하며 지냈다는 곳으로, 이곳에서 보는 사경이 유명하다. 동쪽으로 어등산의 밝은 달이, 서쪽으로 사랑산의 저녁노을이, 남쪽으로 북룡산의 갯 아지랑이가, 북쪽으로 용진산의 들



마을 주민들이
노련과 달큰 새총마을 달집



노련과 달큰 새총마을 달집
마을 주민들이
노련과 달큰 새총마을 달집





달집태우기 행사

아간 구름이다. 이 관수정 뒤로 당산제를 지내는 당산나무와 제단이 자리한다. 당산나무는 세 그루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위에 있는 느티나무에만 제를 모시고 황토 역시 당산나무 주변에만 뿌려둔다. 예전에는 평립천 건너에 세 그루가 더 있어 모두 여섯 그루의 느티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당산에서 모셔지는 신격은 ‘당산할머니’ 다. 원래는 당산나무가 서 있는 아래에서 제를 지냈는데 언제부터인가 맨 위에 있는 당산나무까지 올라가 제를 지내게 되었다.

당산제를 지내기 전 주민들은 당산나무에 감을 줄로 줄다리기를 했었다. 남과 여로 편을 나눠 했는데, 여자 쪽이 이기면 풍년이 들고 남자 쪽이 이기면 흉년이 든다고 했다. 그 후 마을 곳을 치며 동네를 돌았는데, 마을 곳에 참여하거나 당산나무에 줄을 감을 때는 일절 부정인 없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마을 곳에는 조금이라도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줄을 만들거나 감는 일에 일체 참석하지 않았다. 당산제는 밤에 마을에서 선출된 제관들만 나와서 지냈다. 제관은 깨끗한 사람들로 선정되고, 제사 심부름을 하는 집사가 있었다. 제관은 삼현관, 축관, 집사 2명을 포함해 모두 여섯 명을 선출한다. 고령 순으로 뽑히, 집안에 초상이나 출산이 없어야 하고 상가 집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 중에서 마을총회가 열리는 선달그믐이나 정월 초에 미리 선정한다. 제관으로 선정된 집은 금줄을 쳐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상가 집 같이 굿은 곳을 피하고 개고기 등 부정한 음식도 먹지 않으며 부부생활도 금했다. 당산제날 초저녁 평립천에 내려가 얼음을 깨고 차디찬 냇물에 들어가 목욕을 했다. 제물 구입은 보통 마을 촌유사가 했다. 주로 송정리장이나 광주 양동시장으로 다녔는데 그 비용은 마을자금에서 충당했다. 물건을 살 때는 달라는대로 주고 절대로 깎지 않았다. 제물 장만은 ‘남자가 있으면 부정을 탄다’ 하여 마을에서 혼자 사는 깨끗한 사람을 골라 장만하게 했다. 주로 떡, 돼지머리, 생선, 탕, 나물, 과일, 술을 준비하는데, 떡은 팔시루떡을 한다. 돼지머리는 삶아서 준비하고, 생선은 조기, 부서, 송어, 죽상어, 병어를 준비했다. 항상 홀수로 준비한다. 육포는 명태포, 문어포를 하고 탕은 삼탕이나 오탕으로 하는데 고기, 생선, 두부, 홍합, 대하, 마른명태 등 그때그때 다르다. 밥은 두 그릇을 준비하고 국은 미역국을 끓인다. 나물은 주로 세 가지 아니면 다섯 가지를 하는데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을 주로 했다. 예전에는 뜬부기가 없으면 제사를 못지낼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구하기가 힘들어 사라졌다. 과일은 사과나 배도 중요하지만 밤, 은행, 호두 등은 껍질이 세 겹으로 되어 있어 그 속에 진짜 좋은 것이 들어있다 여겨 중요한 음식으로 생각했다. 술은 집에서 동동주를 만들어 그 위에 맑은 부분을 사용했다. 지금은 청주를 사용한다. 제는 삼현관이 차례로 분향, 헌작, 삼배 순으로 진행된다. 당산제 축문은 마을 사람 오맹렬, 이재철이 만들었다. 예전에 있던 축문이 너무 간단하다 하여 새로 만들었다. 마을 주민을 위한 소지를 올리고 나면 제가 끝난다. 제가 끝나면 돼지 귀와 혀 조금, 떡 등 상에 있는 음식을 고루 덜어 창호지에 싸서 당산나무 밑에 헌식을 한다. 남은 음식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음복한다. 제관이 입는 제복도 예전에는 따로 없었는데 축제화가 되면서 새로 마련했다. 🇳🇵



광주 불거리

월봉서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곡길 133(광산동)

월봉서원은 기대승 선생을 제향 하는 서원 이었다. 선생이 돌아가시자 장남인 기효종이 선친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광산구 산월동 월봉마을에 창건하여 마을 이름을 따서 월봉서원이라 불렀다. 그 후 정조가 기대승 선생을 상정하여 '빙월설월'이란 뜻으로 빙월당 액호를 하사 하였다. 지금은 이곳에 장서각과 사우가 있고 동서재가 완공되어 월봉서원이란 이름으로 선생을 봉향하고 있다. 빙월당과 <고봉문집> 목판은 시 문화재이다. 월봉서원 마루에 걸터앉아 주위를 둘러보면 기대승 선생의 대중 철학이 절절히 느껴진다. 위와 아래가 통하지 않은 답답한 시대를 살다간 고향 기대승 선생의 고민과 외침이 얼마 외로운 것이었는가를 느끼게 된다. 기대승 선생의 결정체가 민중이고 고루 잘사는 사회 구현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는 듯 하다.



무등도요

광산구 연산동 870-1번지에 지방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고려청자 재현과 도자문화 전승발전에 기여한 청자도공(靑磁陶工) 조기정(2007년 12월 작고) 선생이 제자들을 양성하고 수많은 예술작품을 탄생시킨 곳이다. 현재에는 그의 제자들이 조기정 선생의 업적을 홍보하고 예술작품을 보존하고 있으며, 도자기 체험문화 등을 통해 조기정 선생의 예술적 혼을 주민 및 의자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출처 : 광주광역시

광주 먹거리

<송정 떡갈비>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01

광산구청 앞에 가면 여기저기 떡갈비 간판이 즐비하다. 떡갈비 거리가 들어선 것은 30여 년 전. 인절미 떡처럼 네모지게 만든 떡갈비는 술안주 겸 별미로 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갈비살에 여러 부위의 고깃살을 섞어 푸짐하게 다진 다음 마늘, 생강, 참기름 등으로 만든 갖은 양념을 발라 구워낸 떡갈비의 구수한 냄새는 지나가는 이의 발길을 절로 멈추게 한다.



출처 : 광주문화관광정보



아리랑을 모르는 이는 없다.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고유한 문화 유산인 아리랑. 아리랑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불리운 구전 민요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이 땅에서 살아온 이들 모두의 노래다. 케이팝이 세계를 휩쓰는 요즘, 진정한 케이-뮤직의 원형을 찾으려면 아리랑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때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마카레나 춤보다 더 오랜 역사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우리 춤'은 무엇이었을까?

강강술래, 들어본 적은 있어도 직접 취 본 이는 드물 것이다. 색색으로 칠한 얼굴 화장을 안 해도 이쁘기만 이쁜 처녀들과 손끝에서 물마를 틈 없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바지런히 일하던 아낙들이 '빈 손'을 맞잡고 춤추고 노래하며 벌이던 저녁 놀이. 이것이 강강술래다. 월하 선녀 못지 않게 고운 처녀와 아낙들이 춤추는 강강술래는 길면 사십 분까지 걸리는 매우 긴 유희였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주중의 스트레스를 '춤'으로 풀어내며 한바탕 땀 흘린 이들이 느끼는 개운함. 옛 여성들에게 강강술래는 "한판 뛰고 나면 모두들 뻘친다"고 할만큼 마음에 맺힌 웅어리를 풀어내는데 좋았던 여성들의 유희였다.

이제는 점점 잊혀져 가는 전통 놀이인 강강술래의 춤과 노래가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는 곳. 전라남도 진도 길은리 한가위 술래놀이에서 신명난 강강술래를 체험하고 느낀 기분이 그러했다. 전통시대의 아녀자들에게 요구되던 엄격한 규범에서 벗어날 수 있던 시간, 강강술래는 "강강술래 어디 갔다" 하는 선창자의 구성진 목소리가 흰 달빛 아래로 울려 퍼지면 "강강술래" 하고 받아 노래 부르며, 손에 손잡고 춤추던 처녀와 아낙들의 치마가 둥그렇게 바람에 부른다. 이런 한가위 저녁, 정월 대보름 저녁 놀이는 적어도 육이오 난리 전까지는 한반도 서남 해안의 여러 물과 섬에 두루 번진 풍속이었다."

혹여, 최소심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놀라운 자립 정신과 낙천적인 인생관을 지녔던 여인, 최소심 부인. 그녀는 진도 강강술래 무형 문화재 예능 보유자였다. 친할머니에게 강강술래를 배워 생애 한 해쯤을 빼고는 진도 땅을 떠나 살아본 적 없는 최소심 예능 보유자는 평생 진도 땅에서 강강술래를 부르고 가르치며 살았다. 무엇보다 그녀의 강강술래는 향토 말의 원형이 살아 있는 노랫말로 된 노래가 일품이었다. 현재 진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조금 낯선 '진도말'로 된 노래를 듣다 보면, 무척 많은 아리랑 가운데서도 유난히 '진도 아리랑'을 좋아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를 알게 된다. "놀이하면서 고단하니까"라고 표현하는 서울말과 "놀이 함시로 뻘친께"라 표현하는 진도말, 이 중 더 찰진 입맛은 진도말이 더 푸지다.



진도군 지산면 길은리

길은리 한가위 술래놀이



흥겨운 우리 유산
우리의 흥과 소리를 찾아
떠나는 한가위 술래놀이





나상서 추모제

소리 따라 간 길은마을

구비구비 황톳길을 따라 가며 진도 아리랑을 부르던 장면이 등장하는 영화 <서편제>. 세 가족이 어울려 부르는 노래는, 애달아 구비구비가 눈물이 날 만큼 쌓인 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개똥같은 세상이나마 둥글둥글 살자 한다. 이 영화를 따라 '진도'로 바람 쐬러 걸음을 나신다면, 꼭 한번 한가위 술래놀이의 장소인 '길은 푸르미 체험관'이 자리하고 있는 진도군 지산면의 길은마을에 들러볼 것을 권한다.

진도공용터미널에서 버스로 약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길은마을의 푸르미 체험관은 마을을 찾아 온 외지인들의 숙박도 가능한 숙소가 마련되어 있어 하루쯤 느긋하게 머물며 향토 문화를 체험해도 좋다. 길은 푸르미 체험관은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된 길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새롭게 변신시킨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각종 모임 장소는 물론 도시민들의 휴식 및 농촌 체험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2012년 4월에 휴양마을로 지정될 만큼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길은마을은 우리나라 최초로 검정 쌀 벼를 재배한 곳이기도 한데, 무농약 친환경 농사를 짓는 곳인 만큼 건강한 웰빙 휴식을 누릴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진행해온 '나상서 추모제'에 술래놀이를 포함시켜 한가위 마을 잔치를 벌이며 술래놀이를 2012년 복원시킨 길은마을은 행사 당일 날 찾아온 손님들에게 숙소를 무료로 제공해 주었다. 길은 푸르미 체험관 안에 따로 마련된 숙소에서 짐을 풀고 잔치에 참여하러 나서는 길, 체험관 입구에 쓰인 마을의 역사와 유래를 보니 왜 진도 아리랑에 문경새재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게 됐다. "강화도에서 진도 용장산성으로 수도를 옮긴 고려의 삼별초군은 몽고군에 의해 용장산성이 함락되자 제주도로 거처를 옮겨 항쟁을 계속하였는데 제주도로 가지 못한 일부 삼별초군은 진도의 깊은 곳으로 은신을 하였다. 그 중 나상서라는 삼별초군이 우리동네 찬물래기 안고랑 참샘 근처에 살다가 생을 마쳤는데, 지금도 참샘과 나상서가 묻힌 무덤이라는 곳이 구전과 문헌으로 전해져 오고 있으며 매년 추석 때 나상서 추모제와 추모굿이 행하여지고 있다."



따뜻한 가을햇살아래
홍겨운 우리가락~♪

2012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에 선정되면서 처음으로 마을행사를 진행하게 된 길은리 한가위 술래놀이의 첫 번째 행사가 추모제례인 이유가 거기 있다. 오후 다섯 시 시작된 나상 서 추모제는 푸르미 체험관에서부터 마을의 찬물래기까지 펼쳐지는 홍겨운 북놀이로 시작된다. 마을사람들을 비롯해 명절을 지내기 위해 찾아온 길은리 주민의 가족들이 함께한 행사에는 길은리에서 나고자란 이로 수년간 문화재 심사 일을 해온 목포대학교 이운선 교수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에서 유학하며 민속학을 전공하는 중국 유학생 제자들과 함께 참여한 이운선 교수는, “보통 마을행사 또는 잔치는 정월대보름에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이유는 주로 당제를 많이 복원했는데 이는 정월대보름에 많이 행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추석에는 길은마을의 술래놀이가 유일한 행사일 겁니다. 옛날에는 추석에 어느 마을에서든 강강술래를 하며 마을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다 했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다 없어졌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문화재를 지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현전성이라고 합니다. 길은리 마을 분들은 모두들 옛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성, 그 현전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로부터 행해온 마을의 전통잔치를 복원 시키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물론, 복원 후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설왕설래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을 바꾸거나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을 복원하면서, 상업주의 또는 그 어떤 권력의 힘과 관계하여 잔치를 커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대 마을의 관계로 아프리카나 중국, 일본 등의 작은 마을과의 관계선상에서 전통문화를 알리고자 합니다” 고 이 마을축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실제 우리의 아리랑을 중국이 자신들의 전통 문화 유산으로 유네스코 위원회에 등재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야 뒤늦게 알게 됐듯, ‘문화의 힘’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경쟁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누군가 가로채간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도 길은마을의 술래놀이 복원은 의미가 크다.

요 하얀 화면이
서울 흥대 젊은이들에게로
실시간 생중계 중인 화면!
강강술래도 스마트하게!



마을이 하나가 되어
원을 그리며 도는 화합의 장,
강강술래

벌려 있던 섬과 물이 강강술래로 손잡다

“시방은 안해, 강강술래릴 안해”라며 안타까워했던 최소심 예능 보유자가 해마다 팔월 한가위에는 흐드러지게 강강술래판을 벌이던 모습을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길은마을 한가위 술래놀이에서 흰 저고리에 검정한복치마를 맞춰 입은 동네 어머니들이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도는 모습을 보노라니 지산면이 진정이었다는 최소심 할머니의 어머니가 그려진다. 할머니에서 어머니, 그리고 또 그 딸들에게로 전해져 내려온 강강술래의 맥, 그야말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손을 맞잡고’ 이어져온 보통 사람들의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찬물래기에서의 추모제가 끝나면 마을의 집집을 돌며 악귀를 쫓아내고 복을 비는 매굿이 펼쳐지고 다시 푸르미 생활관으로 향한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1년에 한번 추모제례와 함께 ‘나상서 옷태우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재가 될 때즈음 풍물패가 그 주위로 원을 그리며 놀이를 계속하면 ‘진도 한가위 술래놀이’가 시작된다. 강강술래에는 소리를 메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구령대 위에서 선창자가 소리를 메기면 동네 어머니들이 후렴구를 받으며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돈다. 진양장단, 중중머리, 자진머리 등등 박자도 다양한 강강술래 노래가 빨라질수록 흥이 돋고 어느새 술래놀이를 구경하던 이들이 하나 둘 원에 합세하며 참여하기 시작한다. 춤은 노래에 맞춰 율동적으로 추는데 늦은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잣은강강술래로 나뉜다. 이는 노래나 춤의 빠르기에 따른 분류이기도 하지만, 느린 가락에 맞춰 흥이 점점 더해감에 따라 빠른 속도의 잣은강강술래로 이어지는 진행의 순서로 볼 수도 있다. 강강술래는 윤무(輪舞) 형태 말고도 강강술래라는 무요(舞謠)에 맞춰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도는 춤인 협의의 강강술래와, 여기에 여러가지 부수된 놀이가 첨가된 광의의 강강술래가 있다.

한가위 술래놀이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이윤선 교수는 진도에서는 한참 먼 물인 서울, 그것도 젊은이들의 거리인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 생중계하는 중이다. 케이팝으로 월드 스타가 된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개사한 ‘술래스타일’에 맞춰 현대적으로 변형된 강강술래가 펼쳐지는 홍대 거리, 길은마을 사람들 역시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되는 홍대 젊은이들의 춤을 따라 하며 깔깔깔 웃음이 흘러 넘친다. 기술을 통해 만난 전통과 현대, 구세대와 신세대, 섬과 물을 잇는 ‘오작교’가 만들어지는 풍경이다.

2013년, 올해 추석에는 아프리카나 중국, 일본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길은마을 사람들과 함께 술래놀이를 펼칠까? 이 지극히 세계적인 축제가 벌어지는 현장에 진짜 싸이가 나타난다면 또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며 휘영청 밝은 한가위 달 아래서, 어느 때라도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면 옛 어른들의 말씀이 귓가에 쟁쟁하게 걸렸다. “그이가 품은 소망은 죽은 뒤에 사람들이 그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작은 빗돌 하나를 세우는 것과 자손들 잘 되는 일이다. 또, 많은 처녀와 아낙들이, 그이가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강강술래를 기억하며 춤추는 일이다” 라던 최소심 부인의 소망과 같이, 길은마을 사람들이 타향의 사람이라도 나라를 지키려 싸웠던 나상서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일과 또한 같이, 우리 역시 누군가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며 살아간다. 그것을 잊거나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비는 소망, 이것이 한가위라는 명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참고도서: 〈뿌리깊은나무 민중 자서전 9-진도 강강술래 말소리꾼 최 소심의 한평생: 시방은 안해, 강강술래릴 안해〉,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강강술래'〉

진도 여행하기

길은 푸르미 체험관

전라남도 진도군 자산면 길은리

소리의 고향 진도에서 전통소리체험은 물론 강강술래 체험을 할 수 있는 길은 푸르미 체험관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전통 문화 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딱딱한 형식의 교육이 아닌 체험이 중심되는 흥겨운 놀이를 통해 우리가락의 멋을 느껴볼 수 있다. 다양한 자연체험과 지역의 특산 어종과 해조류, 지역 특산 채소 및 친환경 검정쌀 등으로 만든 토속 식단 먹거리 체험, 주변 지역 명소 관광 및 트랙터로 해안도로 드라이브하기, 민속놀이 체험 등을 당일형 혹은 숙박형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예약 및 문의는 진도 길은 푸르미 체험관 홈페이지 (cafe.daum.net/kepurmi).

가계 해변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153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회동관광지내에 위치하고 있다. 가계 해수욕장에는 3만여평의 넓은 주차장과 샤워장,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자가용을 이용한 피서객이 많이 찾고, 몽골텐트 임대도 가능하다. 인근 해역에서는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다.



사천리 상록수림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진도읍에서 약 8km 떨어진 침철산 산기슭에 자리잡은 쌍계사 옆에 위치하고 있는 상록수림에는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참가시나무, 감탕나무, 졸참나무, 느릅나무, 쥐똥나무 등과 지역특산식물인 삼색싸리 와 돌팔이라 불리는 돌동부 등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록수림들 중 하나로, 자연 그대로의 생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 및 보호하고 있다. 한여름 더위도 그 위세를 떨 수 없을 만큼 나무가 우거진 그늘이 많고, 땀뻑한 흘숨의 돌위에 앉아 있으면 바로 옆 사람의 소근거리는 말소리는 들려도 사람은 보이지 않는 수몰로써 장관을 이룬다.





진도 소리듣기

『뿌리깊은 나무 조선소리선집
-10집/진도 강강술래와 상여소리』

명인들의 연주와 소리를 모아 놓은 뿌리깊은 나무 조선소리선집 음반 시리즈 중 조공례 선생의 강강술래와 김대례·박병천 선생의 진도 상여소리를 담은 음반이다.



전통남도소리여행

밭에서 김을 때는 아낙이나 어물전에서 생선을 파는 할머니에게 소리를 청해 축석에서 구성된 진도아리랑 가락을 들을 수 있는 진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면 진도읍내에는 우리가락이 울려 퍼진다. 할머니에게 남도잡가 한 대목 배워 따라 부르기, 할아버지에게 단가 한 대목 배워 따라 부르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 경험이 가능하며, 현존하는 복놀이 중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걸군농악 복놀이, 어머니들과 한바탕 신명나게 놀아보는 강강술래 체험을 통해 남도 소리의 전통을 한껏 즐길 수 있다. 참여문의는, 지산면 소소리 김병철 061-543-0505

진도 전통 먹거리

진도홍주

쌀과 보리로 빚은 순곡 증류주에 지초라는 약초 뿌리의 성분을 추출해 숙성시킨 것으로, 애주가들로부터 사랑 받는 진도 홍주는 40도 이상에 특이한 붉은 빛깔과 깨끗한 끝 맛이 좋다고 평가받는다. 지초는 진도의 일반 가정에서 상비약으로 쓰던 약초 뿌리로, 체했을 때나 피부질환이 생겼을 때 먹거나 환부에 바르던 약초다. 현재 진도에는 20여명이 가정에서 홍주를 만들고 있으며 1994년 12월에 허화학 할머니가 그 기능을 인정받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6조로 지정되었다.





바위가 모셔진 당집

해동리에서 모시는
당할머니,
당 할아버지 바위!

돌 할머니가 지켜주는 마을, 해동리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51-1번지, 당목 마을당제가 열리는 당숲 제각 앞 안내문에는 “이곳 해동마을은 약 350여 년 전 권씨, 박씨, 갑씨 등의 성을 갖춘 이가 처음 입주하여 살면서 마을 치도작업 중 개천에서 팽이에 상처를 입은 둥근 돌을 발견했는데 상처에서 붉은 피가 나와 이상하게 여겨 방품림에 제각을 지어 그 돌을 정중하게 모셔놓고 매년 음력 정월 모름에 향제하고 있다. 그 당시 신씨의 꿈에 늙은 할머니가 나타나 “나를 잘 모셔 주어 고맙다. 제주도로 건너 갈려고 했는데 훌륭한 안식처를 마련해 주어 함께 살게 되었다” 하면서 기뻐하였다고 전한다. 그 후부터 이곳 당 숲을 성역으로 여겨 가마와 상여 등을 못 지나가게 하고 용변마저도 금기하였으며 이를 거역하여 화를 입은 일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는 전설이 쓰여 있다. 아름드리 느티나무 앞으로 선 제각은 붉은 벽돌 담 안으로 자리한다.

느티나무 수십 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당숲. ‘신성한 숲’ 안에 자리한 제각에 얹힌 전설을 좀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렇다. 300여 년 전, 이 마을 사람들이 느티나무 숲 주변으로 배수로를 파는데 알 모양의 둥근 바위가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바위에 팽이질을 할 때마다 피를 뚝뚝 흘렸다고. 다른 한쪽에서 나온 둥근 바위 하나도 마찬가지로 전해진다. 이를 두렵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당 할머니, 당 할아버지 바위로 모시고 제각을 지어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마을 할머니들은 새 각시 때만 해도 당제를 모실 때를 제외하고는 대낮에도 겁이 나 당숲을 지나지 못했다. 말을 타고 이 당숲을 지나려고 하면 말굽이 빠지고, 가마를 타면 손잡이가 부러져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당숲을 돌아서 갔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300년 전부터 매년 정월 초엿새날이면 한해 액운을 물리쳐 주기를 바라며 제주를 뺏아 당제를 모시고, 한달 내내 마을 전체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농악놀이를 벌였다고 전해온다.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약산 당목당제





생일 주머니를 준비하고 개신 의상



할머니! 할머니! 제물
깨끗~히 목욕시키고
제사를 준비합니다



할머니! 말 안해도 알지라?

매년 음력 1월 6일, 당제를 모시는 해동리 당숲으로 향했다. 옛날에는 고흥군과 금일을 연결한 포구가 있어 포촌이라고 했다가 당과 수목이 있어 당목리라고 개칭해 현재에 이른 마을이다. 마을 대부분의 주민이 다시마, 톳, 미역 등 수산물 채취작업에 종사하는 마을. 입구에서 만난 배 몇 척은 물때를 기다리며 쉬는 중이었다. 그 잠시의 틈에도 손을 놓을 새 없는 어촌 사람들은, 오늘 당목당제 준비로 한창이다. 당제에 쓸 음식을 마련해 '함지박'을 이고 걸어 오는 아낙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들의 함지박 안, 당제에 올릴 음식은 3일 전부터 준비한 것이다. 당제가 있기 전, 음식을 준비하는 부녀회장님 댁과 당집주변에는 금줄이 쳐지고 황토가 뿌려져 있었다. 그 함지박에 든 제사 음식은 계란 지단을 부쳐 올린 모양이 더없이 가지런하다. 나물이며 생선, 돼지등뼈 등 하나같이 정성을 들인 모양새다. 삶은 계란 하나, 사과 한 알도 제에 올리려 준비한 품세가 별나다 싶게 예쁘다. 별스럽게도 보이는 솜씨다.

당제가 열리기 하루 전, 준비로 한창인 당과 부녀회장 집에서 본 금줄에는 눈에 띄는 한 가지가 함께 걸려 있었다. 그것은 창호지로 무언가를 싸고 명주실로 묶은 모양의 작은 주머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물으니, 생쌀이란다. 제를 시작하기 전, 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창호지로 만들어 생쌀을 넣은 주머니를 대나무 가지 하나에 4개씩 걸어 총 가지 세 개를 천장에 올린다. 당 할머니, 당 할아버지 2분과 후생들 10분의 것으로 12개의 생쌀 주머니를 올리는 것이다. 매년 3개의 대나무 가지를 걸고 당 천장이 가득 차면 한꺼번에 태워 보내는데, 현대식으로 지어지기 전인 예전에는 짚으로 지어진 초가집이었고 제를 올리기 위해 1년에 단 한번만 문을 열고, 약 15년 전부터 예서야 이 당숲을 지나다닐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 그



당숲공원 내 당산나무



당산나무에 제사음식을
헌작하는 모습!
“우리마을 잘되게 해주라~”

럼에도 불구하고 주머니에 든 쌀이 한 번도 썩거나 없어지지 않고 항상 그대로였다고 한다. 제사 전 나란히 모셔져 있는 할아버지 돌과 할머니 돌을 따뜻한 물로 목욕시키고 큰상에 음식과 진지와 국을 12벌 올린다. 그 후 잔을 올리고 큰 상 아래 작은 상에 음식들과 진지와 국, 잔을 올리면 제사 준비가 끝난다. 큰 상은 당 할머니와 당 할아버지와 후생들의 것이고 작은 상은 다들 지키는 성주신의 상이다. 제관 둘이 제를 올리고 그 뒤로 마을 이장님과 어촌 계장님이 제를 올린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할머니! 말 안 해도 알지라?”

“우리 마을 잘되게 해주라” “미역 다시마 잘 해주라” “전복 키는 사람들 사고 없게 해주라” “여름에 태풍오지 않게 해주라” 소원을 빌며 제를 드린다. 지금이야 작아 보이는 생쌀 주머니지만, 보리쌀로도 풍족하게 배를 채워본 적이 없던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귀한 ‘양식’ 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이들이 당제를 지내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짐작된다. 먹을 것이 흔해진 오늘날이라도, 마을 사람들이 비는 소원에서 그들이 ‘신’ 즉, ‘자연’ 을 살뜰하게 여겨온 어여쁜 마음이 드러난다.

제를 마친 후, 마을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다시 모인다. 각자의 악기를 들고 당집과 당나무, 마을주변을 돌며 굿을 치고 회관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런저런 마을 일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루가 저문다. 이쪽 저쪽 들려오는 이야기는 한결 같다. 모두가 잘 살기를 바라는 애뜻한 마음, 서로의 삶을 살뜰히 보살피는 그 모습이, 포구에 들어찬 물 위에 뜬 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으로 지켜온 것이 오늘의 당목당제이고, 이 마을이고, 곧 자신들의 삶이다. 한 해의 안녕과 풍어를 바라는 마음이 어찌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던 마음보다 크고 작을 수 있을까. 🌈

완도군 약산면 여행하기

진달래꽃 군락지

전남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약산의 등줄기를 이루는 장용산과 삼문산의 정상에는 봄이면 철쭉이 지천으로 꽃을 피어 산을 붉게 물들인다. 특히 삼문산 정상의 군락지 5만여평에 꽃이 만개하면 다도해의 푸른바다와 함께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매년 4월이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한 가운데 등산대회 등 진달래축제가 열린다.



약산연도교

전남 완도군 약산면

고금면과 약산면을 잇는 사실상 완도군 최초의 연도교이다. 4개의 교각을 세우고 중심부에 아치형 트러스를 얹어 선박의 왕래를 자유롭게 하였다. 이 연륙교는 완도군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약산과 고금주민들의 생활권을 하나로 묶었으며 풍광이 아름다운 약산을 관광지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가사동백 숲해변

전남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934-3

3월이면 붉은 동백꽃이 푸른 바닷물을 붉게 물들인다는 가사해수욕장은 수백년 된 동백나무 수백 그루와 후박나무, 잣밤나무가 해수욕장 전체를 둥글게 감싸 안고 있는 조약도의 유일한 해수욕장이다. 가사동은 상록활엽수림이 하늘을 가리고 그늘막을 만들어 준다. 그늘 밑으로는 장용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이 한 여름에도 냉기로 가득해 발을 담그기가 쉽지 않다.

조약도는 예부터 흑염소로 유명한데 피서와 함께 흑염소로 몸을 보신할 수 있는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바로 인근에 해동사라는 전망 좋은 절이 있다.

주변은 바다 낚시터로 돛과 농어, 우럭등 어족자원이 풍부해 4계절 낚시가 가능하다.



완도 먹거리 <해궁횃집>

완도군 완도읍 향동리 304-11

전복, 해물탕이 인기메뉴인 자연산 활어회 전문 음식점이다. 완도 여객터미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10여 가지의 정갈한 남도식 반찬과 다양한 해물요리를 맛볼 수 있다. 아침식사도 가능하다.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대포리



대포리 갯구신제



용에 거문 어르신들과
밤새도록 함께하는
대포리 갯구 신마당





바다와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맛있는 대포리

땅이자와 터전, 바다에게 비는 소원

별교는 포구였다. 보성군과 화순군을 포함한 내륙과 직결되는 포구였던 별교는, 흔히들 낚배를 타고 꼬막을 채취하고 낙지를 잡는 '갯벌'로 그려진다. 교통과 통신이 불편하던 시절, 여수와 삼천포, 부산을 비롯한 목포, 완도, 군산 등지에서 상선을 이용해 생선을 구입할 뿐 아니라 전북 남원에서조차 상인들이 물려들어 큰 포구를 형성한다 하여 '대포'라 명칭하게 된 전라남도 보성군 별교읍 대포리.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는 모습이 마치 연꽃이 호수에 떠 있는 모습 같다고 해 연호동이라 불리던 곳이다. 대포리는 별교읍 소재지에서 9km 떨어진 남쪽 여자만에 위치한다. 여자만, 이곳은 바로 별교 '참꼬막'의 주산단지다. 대포마을의 주업은 반농반어의 형태지만, 농업보다는 새우나 낙지 등을 잡아 생활하는 어업에 비중이 크다. 하여 바다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식을 키우는 '땅'이자 '터전'이다. 이곳에서 400여 년 전부터 갯귀신제를 지내온 이유다. 바다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풍어를 기원해온 대포마을은 용왕제라고도 하는 갯귀신제를 매년 정월 초 5일전에 날을 택해 5일간 모셨다. 갯귀신제를 잘못 모시거나 부정탄 자가 있으면 본제를 다시 택일해 모실 만큼 중히 여기는 당제이며, 대포리에서 치르는 연중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다.

바다의 풍요와 땅 사람들의 무병을 기원하는 당제, 전 주민이 엄격한 금기를 지키며 참여해온 갯귀신제는 제물로 소머리 등을 갯가에 진설한 뒤 갯귀신에게 바치는 풍어제로서 물과 바다의 당제가 복합된 축제다. 마을의 수호신인 당할머니, 할아버지인 지신에게 풍년과 풍어, 마을의 강녕을 비는 제사로서 상부상조를 다지는 큰 굿판이 벌어지는 대포리 갯귀신제는 보통 별교꼬막축제 기간에 벌어지는 '갯제'와는 다른 '당산제'다. 갯귀신제는 상당과 하당으로 구분되어 치러진다. 원래 대포리의 당은 할아버지당과 할머니당, 갯제당으로 세 개가 있었다. 할아버지당은 상당이라 하고, 할머니당은 하당이라 하는데, 상당은 마을 앞 해변 선착장 근처에 있고 하당은 바닷가 가까이 언덕에 있다. 이 중 당집은 하당에 있다. 하당 아래에는 1990년 경에 철 구조물을 세워 만든 제청이 있는데, 이곳에서 지내는 당산제를 다른 말로 갯귀신제라고 한다. 원래 세 개의 당을 모셨으나, 현재는 상당제가 아닌 할머니



하당에 위치한 당집



니당에서 모시는 하당제와 하당 아래 제청에서 지내는 갯귀신제만 지내고 있다. 할아버지 당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는 제삿날이 되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와서 음식을 드신다는 생각에서다. 그렇게 상당제가 사라지면서 원래의 하당제가 도제일 새벽 2시 당집 할머니께 제를 모시는 상당제로, 그리고 갯귀신제가 당산 마당에 제청을 설치하고 바다 용왕님께 제를 모시는 하당제로 변하게 되었다.

제를 주관하는 당주 및 현관 축관은 본가와 처가, 외가까지 3쪽에 유고가 없는 자중 생기를 맞춰서 선정한다. 제물 준비는 당주 부부가 미리 하는데, 이들은 음식 준비를 위해 장에 물건을 살 때 마스크를 하고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절대로 깎거나 흥정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지켜야 할 금기사항은 많다. 당제를 전후해 한두 달 정도는 부부간에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못하고 소변을 보면 손을 씻고 대변을 보면 당샘에서 떠온 찬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제를 모시기 전 4일 동안에는 지정된 샘에서 물을 길어 목욕재계를 하고, 초상집이나 산고가 있는 집에도 가서는 안 된다. 당제를 지내는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항도 엄격하다. 그 기간에는 일체의 빨래를 해서는 안 되는데, 갓난아기의 기저귀 등 모든 빨래가 금지되어 있다. 특히나 마을 개에 대해 단속을 해야 하는데,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개가 마을에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 제를 모시러 가는 도중 사람이나 개를 보면 다시 돌아와 음식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제를 모시기 전에 어느 집에 초상이 나면 낱쌀을 새로 정해 다시 지내야 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금지되는 기간이라 산기가 있으면 미리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 출산해야 한다. 소나 돼지 등 집에서 기르는 가축 역시 마을 밖으로 옮겨 새끼를 낳도록 한다.



당산마당에 설치한 제청



갯가에 제사음식을 헌식하는 하당제



전통을 이어가는 대포리의 노력

이처럼 전 주민이 엄격한 금기를 지키며 참여해온 갯귀신제를 지켜오는 동안 우여곡절이 한번도 없진 않았다. 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그 전통이 거의 원형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에서 갯귀신제는 특히 의미 있는 민속 행사다. 대포리 주민들에게는 서로가 함께 화합하는 장으로서 이들을 지켜온 정신적 기틀이 되었지만, 한때 마을 젊은이들이 당제의 간소화와 금기 타파를 주장한 적이 있었듯 시대가 현대적으로 문명화 되어 갈수록 점차 마을 인구가 고령화되고 동시에 소요 경비 확보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자칫 사라져 갈 우려가 제기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 가운데 대포리갯귀신제민속보존회는 우리 고유의 귀중한 전통 민속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12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 지원 사업에 공모한다. 공모 이전, 갯귀신제는 1985년 남도문화재 최우수상, 1997년 전국 시도별 민속 경영대회 전라남도 대표참가 2위 수상, 1999년 남도문화재 경연대회 인기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여 밤새 가무를 하고 놀다가 새벽에 용왕에게 소 한 마리로 간주되는 한 마리 분의 소 뼈를 헌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던 하당제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엄격하게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이뤄지며 제물로 생선, 삼실과 등을 준비하고 민어, 명태, 병어는 반드시 올리는 상당제를 결합한 대포리 갯귀신제에서도 가장 큰 행사는 본제인 당산제다. 예전에는 주로 사용하던 악기가 징, 팽과리, 장고, 북, 소고 등의 농악도구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노래방 기기가 등장하면서 제사 전후의 음주가무에 이를 이용하고 음악 또한 민요와 트롯트 가요 등 흥겨운 음악이 주를 이루는 하당제인 갯제까지를 포함하는 갯귀신제는 올해 2012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며 그 원형 가까이 돌아간 모습으로 치러졌다. 대포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켜주고 마을의 재액을 몰아내며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당제와 용왕제인 갯제의 융화, 갯귀신제는 제의 진행에 있어 예전에는 남존여비사상의 유교적 이념에 의해 당제에 여성 참여가 금기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처럼 현대적으로 변모하는 사회 문화를 수용하는 중이다. 🌈

갯가에
헌식물(크렁치)를
던지는 행렬



별교 지역문화

소설 태백산맥의 고장, 별교

보성군 별교읍 흥일로

여자만 청정갯벌 꼬막의 고장,

별교는 일제시대부터 일본 외세에 거세게 항쟁하여 붙여진 "별교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아라"라는 말과 '꼬막'으로 널리 알려진 고장이다. 또한 20세기 대한민국 100대 인물 중 한사람인 독립운동가 홍암 나철선생과 '그리워' '동백꽃' 등을 작곡한 민족음악가 채동선 선생이 태어난 의와 예가 살아 숨쉬는 성스럽고 자긍심 강한 고장이다. 특히 요즘 가축단위 관광과 1945년 해방부터~1953년 동족상잔의 6·25 휴전까지 민족의 격동기를 별교라는 소도읍에 함축시켜 탄생시킨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주무대이며, 농산물로는 어느 지역에서도 맛볼 수 없는 꼬막, 달기 등이 직접 생산되는 곳입니다. 북으로 584고지의 백이산이, 서북쪽으로는 704고지의 존재산이, 동으로는 563고지의 제석산이 위치하고 남으로는 414고지의 장군봉이 위치하여 완전산악지대로 둘러싸여 있다. 주위로는 순천, 고흥의 2개군 6개면이 접하고 있으며 낙안 평야와 칠동들 장양 간척지등 2,300ha의 광활한 농경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보고인 해안선 21km의 여자만을 안고 있으며 동서남북으로 광주~녹동선, 목포~순천선의 국도가 가로지르고 있어 예로부터 교통의 중심지로서 상업이 번창했던 지역이다.

<출처:태백산맥 문학관 홈페이지>



소설태백산맥



작가 조정래



태백산맥 속 별교



별교 전경



철다리



별교꼬막축제

매년 10월 말, 11월 초 즈음 개최되는 별교꼬막축제는, 남해안의 청정해역이며 수자원의 보고인 여자만을 안고 있는 별교의 겨울철 청정갯벌에서 나는 영양이 풍부한 참꼬막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판매 촉진을 위해 2001년부터 순수 민간단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치르는 지역 축제다. 별교 참꼬막은 껍데기 표면에 17~18줄의 굵은 방사륜이 있다. 참꼬막은 23%의 단백질질을 함유하고 있고 또한 필수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으며 나이 아신, 히스티딘 등이 특히 많다. 특히, 특수성분인 타우린과 베타인 성분은 강정효과가 높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간의 해독에 우수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해산물 중에서 비타민B 복합제로 B12, 철분, 코발트가 많아 여성이나 노약자들에게는 겨울철 보양 식품으로 매우 인기가 높다. 별교꼬막축제는 꼬막날배타기체험, 꼬막잡기체험, 꼬막까먹기대회, 꼬막채취도구 전시, 꼬막요리경연대회 등의 체험행사와, 소설태백산맥문학기행답사, 지역민속공연 등의 문화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 함께 즐기는
즐거움 별교꼬막축제!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사초 해신제



용왕님께 바라는 바다의 풍년!
사초리의 마음을 담아,
사초 해신제

사초해신제

정월 대보름 맞이 豊漁祈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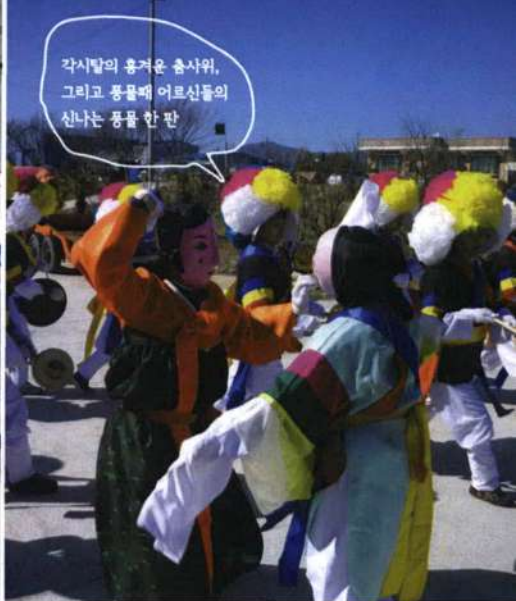
‘개척정신’을 잊지 않는 사초리의 공동체의식

강진군 최남단, 사초 마을 주민들의 선조는 바닷가에 형성된 모래 등 위에 집을 짓고 살아왔다.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고 나는 때인, 사리 때면 서·남·북 삼면이 바닷물에 잠겨 마을이 마치 물 위에 연꽃이 떠있는 형태같다고 하여 이곳을 연화동이라 부르기도 했다. 조선시대 말 일제초기까지 촌락 집단으로써 세력을 유지해 왔던 사초 마을은 조선시대 말경부터 간척지가 막아지면서 농경지가 늘고, 특히 어패류의 채취로 고소득을 올리며 많은 가구가 거주하게 되었다. 특히 10여년에 가까운 공사 끝에 완공된 사내 호는 본 마을과 마주한 해남군 북일면 내동리를 잇는 대규모 간척지로 수백 헥타르의 갯벌을 상실케 함으로써 주민들은 주업인 어업에서 농업에 종사하게 되는 계기를 맞는다. 약 100여 년 전부터 전승되어온 민속 행사인, 갯제, 바다의 어패류가 잘 되게 하고 낙지, 꼬막, 개불 등이 잘 잡히도록 빌며 바다 일이 잘 되도록 용왕에게 비는 의식 행사인 갯제는 반농 반어의 형태로 변화한 가운데서도 마을 자체 부담으로 행사 경비를 충당해 매년 해신제를 치르며 그 명맥을 전승하고 있다. 간척지형 저수지로 겨울에도 잘 얼지 않고 포근한 전천후 낚시터인 사내호가 있는 사초 마을은 전국의 민물 낚시 동호인들에게 꽤 이름이 알려져 있다. 만수 면적이 약 90만평인 사내호는 다른 간척호수와는 달리 수초가 발달되지 않은 곳으로 본류 바닥이 두꺼운 빨층으로 형성되어 연안에서 낚시하기는 매우 힘든 곳이다. 때문에 낚시꾼들은 주로 보트낚시를 한다. 어쩌면 사초 마을 주민들이 전승해온 갯제는, 간척지형 저수지라도 사내호를 찾는 민물 낚시꾼들의 바람처럼, 아니 그보다 오래 전인 모래 등 위에 집을 짓고 살아온 선조들의 바람과 같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려던 ‘개척 정신’을 잊지 않으려는 공동체 의식일지도 모른다.

용왕님께 소원하는 바다의 풍년

매년 정월 14일 저녁, 대보름맞이 행사에 앞서 마을 선창에 마을 주민들이 모인다. 갯제를 올리기 위해서다. 예부터 사초마을에서 사는 낙지와 개불, 바지락, 굴 등의 해산물들은 질 좋기로 유명했다. 더 많은 수확을 바라며 용왕님께 제를 지내게 된 데서 유래한 갯제는 100여 년을 전승해온 역사 가운데 중간에 약 5년간은 마을 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유는, 그 당시 마을이 침체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현재 해신제를 다시 부활시킨 이는 현 이장인 박상규 선생이다. 2010년부터 이장 직을 맡으며 갯제를 이끌고 있다. 현재 사초마을의 총 가구수는 164호다. 348명이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갯제 풍물놀이예에 참여하는 인원은 50명 정도이고 해신제에는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 할 만큼 ‘뜻’이 잘 맞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오후 2시경부터 마을회관에서 풍물예행 연습이 벌어졌다. 한 시간 가량 연습 후 풍물패들과 마을사람들이 어우러진 가운데 제사음식 등을 차량에 싣고 사초리 선착장 물양장으로 향한다. 선창가, 사초마을 당산나무인 팽나무 옆 해신제를 올릴 장소인 당산집이 마련돼 있다. 오후 4시부터 정식 진행되는 해신제가 시작되면 풍물패는 팽나무를 돌며 1시간 가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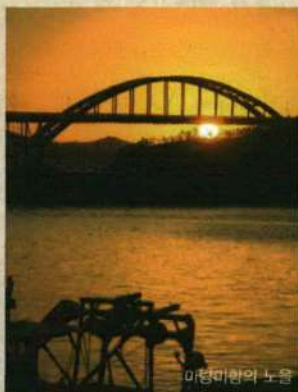


풍물놀이를 벌인다. 이는 대보름을 앞두고 벌이는 풍물패의 지신밟기로, 한 해의 만선과 바다에 업을 둔 마을 주민들 모두의 무사안녕, 그리고 출항한 이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풍물패와 함께 탈춤을 벌이던 이 가운데 각시 탈을 쓴 이가 제사와 손님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을 부녀회 어머님들의 손을 잡아 이끈다. 함께 춤을 추자고 권유하는 모습이 흥겨운 가운데 여기 저기 너나 할 것 없이 웃음 이 한껏 이다. 그 흥겨운 한마당이 펼쳐지는 가운데 내다본 앞 바다는 물이 빠지고 갯벌을 드러낸 가운데 이들을 지켜보는 중이었다. 오후 5시 반 경 사초리 선착장 제당에서 해신제를 시작해 해가 저무는 7시경 제를 마친 후 부녀회장과 어촌계장, 마을청년 회장이 제사 음식을 써서 바다에 내려가 용왕님께 정성껏 헌식한다. 올해도 제관을 맡아 사초 해신제를 돌보는 이는 일흔 하나의 양풍조 선생이다. 제관을 매해 따로 정하지 않고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돌보는 사초 해신제에서 십여 년 전부터 제관 일을 돌보고 있는 양풍조 선생은, 올해로 여든일곱을 맞은 이전 제관인 양서승 선생에게 자리를 물려 받은 것이다. 이유는, 제를 마친 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난장을 벌이고, 다음 날에는 마을 민들이 모두 모여 대보름 마당놀이를 한다. 강진군에 속한 마을 중, 단일마을로는 주민수가 가장 많은 사초 마을은 노인회와 부녀회, 청년회, 어촌계 등 마을자생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는 곳이다. 의사 결정 시 마을임원회의를 거치는데, 이는 상부상조하고 단합하는 농촌문화 조성에 앞장서 온 사례로서 높이 살 만하다. 사초 마을 세대 및 인구현황이 쓰인 첩판을 보니, 35세 미만 인구수는 총 348명의 마을 주민 가운데 82명이다. 35세 이상 50세 미만 인구는 40명에 이른다. 그 위로 90세 이상 고령까지, 사초마을의 연령대별 인구분포비를 찬찬히 훑는 가운데 생각난 인상적인 무언가는, 사초 마을 주민들의 신발이다. 저마다 모양과 색은 달라도, 풍물패부터 마을 어르신들까지 대부분 '운동화'를 신고 있던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던 터였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말, 사초 마을에서 목격한 흥겨운 축제의 한 판이 그리도 흥겨웠던 까닭은 그 때문이었을까? 🇰🇷

사초마을, 그리고 강진군 옛보기



강진만을 경계로 마량면, 대구면과 마주하고 사내 간척지를 지나 해남군, 바다 건너 완도군과 경계를 이루는 전남 강진군 신전면 사초 마을, 마주한 마량면 마량항은 조선초기 태종조 1417년 설치한 마두진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을 당시 거북선 한 척이 상시 대기하던 전략적 요충지였다. 수목화처럼 퍼있는 까막선이 보이고 고금도와 약산도가 든든하게 풍랑을 막아주는 마량포구는 1층 어항으로서 천혜의 미항으로 손꼽히며 밤 정취가 무척 아름다워 매 주 토요일이면 열리는 음악회를 찾는 관광객들이 꽤 많으며 매년 마량미항 축제가 벌어지는 장소다. 마주한 대구면은 매년 강진청자축제를 치른다. 한국 문화예술사에서 가장 자랑할만한 것 중 하나인 고려청자 중 80%가 강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세계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 소장자들이 귀중품으로 보존하고 있는 명품들 대부분이 강진의 작품들이다. 다른 지방에 비해 태토, 연료, 수질, 기후 등 여러 여건이 접합했던 까닭에 꽃피울 수 있었던 강진 청자 문화다. 사내간척지를 지나면 강진군과 경계를 이루는 해남군, 이 경계에는 봉황이 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듯한 산세의 주작산(朱雀山)이 있다. 곳곳에 긴 바위능선이 많고 정상에 서면 다도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높이 475m의 주작산은 강진 만덕산에서 시작한 암릉이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덕룡산을 거쳐 이어져 확트인 바다내음을 마음껏 느낄 수 있다.



마량미항의 노을



주작산 자연 휴양림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

선정마을 열두당산굿 별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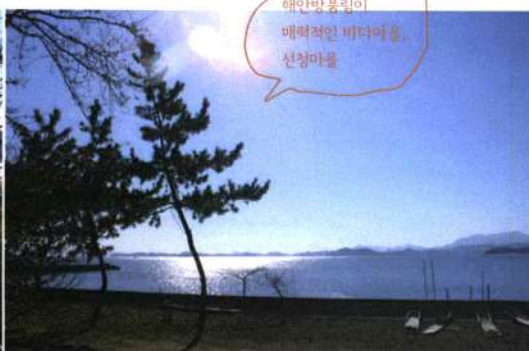
무려 12가지의
다루는 별신제에는
살생물을 양무당산굿
만산제!



‘신선이 놀 수 있는 별유천지’ 선정마을

마을 청년들이 2006년에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www.kkomak.co.kr)에는 선정마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명하고 있다. ‘선정 은하수&꼬막마을’이다. 선정마을의 최초 이름은 전포였다. 마을이 포구에 있고 해산의 파도를 달빛 아래에서 보면 그 빛이 천공의 번갯불이 빛을 발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후 세종 23년 순찰하던 영감이 이곳을 지나다 해안가의 수려한 해안방풍림인 아름드리 수목을 보고 ‘신선이 놀 수 있는 별유천지’라고 하여 선정이라고 개칭했다고 한다. 현재 바다에서 나는 소득이 커,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은 사는 선정마을 청년들이 시대에 부흥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한 이름은, 선정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한편 이들이 소망하는 미래를 그리는 뜻으로서 의미가 있다. 마을 청년들에 의해 회복되고 있는 별신제도 마찬가지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쇠락해가고 있었던 선정마을의 별신제는 젊은 층들이 매구를 연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후 마을의 단결 수단이 되었고, 생업의 배경이 되는 터전이 지닌 향토 고유 문화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월정갯벌체험축제’로 연계되며 지역발전의 토대를 탄탄히 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동시대적인 발전이 가능한 데는, 마을 주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탄생한 선정 머드립픽 창조 주민 협의회와 그 속에서 책임있게 독립적으로 마을운영에 임하고 있는 12 위원회를 두어 체계적인 발전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흥의 첫 입구인 초입에 위치한 여자만의 귀퉁이에 망주산을 등지고 호수 같은 바다를 앞마당에 둔 어촌 갯마을, 고흥군 남양면 선정마을. 동쪽으로는 순천만을 가로질러 여수와 달아있고, 북쪽으로는 육로와 해로를 통해 벌교와 달아있는 선정마을은 바닷가에 접해있고 농토가 적어 예전부터 바다에 의존해 살았다. 현재 이곳은 반농 반어의 마을로 변화해 왔지만, 마을 주민들은 하나같이 옛 선조들이 지혜로서 마을을 지킨 해안 방풍림을 매일 마주치며 산다. 바다의 태풍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고자 생성된 해안 방풍림은 수려한 경치 또한 수려하다. 이 해안의 갯벌에서 선정마을의 특산물인 꼬막이 난다. 예전부터 선정마을 앞바다는 개인 소유로 인식되어 현재까지 그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소유한 조건대 바다는 대부분 꼬막양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조건대와 공유수면을 ‘바다밭’이라고 한다. 이 바다밭에서는 꼬막 외에도 낙지, 숭어 등이 난다. 예전에는 조기 역시 주 소득원이었는데, 현재 선정마을의 주 소득원은 꼬막이다. 선정마을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료를 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입주한다고 해도 마을 바닷가를 이용할 수 없다. 바닷가에서 어장이나 양식을 하려면 입주자로서 10년 간 입주료를 부담하며 마을에 살아야만 한다. 이 동안에는 남의 일을 도와 노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마을 공동어장의 수익을 분배 받지는 못한다. 하여 선정마을 주민들의 주업은 꼬막양식 외에도, 들에서 나는 풍성한 쌀과 고추, 마늘 등이 있다.



동·서·남·북으로 마을을 지켜온 나무 12당산과 제



순천시 다문화가족 초청행사



이렇게 마을어르신들께
직접 배워보는 풍물
너무 흥겹고 재밌어요!

‘가족의식’이 매우 강한 선정마을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로서 고향을 그리는 향우민까지 포함해 이 바다밭을 터전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라고 여긴다. 그만큼 자기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매년 정월 대보름에 치러지는 ‘선정마을 12당산굿 별신제’를 보자. 선정마을은 마을의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12신에게 제를 지내는 혼치 않는 풍습을 갖고 있다. 마을주민과 타 지역에 거주하는 향우민은 물론 이웃마을 주민도 초청해 제를 함께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농악놀이로서 한데 어울린다. 선정마을 주민들은 매년 의식에 참여하며 아름다운 해안의 풍경 속에서 옛 선인들의 지혜로움을 다시 또 새겨보는 것이다. 특히 올해,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으로부터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 사업 지원을 받은 선정마을은 ‘정월대보름 맞이 순천시 다문화가족 초청 행사’를 함께 열었다. 풍물패의 장단을 따르며 농악놀이를 배우며 다문화 가족들이 어우러지는 마당밭이 동안, 징을 들고 따라 치며 배우는 아이의 진지한 얼굴이며 멀리 고향을 두고 한국으로 온 ‘엄마’들이 소고를 치며 웃음꽃을 터트리는 얼굴이 잔잔하다. 세봄보다 먼저 아름다운 ‘사람꽃’이 피는 풍경은 마당밭이를 도는 풍물단에게 각각의 집에서 차려내는 상차림에도 한 가득이다. 여자만의 갯벌이 키운 알찬 꼬막을 수북이 쌓은 접시며 남도 사람들이 잔칫집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홍어초무침이며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국을 뜬 그릇마다 통째로 한 마리씩 담근 꽃낙지며 ‘정성’이 한 가득이다.

2013년 2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선정마을 일원에서 열린 열두 당산굿 별신제. 이 별신제는 어촌전통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특별한 예다. 선정마을 별신제는 당산제 또는 ‘제만 모신다’라고 한다. 제당은 별신제를 지내는 마을 앞 바닷가를 둘러싸고 있는 월정리 해안방풍림인 전라남도 기념물 제116호 석재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선정별신제단 상석인 원당산과 동·서·남·북으로 마을을 지켜온 나무인 12당산으로 구성된다. 제를 지낼 때 별신제단 앞에 있는 팽나무에 금줄을 치고 별신제단에 음식을 차리기 때문에 당산나무를 실제로 볼 수 있으나,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실제의 신체로 생각하진 않는다. 원당산에는 구체적인 신격이 없지만 별신제에서는 당산할아버지와 당산할머니, 마을의 공조자들이 모셔진다. 몇몇 사람들은 마을 공로자들을 잡신이라 인식한다. 현재 9개만 남아있는 열두 당산에도

마을 곳곳을 돌며
당산굿을 하는 풍물패



원당산나무



마을회관 마당제사



원당산 별신제

마을 주민이 모두나와
소원을 비는 햇불행진



달집태우기



에비아 굿

구체적 신격은 없으나 당산할아버지의 자손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마을을 중심으로 곳곳에 당산이 있고 구체적인 신체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1930년부터 현재까지 전승되는 별신제는 1박 2일로 치러졌다. 별신제는, 선착장 및 어선 풍어제를 지내는 제1굿, 지신밟기를 통한 가정집 제사인 제2굿, 샘굿과 당산굿(들당산굿, 윗당산굿, 아랫당산굿, 날당산굿)인 제3굿, 당주와 축관, 현관의 제례식인 삼헌관 봉암제인 제4굿, 당주집 마당제사와 마을회관 마당제사를 지낸 후 농악단 전원의 제단 재물 모시기와 마을주민 및 참가객 전원이 벌이는 햇불행진을 벌이는 당산제, 원당산 해림정 제단에 제례상 올림으로 치러지는 별신제, 두문앞 들녁에서 달집 태우기와 살풀이굿을 벌이며 마을의 안녕과 주민회합을 기린 후 3개의 꼬령치에 음식을 담아 생솔가지와 함께 새끼줄로 묶은 후 석재 우측 바닷가로 이동해 바다에 띄우는 에비아 굿으로 구성된다. 에비아 굿의 헌석은 마을에 고기를 몰아주는 신인 도깨비에게 바치는 것이다. 1950년대 중반까지 발을 치고 조기를 잡아 수입을 올리던 마을 사람들은 꼭 도깨비불을 보기 위해 방주산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도깨비불이 번쩍이는 쪽에 어장을 하면 고기가 잘 잡혔기 때문이다. 또한 헌석을 담은 꼬령치는 멀리 떠나갈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생솔가지를 묶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모든 당제를 총괄해 별신제를 마치고 정월 대보름이 되면 선정 마을 사람들은 제사와 관련된 총결산으로 마을 회관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은빛과 갯빛 물결이 너울거리는 바다를 앞에 두고 멀리는 병풍처럼 둘러싼 섬들이 호수를 연상케 하는 선정마을. 청명한 하늘 아래 약 120여 가구, 236명이 모여 사는 작은 어촌 갯마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을청년회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갖추고 선정마을을 찾는 이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마을의 주생산물인 꼬막을 가져다주는 갯벌과 풍요한 들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곳 청년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마을뉴스부터 마을을 소개하는 갤러리, 선정마을 주민들의 농수산물과 음식점 및 숙박정보 제공을 하는 마을주민 개인홈페이지, 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열어둔 그곳에서 '선정 꼬막마을 청년회'는 입을 모두 열어 말하고 있다. "충실한 삶이 희망인 것을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농어촌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의리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된다. 마을의 발전과 봉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선정마을 갯벌 체험



고흥 선정 머드림픽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 765-1

선정마을에서 펼쳐지는 “머드림픽”은 매년 7월말 휴가철 어디로 휴가갈지 고민하는 가족단위 휴가객들에게 좋은 체험거리이다. 고흥 선정 머드림픽은 갯벌과 스포츠를 접목해 새로운 체험관광으로 여자만의 청정갯벌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세심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갯벌서 즐기는 올림픽으로 불리는 고흥 머드림픽은 머드달인 4종, 머드 굴림쇠 굴리기 등 어릴 적 즐겼던 정겹고 재미있는 체험위주의 행사로 펼쳐진다. 가족과 함께 온 어린이들을 위한 머드 보물찾기, 머드폴장, 고기 잡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머드림픽이 열리는 선정마을 갯벌은 밀가루처럼 입자가 곱고 이물질이 없어 국내 최고로 손꼽히고 있다. 선정 머드림픽은 1만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참가하는 대형 참여행사이다. 홈페이지는 <http://www.mudlympic.co.kr/>



놀이 만들기 자연



선정마을 해안갯벌체험 여행

주2회, 토요일과 일요일 운영되는 해안갯벌체험은 참고막의 맛과 멋을 경험할 수 있는 ‘참고막 채취체험’, 체험객에게 갯창화와 놀배, 장갑 등 체험에 필요한 도구를 대여해주는 ‘전통놀이 체험(갯벌놀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갯벌에서 즐기는 윈드서핑인 ‘갯-보드 체험(뽕스키)’, 해안 느티나무숲에 텐트를 치고 자연과 함께하며 야외특설무대에서 먹거리를 즐기며 꼬막 요리체험도 가능한 ‘해안 방풍림 야영 체험’ 등으로 이뤄진다. 부대시설로 실내·외 샤워장과 민박 및 펜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선정마을 홈페이지는 <http://www.kkomak.co.kr/>



참고막 채취 체험



갯-보드 체험



고흥군 남양면 월악마을

월악 당산제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어떤 이는 고흥의 풍경은 진정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고흥에 산재되어 있는 부존자원과 역사, 문화, 관광, 농수산물을 비롯해 풀 한 포기, 돌 하나, 공기 한 모금도 의미가 있다고, 지역 문화 유산 보존과 문화 예술을 대중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흥문화원이 2012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 지원 사업에 적극 추천한 '월악당산제' 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들이 전승해온 '두레를 통한 마을 공동체의 구성' 때문이다. 요즘 들어 많은 풍속을 잊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은 가운데, 고흥군 남양면 장다리 월악 마을은 마을 설기 초부터 오늘날까지 단 한번도 단절된 적 없이 마을 도제인 '월악 마을 당산제' 를 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대정사로 치러오며 농어촌 공동체가 전통적으로 가져온 '화합 정서' 를 살아있는 문화로 지켜가고 있다. 월악 당산제는 우리 고유의 풍속인 두레나 계, 향악을 통한 마을 공동체의 '두레 굿' 으로서 그 형식과 내용, 색채가 매우 특색 있다. 삼수의 원리가 내재되어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월악 당산제는 넷째 마당으로 구성되어 온 종일 마을의 화합과 한마당을 구성하고 판을 벌이는 독특한 남도 고흥의 굿이다. 특히 고흥 농악의 특성과 남해안 의식굿이 그대로 살아있는 다채롭고 맛깔스러운 쇠가락은 그 기예가 뛰어나다. 속도 빠른 가락의 질감으로 발달된 월악 농악을 가진 월악 마을은 옛날에 바다를 끼고 있던 지역적 특성상 어느 곳보다 당산제가 발달했던 곳이다.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월악당산제

당산제의 원형은 작고한 강대섭 선생의 수제자인 편열우 선생이 현재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제례의식과 의미를 풍물적인 모든 요소로 표현하고 있는 월악 산굿은 가락적, 유희적, 종교적인 요소가 잘 짜여진 굿이다. 월악 농악 가락보는 강대섭 계보의 편열우 선생의 증언과 실기를 중심으로 당산굿과 지신밟기, 판굿 등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편열우 선생은 제가 진행되는 동안 굿을 치는 풍물패인 '월악당산굿 보존회' 회장으로, 이 단체는 1999년 법인으로 설립됐다. 30여 명이 활동하는 월악당산굿 보존회는 2006년 건립된 전수관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연습을 하며 다른 지역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농악경연대회 최우수상, 제3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어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월악 당산굿은 매년 정월 대보름에 이 마을에 있는 다락산 당산계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낸 데서 유래한다.



도독잡이 굿



구석뜸 샘굿

‘뫼산(山)’ 자와 월악마을, 그리고 당산제

범산, 다락산, 뫼산이라 불리는 세 봉우리의 산과 그 아래 저수지가 들어서 막아진 마을 형국이 ‘뫼산(山)’ 자처럼 보이는 월악 마을은 당산제에 포함되는 제사 제물과 굿, 제사 모두 이 글자와 연관되는 숫자인 ‘3’을 내용으로 한다. 당 할머니는 한 분인데 제물은 세 상으로 하는 것이나 혼맞이 굿을 할 때 뫼신 자로 진을 치고 외채-삼채-외채 세 가지로 분할되었다 하나로 합쳐지게 치는 것, 제를 초경, 중경, 상경으로 나누어 하는 것이 그렇다.

월악 당산굿의 특징은 마당밧기, 판굿, 도독잡이굿, 노래굿, 등미지기굿, 별따세굿, 노래굿, 허허굿 등으로 짜여 있고, 춤과 사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학문적 사실이 독특하다. 특히 셋째 마당에 치는 도독잡이굿은 이 마을만의 전통적인 독특한 굿 형태를 갖는다. 군악적인 요소와 연극적인 요소가 섞인 도독잡이굿은 치배꾼들과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적장수 목을 베는 놀이 마당이다.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이면 마을입구인 노루목에서 혼을 맞아 들이는 굿을 벌인다. 이어 마을 공동우물인 구석뜸과 샘터 두 곳에서 샘터를 친다. 이전에는 마을에 구석뜸, 가운데 뜸, 목은터에 3개의 공동우물이 있었는데 경지정리와 저수지를 지으며 2개가 없어지고 원형이 그대로 있는 곳은 구석뜸 하나다. 이어 날당산과 원당산에서 혼맞이 굿을 친 후 점심시간을 갖고 제를 준비한다.

옛날에는 3일 동안 기우를 하고 하루 굿을 쳤었는데, 이후 2일로 줄었다가 현재는 하루만 지내고 있다. 올해부터는 밤에 하던 제를 낮으로 옮겨 지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82호였던 가구가 지금은 31호 밖에 되지 않고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29호 밖에 되지 않아 손이 부족한 탓이다. 이전에는 정월 초닷새 날 총회를 열어 제주를 선정하고 그 부부가 당집 아래 서당에서 3일간 생활하며 그 앞 샘물만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고 제 준비를 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마을이장을 제주로 부녀회에서 음식을 장만해 제당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단, 샘물을 사용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는데, 서당집이 지어지기 더 이전에는 밤 열시 넘어 제주 부부가 물을 길어와 집에서 제 준비를 했다고 한다.



할머니 당산



원당산에
제를 올리러 가는 행렬.
그리고 정성스러운 마음과
손길이 느껴지는 제사상

밤에 제사를 지낼 적에는 오전부터 하루 종일 마을을 돌며 굿을 치고 집집마다 액땀이 굿을 치며 먹고 놀고 했는데, 밤 10시가 되면 사이렌을 울려 모두 해산하고 그때부터는 누구도 밖에 나와서는 안 됐다고 한다. 제당이 지어지기 전에는 삼각형의 돌을 당할머니라 여겨 금줄을 치고 제사를 지냈었다. 새벽에 제사를 모시고 난 뒤 제사 음식들을 조금씩 담아 헌식하는데, 다음 날 아침 다시 돌아와 헌식물을 보고 그 해 제가 잘 모셔졌는지 확인했다고 한다. 제가 잘 지내진 경우에는 음식물이 그대로 두어져 있다. 마을의 개들도 그 주위를 맴돌기만 할 뿐 건드리지 않는다고.

천상선인이 다락산에 내려와 옥녀와 탄금하며 월하풍악을 즐겼다는 곳, 조선 영조 시대에 다락산 하록에 설촌된 월악 마을은 농업과 인근 바다를 접한 어업이 복합된 생계마을로 농토가 기름지고 참꼬막 등 풍성한 바다 생산물과 양식업으로 소득이 풍부한 마을이다. 월악당산굿 보존회와 향우인, 농우인들이 모여 대보름 세시풍속 축제를 진행한 2월 24일, 월악농악대가 팽과리, 징, 장구, 북, 버꾸, 나팔 등을 맡은 각자 역할에 맞게 복색을 갖추고 노루목에서 매구를 치기 시작했다. 2m 정도 되는 대나무 깃대 깃봉에 흰 종이를 끼워 달고 낫쇠로 된 삼대창을 끼워단 영기를 든 영기수와, 하얀 중우적삼에 청색조끼를 입고 삼색 띠를 어깨에 매고 고깔을 쓴 농기, 하얀 한복에 광목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머리엔 노루털로 만들어진 모자를 쓴 대포수, 빨간색 바탕에 가장자리와 등뒷반 중심부에 검정색 띠를 넣어 만든 치북에 색동이 달려있는 반소매와 뒷판에 부착한 삼색띠를 부착하고 머리에 상모를 쓴 상쇠, 머리에 꽃리봉을 매어 쓴 장구 등의 치북은 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 것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가를 보여준 증거다. 지켜보던 어린 아이 하나가 농악대로 뛰어들어 흥겹게 장단을 맞추며 덩실춤을 춘다. 곱게 한복을 갖춰 입은 모습이라 더 눈이 갔는데, 이를 지켜보는 동네 아이들 대부분이 한복 차림이다. 전통문화의 꾸준한 전승은 그것을 보고 자라며 느끼고 경험해본 아이들이 앞으로도 해 나아가야 할 일이다. 본대로 산다고 했다. 적어도 월악 마을 아이들은 그렇게 전통을 오늘의 것으로 함께하는 중이다. 🌈

고흥 여행하기

고흥 우주발사전망대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산76-1

고흥 우주발사전망대는 영남면 남열해돋이해수욕장 옆 50m위에 지하1층, 지상7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로우주센터와는 해상으로 15km 직선거리에 위치하여 나로호 발사 광경을 넓은 바다와 함께 볼 수 있다. 주변에는 남해의 용이 숨천했다는 용바위 등 해안절경이 뛰어난 곳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망대 7층에는 광주·전남권역 최초로 터널이볼을 설치하였고, 2층에서는 수려한 다도해 절경 조망이 가능하며, 1층에는 우주도서관과 우주체험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고, 지하 1층에는 가족놀이방을 운영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나로도 일대

홍도, 흑산도, 완도, 서남해안으로 이어지는 2,3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섬 하나 하나가 모두 자연의 조각품처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이 지역은 신라시대 때에는 장보고가 해상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송나라, 원나라 등과 통상을 하던 해상무역로에 해당되며, 조선시대에는 이충무공이 왜적을 격파하던 전쟁터로 곳곳에 그 유적이 남아 있다. 나로도지구는 고흥군 남부의 도화면 발포리(발포해수욕장), 덕중리, 지족리 및 동일면 봉영리 부근 일대와 외나로도 전 지역이 국립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나로우주해수욕장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나로우주해수욕장은 바다속으로 100m를 들어가도 한길아 못되는 완만한 경사와 350년 이상된 300여주의 노송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썬터위를 있게 해주며, 바로 옆에 천연기념물 제362호로 지정된 상록수림이 자리 잡고 있어 자연경관이 매우 뛰어나고 섬 전체가 바다낚시의 보고로 소개된다. 나로우주해수욕장이 위치한 외나로도는 섬 전체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할 만큼 풍광이 빼어나며 근처에 위치한 나로도항(죽정항)에서 산낙지, 꽃게, 활어, 조개류 등의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사먹을 수 있는 즐거움도 있다.



고흥 먹거리

고흥 유자

고흥은 유자 재배지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유자는 기후 변화에 특히 민감한데, 연평균 기온이 13~15℃, 최저 기온이 영하 9℃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재배가 가능하다. 또한 연간 2,400시간의 일조량, 1,500mm 이상의 연평균 강수량도 중요한 재배 조건이다. 유자나무의 증산 작용과 광합성을 왕성하게 해주는 적당한 바람도 꼭 필요하다. 유자 재배지를 보면 고흥을 비롯해 전남 완도와 진도, 경남 남해와 거제 등 남해안이 대부분이다. 이 지역이 바로 유자 재배의 북방한계선이다. 고흥에서는 유자나무를 흔히 대학나무라고 부른다. 유자나무 한 그루에서 수확한 유자만으로도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나무 한 그루에 달리는 유자도 많았을 뿐 아니라 가격도 좋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유자 1개에 1,000원씩 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한다



고흥 마늘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물과 기름진 향토밭에서 생산됨으로 맛과 향이 뛰어나며, 위장병, 변비, 고혈압 및 암 예방 등에 효능이 있다.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포두면 달맞이 축제



포두면을 대표하는 풍물굿형 동제, 포두면 달맞이 축제

원봉림 마을 앞에는 큰 저수지가 있다. 마을 언덕에는 오랜 동안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마을의 큰 어른, 당산나무 여러 그루가 살고 있다. 포두리 사람들이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 당산제를 지내는 장소다. 보름날 달집태우기 행사가 끝난 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상하단 당산제를 모시는데, 그 역사가 1960년부터다. 허나 아쉽게도 이 당산제는 일반인들의 참가를 금하고 있다. 외부에 개방을 하는 대보름행사는 1970년대부터 전승해온 풍물놀이와 2001년부터 원봉림마을청년회가 주체가 되어 열고 있는 '달맞이 축제' 다. 포두면 46개 마을 중 유일하게 정월대보름에 마을 축제를 하고 있는 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원봉림 마을은 대보름 축제는 예전에는 세 곳에서 제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사장나무에서 지내고 막사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동학군의 훈련장이었던 마을 앞들인 막배미에서 달집태우기를 하는 '달맞이 축제' 로 끝난다. 이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 다른 마을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며 현재 포두면을 대표하는 풍물굿형 동제로서 전승되고 있다.



마을 곳곳
지신밟기 하는
원풍림마을 풍물패



소원을 이뤄주는
모두면
정월대보름 달집





달집태우기



원봉림마을의 자랑
모두면 달맞이 축제.
그리고 청년회풍물패

정월대보름 날 마을의 안녕과 각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매굿으로 달맞이 축제는 시작된다. 매굿은 1970년대부터 해온 것으로, 현재 그 맥을 잇고 있는 이들은 청년회 계원들이다. 1987년까지만 해도 인구가 370명에 달했던 원봉림 마을은 현재 총세대수 81세대에 인구 141명이 살고 있다. 이 가운데 20~50대까지 청장년층이 42명으로, 최근 2세대 3명이 귀농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얘기한 김병태 이장은 “청년회의 강한 힘으로 보전 발전시키며 그 맥을 유지해온 이 축제는 마을의 큰 자랑”으로 생각한다. 마을민들이 함께 준비한 풍물놀이는 오전부터 시작해 오후 5시 정도까지 마을과 각 집을 돌며 매굿을 치는 지신밟기로 이어진다.

저녁식사를 마친 후 오후 6시 30분부터 달집태우기 행사를 위한 사전행사를 전남 고흥 출신 배우 손영춘 씨의 사회와 노래로 진행한 2월 24일, 행사를 찾은 손님들을 위해 돼지고기를 굽고 과일, 국, 부럼 등을 준비하는 행사장 한쪽 부녀회의 손길이 바쁘다. 이날 축제에는 소원을 적어 달집과 사전행사장 근처에 걸고 달집 태우기를 기다리는 고흥군의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모였다. 대형 달집 앞에 고사상이 차려지고 노인회장, 어촌개발 위원장이 제관이 되어 고사를 지낸 후 지원자들이 절을 마치고 나면 보름달 아래 선 멋진 대형 달집에 불 붙일 차례가 된다. 마을 어른들이 달집을 태울 햇불을 준비하는 동안 마을 청년회와 주민들로 구성된 풍물패가 다시 한번 달집 주위를 돌며 풍물굿으로 흥을 돋는 가운데 햇불에 하나 둘 불이 붙여진다. 달집을 에워싸고 햇불을 놓는데, 유난히 달집 불이 밝게 타오른다. 이 광경을 놓칠 새라 풍물패는 달집이 모두 탄 8시 반이 넘도록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늦은 밤까지 달맞이 축제를 즐길 풍악을 선물했다. 🇰🇷

고흥 둘러보기

원봉림 마을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1163

예로부터 풍수상 마을 뒷산에는 천등산이 펼쳐져 있고 마을 앞은 신기들과 연결되는 넓은 평야가 있는 이 마을을 봉림 마을이라고 불렀는데, 이 연원은 예부터 풍수상 비봉산의 형국이 암봉은 알을 품고 앉고 솟봉이 마을을 향해 비상하는 것 같다고 하여 봉(山)자와 봉이 좋아하는 오동나무 숲이 마을에 많이 있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1980년대 마을 앞들이 경지정리가 되어 농업생산성이 높아진 가운데 현재는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해 발농사로는 마늘이 주종을 이루고 콘, 깨, 고구마, 조 등을 재배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원봉림 마을은 특작물로 유자와 오이를 재배하는 농가도 1세대씩 있다. 1992년 마을 회관을 개축하고 2000년에는 부녀복지관을 신축해 마을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는 원봉림 마을은 노인회와 개발위원회,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청년회 등이 활발히 활동하는 가운데 매년 2회 개발위원장이 주관하는 마을총회를 열고 결산과 예산총회를 진행하며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있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

고흥군 도암읍 용정리 497-3

고흥군 도암읍 용정리 장기산 정상에 자리잡고 있는 고흥천문과학관은 최첨단 800mm 주망원경을 비롯하여 6개의 보조망원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60석 규모의 천체투영실(10m, 돔스크린), 전시실, 시청각실, 야외 전망대를 갖추고 2011년 2월에 개관하여 밤에는 성운, 성단 등 각종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고 낮에는 태양 흑점을 관측할 수 있으며 천체투영실에서는 가상 별자리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오곡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부자곡성, 행복한 군민’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잊혀져가는 세시풍속을 압록리 청년들이 시작한지 벌써 13년이 되어가고 있다. 2000년부터 청년단체가 주체가 되어 활성화 시켜온 ‘오곡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는 매년 정월 대보름날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주민이 동참해 소나무와 대나무로 달집을 만들고 노인들은 새끼줄과 이엉을 엮어 달집 주변을 두르는 의식을 행하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음식을 나누며 한해의 액을 보낸다. 올해 축제는 2월 24일 열렸다. 매회 1000명 이상 참여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오곡민들 뿐 아니라 곡성군 사람들과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함께한다. 올해는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는 ‘부자곡성, 행복한 군민’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율놀이, 투호놀이, 지신밟기, 풍년기원제, 달집태우기, 불꽃놀이, 풍등 날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펼쳐진 대보름맞이 축제는 행사일 2주 전부터 주말을 이용해 청년회원들이 직접 나무를 베어 지은 대형 달집의 위세가 드높은 가운데, 금천농악회의 흥겨운 농악놀이로 시작됐다.

엄청나게 큰 달집에게
소원을 비는 달집대우기

제13회

오곡면민의 영안과 화합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달집대우기



오곡명청년회

겨

(개



줄다리기



달집태우기



고졸을 어깨에 들쳐매고
마을을 돌며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지요

오후 2시, 금천천 천변에서 오곡면 22개 마을이 참여한 줄다리기 대항전이 열린다. 매해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고졸을 줄다리기용 줄로 이용하는데 남과 여로 편을 나누어 진행되는 줄다리기에서 언제나 이기는 쪽은 여자 편이다. 여자가 이겨야 그 해 풍년이 든다고 하여, 남자들은 일부러 저주는 줄다리기다. 이 고졸은 마을 대항전이 끝나면 오지리 소재지를 한 바퀴 돌며 한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인 지신밟기를 하는데 쓰이고, 달집태우기를 할 때 함께 태운다.

천변에서는 연날리기, 투호놀이, 옷놀이 등 여러 종류의 민속놀이 판이 한창이다. 떠들썩하게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은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달집태우기 점화는 7시에 시작된다. 30분 전 즈음, 달집 앞에서 면장, 대동계장, 청년회장, 위원들이 모여 축문을 읽고 제를 올린다. 이 풍년 기원제는 제관이 헌작을 하고 마을 어른이 축문을 읽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밑둘레 30m, 높이 20의 거대한 달집에 불이 점화된다. 삼시간에 타오른 큰 불 앞에서 참석자들의 함성도 따라 높이 터진다. 저마다 소원을 비는 가운데 '원사네끼' 새끼줄에 걸어둔 소원 성취문과 함께 달집을 지을 때 따로 '달방'을 만들어 넣어둔 그 해 액운이 든 사람의 속옷, 고갱이, 복어, 실 등이 타오른다. 초가집 지붕을 엮어 엮을 때 사용하던 것으로, 벚짚을 엮어 만들어 달집 지붕으로 엮은 이 엉까지 불이 솟아 완전히 타오르면 행사에 모인 사람들은 한데 모여 준비된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한해 동안 희망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축제의 밤을 즐긴다. 🌈

곡성군 주요 관광코스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강을 끼고 있는 관광지가 많은 곡성군은 1일 코스로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출발해 1004장미공원, 기차마을레일바이크, 증기기관차, 가정역으로 돌아오는 짧은 여행이 가능하다. 2일 코스는 섬진강기차마을, 1004장미공원, 섬진강레일바이크, 섬진강천문대, 숙박, 섬진강문화학교, 조태일시문학기념관, 태안사, 증기기관차로 섬진강과 보성강이 합쳐지는 옹곡면이 소재한 곡성군을 여행하는 이용객들이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룬다.

섬진강 기차마을

곡성군 옹곡면 오지리 기차마을로 232-1

전라선 복선화 공사로 폐선이 된 구 전라선 10km 구간을 활용해 3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관광용 증기기관 열차를 제작해 운영하고 있다. 자연이 살아있는 섬진강과 국도 17호선을 따라 구불구불 달리는 열차 여행은 멋진 추억과 낭만을 안겨줄 것이다. 또한 섬진강 기차마을 단지 내에는 4만m² 부지에 1004품종의 38,000주 장미를 식재한 1004장미공원과 대항강 자연휴식공원, 3만여평의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자연유원지인 압록유원지, 철로 위를 직접 달릴 수 있는 섬진강레일바이크와 토속적인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초가부스 등이 마련돼 있어 자녀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다.



태안사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

너무 깊지도, 험잡하지도 않은 동리산에 자리한 태안사는 아담한 동리산의 아름다움을 거느리고 있는 풍경이 일품이다. 태안사로 들어가는 1.8km의 계곡은 봄에는 신록,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녹음, 가을에는 짙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가 되고 있다. 문화재 자료 23호로 지정되어 있는 태안사 경내에는 태안사 바라, 적인선사탑, 광자대사탑, 능주각, 일주문, 태안사 동종 등 9점의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진동 앵백이곳



천 년을 헤아리는 역사도시, 나주

1800년대 말까지 호남 최고의 도시였던 나주. 산을 등지고 강을 품은 지형이 한양을 빼 닮아 예로부터 ‘작은 한양(小京)’이라 불렸던 나주는 마한 문화의 중심지이자 고려 태조 왕건의 발자국이 곳곳에 찍혀있는 천 년을 헤아리는 역사도시이다. 나주라는 이름은 고려를 세운 왕건이 903년 처음 내린 이름에서 유래한다. 고려 초 지금의 도청과 유사한 지방행정기관인 전국 12목 중 하나로 나주목이 설치된 뒤 912년 동안 320여 명의 목사가 거쳐갔는데 그 중에는 삼봉 정도전의 아들 정진과 퇴계학파의 적통 학봉 김성일 등이 있다. 수 천년 동안 곡창 나주에 영화를 누리게 해 준 영산강 물길이 굽이쳐 흐르는 가운데 이 터에서 삶을 지어온 나주 사람들이 있다.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가 생성되고 소멸된 용광로 같은 곳. 나주 사람들은 이 땅을 여행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준 쪽빛 하늘이 천년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길과 같다 하여 칭한 ‘쪽빛길’로 이르게 초대하고 있다.

쪽빛길에서 이어지는 진동 앵백이곳

주말이면 다보사를 찾거나 금성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과 등산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경현동. 이곳에서 전승되고 있는 진동 앵백이곳을 찾아 쪽빛길로 나섰다. 다보사로 올라가는 등산로와 연결되어 있는 경현 마을, 이 마을 입구에는 아름드리 거대 수목인 당산나무가 서 있다. 할아버지 나무가 늙어 죽은 이후 현재까지 남아 있는 할머니 나무는 살아온 세월만큼 느리게 뻗은 가지가 인상적이다. 이 할머니 느티나무는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 아래 위치한 경현동의 ‘어제’를 기억한다. 마을은 예로부터 ‘금성명주’라는 비단을 짜는 마을로 유명했고 특히 ‘진동 농악’은 나주를 대표하는 가락으로 이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진동은 아이들까지도 쇠만 들려주면 가락을 친다’는 말이 전해질만큼 가락이 성행하던 곳이다. 전통사회에서 조선을 먹여 살리던 나주는 최대 농촌도시로 가락과 마을 곳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그 중에서도 나주의 첫 사액서원인 ‘경현서원’이 있어 경현동이라 하고, 금



성산 긴 골짜기에 위치한다고 해 전라도 사투리로 '진동' 이라고도 부르는 경현마을 진동 액막이굿은 나주를 대표하는 유래와 전승현황을 보유하고 있다.

진동 액막이 굿은 흔히 '진동 농악' 이라 불리는데, 새마을운동 이후 당산제가 주춤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승 단절 위기도 겪었지만 마을 노인들이 앞장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1980년대까지도 정월 대보름이면 진동 농악대는 나주 시내 집집을 돌며 지신밟기를 했다고 한다. 최근에도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지신밟기를 하기도 하는데, 현재 진동 액막이굿의 전승을 위해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진동 액막이굿 보존회' 가 매년 정월 대보름날에 나주세시풍속놀이 잔치에 나가 공연도 하지만 실제 경현마을에 살고 있는 현재 주민 수가 많지 않아 올해 축제를 위해 옆 교동마을 등 주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현실에 놓여있다. 또한 예로부터 마을 대표자를 선출해 제관으로 모시고 이 제관이 4~5명의 축관을 선출해 치러지는데, 원래는 마을에 5개 반이 있어서 각 반의 반장들이 축관을 맡아 하였고, 현재는 반이 4개로 줄어 4명의 축관이 제관과 함께 제를 진행한다. 마을 당산제는 예로부터 마을 수호신을 모시며 마을주민들의 소망을 빌고 화합해 가가호호 지신밟기로 재물을 모금해 치러져 온 가운데 제관과 축관이 지켜야 할 까다로운 금기들이 많았다. 현재도 대부분의 금기를 지키는 가운데, 일주일 전부터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굿은 일과 굿은 말을 삼가며 그 어느 누구하고도 말다툼을 하지 않아야 하고 부부관계도 하지 않아야 하는 엄격함 때문에 이 일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승되어 온 액맥이굿의 역사와 같이, 마을 당산나무와 같이, 경현 마을 사람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 그 한 사람인 이한규 선생은 경현 마을 이장이자 진동액맥이굿 상쇠 보존회장 및 (사)한국국악협회 나주시지부장을 맡고 있다. 이한규 이장은 1960년 걸궁굿패를 전승 보존해온 서태민 선생이 사망한 1970년대 이후로 사라졌던 걸궁놀이를 1987년 부활시키고 현재까지 보존해온 이다. 그는 외지 관람객들을 위해 주말마다 1~2회 정도 진동 농악을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의견을 나주시청에 제안해둔 상태다. 문화유산을 전승하는 노력만큼 사람들 속에서 살아 뛰는 공동체 현장을 마련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진동 액맥이굿을 보존하고 전승하고자 하는 마을민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진동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나주 전통마을축제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진동 농악'이 한국의 전통 민속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12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 지원 사업을 신청한 것이다.

일주일 전부터 마을 당산제와 대동제가 열리는 마을 입구 당산나무 앞 당산제장을 청소하고 왼쪽으로 곧 새끼줄에 청순과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 창호지를 잘라 사이사이 끼운 금줄을 준비하는 것으로 당산제 준비가 시작된다. 대나무 7대를 세워 금줄을 둘러친 당산나무 앞, 마을 회관에서부터 지신밧기를 하고 온 진동 농악대의 걸궁놀이로 축제가 시작됐다. 대보름이 가까워지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 밤에 마을 당산 3곳에 모여 당산제를 지내는데 가장 먼저 제를 지내는 곳은 당산나무다. 진동 액맥이굿의 하이라이트는 마을 광장과 우물을 돌아다니며 벌이는 판굿이다. 설장고, 상쇠, 북, 소고, 광대 등으로 구성되어 가락과 춤으로 한바탕 노는 판굿은 집집마다 방문해 한 해의 액을 막아주는 지신밧기로 이어지고, 축제는 마을 유지 집에서 판굿을 치고 신명나게 놀이하는 것으로 끝난다. 🌈

나주 관광지

나주영상테마파크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신2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일대 14만㎡의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나주 영상테마파크는 특화된 영상촬영 메카로 재탄생하게 됐다. 7개월여동안의 리모델링을 통해 옛 고구려의 모습을 완벽에 가깝게 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주영상테마파크 입구에 들어서면 그동안 이곳에서 촬영한 드라마 및 영화에 출연했던 송일국, 한혜진, 전광렬 등 주연배우의 핸드 프린팅과 출연사진을 배너로 표현한 '스타거리'가 눈에 들어온다. 호가집으로 조성됐던 저잣거리를 너와형태로 개조해 천연염색, 족물, 소목, 한과, 한지, 비누, 점토공예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방으로 조성했다. 세트장 입구에는 '삼죽오의 비상' 조형물과 광장이 조성됐으며 망루와 누각 신축, 성문 주변도 고증을 거쳐 복원했다. 동부여궁 주변에 4개의 망루를 신축해 웅장함을 키웠고 주변 회랑과 신단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복원하는 등 고구려의 옛 모습을 재현하는데 주력했다. 홈페이지는 <http://www.najuthemepark.com/>



나주 먹거리

나주 곰탕

약 20년 전에 나주의 5일장에서 상인과 서민들을 위한 국밥요리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나주곰탕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주곰탕은 다른 지역의 곰탕과 다르게 좋은 고기를 삶아 국물을 만들어 국물이 맑은 것이 특징이다. 사골육수에 결대로 찌는 사태와 양지머리, 다진 파를 얹은 탕이다.



사진출처: 네이버

나주 배

나주배는 우리나라 배 재배역사와 같이 삼한시대부터 오랫동안 재배되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나주배가 국내외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게 된 것은 1929년 개최된 조선박람회에 나주배를 출품하여 동상 수상을 계기로 나주의 명산물로 각광받기 시작하였으며, 1967년 대만에 수출한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 캐나다 등 미주지역과 동남아, 중동, 유럽지역에 수출함으로써 세계적인 과일로 인정받게 되었다.



사진출처: 나주시청

300년의 삶의 역사가 숨쉬는 호계리 별신제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 자정에 별신제를 지낸다. 지방민속자료 제 43호로 지정되어 있는 호계리 별신제는 '국태민안', '세시년풍', '가무질병'을 기원하며 천·지·인의 삼신에게 제물을 올리는 민속제전이다. 올해로 311회를 맞은 별신제는 300여 년 전 전승됐은 가운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치러왔다. 현재는 마을 옆으로 호계천이 돌아가지만 예전에 이 천은 마을 앞으로 흐르던 시내다. 이 시내의 형국이 호랑이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호계마을은 작년까지 물길에 마른 자갈밭 가장 깨끗한 곳에 제터를 잡고 별신제를 치러왔지만, 올해부터는 따로 만든 콘크리트 제단에서 지내게 되었다.

정월 대보름인 2월 23일, 늦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사이인 자시 중 밤 12시에 제사를 지내는 별신제를 보기 위해 미리 찾은 마을에서 눈에 띈 것은 제단 주위에 세운 스물 여덟 개의 생대나무와 금줄이다. 복두칠성 별자리가 하늘 중앙에 위치하는 시각인 밤 12시에 제를 지내는데, 제의 시작은 마을회관에서 시작되는 풍물소리로 알 수 있다. 제관들이 장찬 집으로 향하면서 치는 풍물은 제의 끝을 알린다. 예전에는 제의가 행해지는 동안 마을 주민들은 집에 머무르고 마을회관이나 제장에 나오지는 않았다. 또한 별신제 음식을 준비하는 장찬집에는 금줄을 치고 담을 따라 곳곳에 황토를 뿌려 재액을 막는데, 별신제 약 2주전 마을 총회에서 제사 음식을 만들 사람을 정하고 통보하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그 2주간 외부와 접촉을 끊고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며 부정이 타지 않게 조심한다. 장찬은 제물을 마련할 때 가격을 깎지 않고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며 화장실을 다녀와서는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보통 혼자 사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해서 주로 과부들이 많이 담당해왔다. 제물을 장만하는 장찬은 가장 깨끗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금줄을 친 장찬집에는 예부터 동네 사람들도 출입하지 않았고, 최근까지도 친척들도 방문을 삼가 할 정도였다. 매우 엄격하게 장찬집을 가려 뽑는 만큼 호계리에서 별신제는 제관을 선정할 때도 몸이 불편해 거동이 어렵지 않고 집안에 유고가 없고 초상이 나거나 임신부가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보통 제관은 고령의 남성을 중심으로 활동이 가능한 연장자부터 21명을 선출해 역할을 맡겼는데, 최근에는 닭 목을 자르는 장생을 따로 선출하지 않고 제물을 옮기는 포진수를 6명에서 1명으로 줄여 총 16명의 제관을 선출하고 있다. 호계리에서는 마을 초상이 나더라도 별신제는 모시지만 제관들은 초상이 나거나 산고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 예전에 제관들은 제일 닷새 전부터 각자 원새끼를 꼬아 만든 금줄을 준비해 대문에 치고 깨끗한 흙을 가져다 뿌린 후 매일 목욕재계하며 제일까지 초상집에 가지 않으며 마을 사람과 말을 건네지 않았다. 제관들을 위한 당샘을 파서 목욕을 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각자 집에서 제의 날 온수로 목욕을 하거나 낮에 장흥읍에 있는 대중목욕탕에 다녀왔다.



장찬집에서 마련한 제물



제물을 옮기는 제관어르신들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호계리 별신제





동그렇게 뜬 달 아래서
펼쳐지는
어머님들의 강강술래

삼백여 년 우리전통 천년만년 이어가세

해질 무렵인 저녁 8시 경이 되자 호계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모여든다. 마을회관 앞 마당에선 별신제를 보기 위해 찾은 외부 손님 대접을 위한 음식까지 마련하느라 애를 쓴 어머님들의 강강술래가 펼쳐진다. 8시부터 보통 한 시간 가량 선소리꾼의 “천하명승 동백정이 호계땅에 있었구나 이뿐인가 하였는데 별신제로 문화재네 강강술래 강강술래 삼백여 년 우리전통 천년만년 이어가세” 선창을 따라 강강술래가 펼쳐지는 동안 제관들은 마을회관에서 장찬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눈 후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던 제복을 역합에 따라 파란색과 흰색으로 갖춰 입을 후 풍물을 치며 제단으로 향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를 따른다. 11시 경 상쇠가 “조경어리요, 일경어리요, 이경어리요, 삼경어리요” 라고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 외치고 풍물을 치며 금줄을 두른 제단 주위를 돈다. 11시 30분경 상쇠가 “사경어리요” 외치고 풍물을 치며 제물을 가져오기 위해 장찬의 집으로 간다. 장찬은 흰 의복과 마스크까지 정갈하게 차려 입고 만든 제물을 제기에 담아 가마처럼 생긴 들것인 신궤에 음식을 올려두면 제관들은 그 위에 한지를 올리고 앞장 선 풍물패를 따라 제물을 이고 제단으로 향한다. 12시가 가까운 시각 시작된 제의는 금줄 밖 양쪽으로 한명씩 햇불을 든 사람이 선 가운데 집례가 초헌관부터 차례로 부르니 제관들이 금줄 안으로 들어선다. 흥기에 맞춰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고, 차례로 사신배를 마치면 제관들은 장담의 목을 잘라 머리를 땅에 묻은 후 미리 준비한 한지를 나누어 소지를 올리며 기원하면 제의는 끝난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현재까지 살아있는 전통문화로서 보전되고 있는 별신제를 지내는 호계리 마을회관 2층에는 별신제를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해 건립한 작은 박물관이 있다. 1702년 처음 치른 제1회 별신제때부터 제의에 쓰였던 고문서인 축문과 매년 지낸 제의의 내용을 기록한 제관록과 별신제의 유래와 역사를 담은 관련 자료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다. 또한 주민의 혼례복과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물품까지 전통문화유산은 물론 호계마을 사람들과 살림집의 모습을 담은 사진까지 전시되어 있다. 집집을 따라 이어지는 옛 돌담길이 전해지는 마을, 호계리. 이곳에는 조선조 승정대부의정부좌참성을 지낸 김린이 단종 폐위에 사육신과 함께하지 못함을 한으로 여겨 관직에서 은퇴한 뒤 은거하기 위해 1458년 지은 가정사에서 유래한 정자가 있다. 숙종 41년부터 시회나 대동계의 집회소로 이용하던 가정사는 동촌 김린이 많은 선비들과 학문을 교류하고 시재를 겨루던 곳으로, 선조 17년 후손인 윤암 김성장이 고쳐 지었고 간신히의 모함에 못 이겨 장흥부사로 보외되어 동촌 김린이 심어 놓았던 송백은 추운 때가 아니면 소나무와 잣나무의 남다른 열을 알아 볼 수 없다 하여 정자 이름을 ‘동백정’이라 하였다 전해진다. 현재 동백정은 고종 32년 중건한 이후 1985년 보수 시 측면에 한 칸을 더 내어 꾸민 팔자 모양의 팔각지붕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는 송사 기우만의 편액을 포함한 17개의 편액이 있다. 청주 김씨 문중에서 관리해온 동백정과 같이, 호계리 마을 주민들이 300년이 넘는 동안 전승해온 별신제는 곧 살아있는 삶의 역사다. 이 역사 속에서 더럽고 추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졌다.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제 뜻으로 제 삶을 바로 세우려 한 동촌 김신이 그러했듯, 호계리 사람들이 더러운 것들이 물길에 모두 씻겨 내려간 제일 깨끗한 자갈밭에 터를 잡고 치렀던 별신제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스스로의 마음 가짐을 경계하라는 옛 선조들의 가르침을 후세에 물리려는 것이다. 🌈

장흥군 멋 따라, 맛 따라

멋 따라 '동백정'

장흥군 장동면 만년리 707



이 정자는 장동면 만년리 장항마을 강정산 아래에 위치하여, 최초 창건은 세조 4년(1458) 의정부 좌찬성 동촌김린(金麟: 1392?1474년)이 관직에서 은퇴한 후, 은거하기 위해 가정사(假亭舍)를 건립한 데서 비롯한다. 그가 은거하면서 지은 가정사는 선조 17년(1584)에 공의 후손인 운암 김성장(雲岩 金成章)에 의해 중건되었고 이때 동촌(桐村)선생께서 심어 놓았던 동백이 울창함에 정자의 이름을「동백정」이라 개명하였다. 현재의 동백정 건물은 1872년 후손들에 의해 중수한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팔작집이나 1895년 중건할때 측면으로 1칸을 더 내어 현재는 정면 4칸의 형태가 되었다. 평면구성은 서쪽으로부터 전면에 누마루 1칸과 후면에 방 1칸, 다음 중앙칸은 앞뒤로 뒷마루를 두고 중앙으로 방 1칸, 그리고 끝으로는 계속 마루를 설치하였다.

멋 따라 '부춘정'

장흥군 부산면 부춘길 79

남평문씨 희개(希凱: 호 청명(淸穎) 1550?1610년)가 정유재란 뒤 고향에 돌아와 세운 것으로 창건 당시에는 청명정(淸穎亭)이라 불렀다. 희개는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참전하였으며 정유재란 때는 고창 현감으로 수성(守城)에 공을 세운바 있다. 청명정은 현종 4년경(1838)에 청풍(淸風)김씨 영동정공파(俞同正公波)의 후손인 김기성(金基成)이 사들여 오늘과 같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실이 있는 팔작집으로 개축하고 이름도 부춘정으로 고친 듯하다.



정(亭)의 서쪽에는 탐진강이 인접하여 남쪽으로 흘러가고 강안에는 붉은 소나무·무조나무·개서어나무·단풍나무 등의 노거수가 수림을 이루어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또 정의 맞은편 강변에는 자미나무가 군식되어 여름철이면 장관을 이루었다고 하나 지금은 제거되고 제방이 축조되어 있다.



멋 따라 '심천공원'

정남진 장흥의 깊은 샘 탐진강. 맑은 바람과 푸른 물소리가 가득한 심천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자박자박 돌길을 따라 생태공원을 걷다보면 압록달록 봄꽃들이 인사하고 산들산들 바람에 일렁이는 물 속에 고갱이 연꽃이 뿌리를 내린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함께하는 공원. 잔잔하게 들려오는 멜로디를 따라 사방에 어둠이 깔리면 물문화공원 광장 바닥에서, 반듯하게 세워진 돌담에서 그리고 울퉁불퉁 회색빛의 돌벽에서 솟아오르는 분수를 볼 수 있습니다. 커다란 고목古木그늘 아래 고즈넉하게 자리한 큼직한 바위에 걸터앉아 사방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어 볼 수 있고, 바닥분수 사이로 깔깔대며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한 여름 별빛 아래 작은 음악 콘서트는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맛 따라 '갯장어'

갯장어는 고도불포화 지방산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여름철 보양식으로 원기회복에 효능이 있어 7~8월이 제철 이다. 어획시기는 주로 6~8월초까지로 관산과 회진면에서 총 80여호의 어가가 참여하여 연간 120톤을 생산 약 12억원의 소득을 올리며 이중 3~4마리 정도되는 갯장어는 거의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독량만 청정해역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서 서식하는 장어의 일종으로서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 A가 풍부하고 맛이 담백하여 미식가들의 입맛을 100% 만족시켜 준다



출처: 내이비 밀도산공원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포전리)



노화도 달맞이 축제



바다의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이 화합하는
노화도만의 축제!





지신밟기



마을 공동우물 풍물굿

갈대꽃섬 노화도의 달맞이 축제

포전리 달맞이 축제가 열리는 노화도는 섬이다. 한반도 최남단 '땅끝 선착장에서 정기여객선을 타고 노화도로 들어가며 남해의 풍광을 눈에 담는다. 오후로 넘어가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남해 바다는 동해와는 또 달리 깊이있는 물색을 갖는다. 그 위에 뜬 바위 섬들의 형상 또한 서해의 섬들과는 다른 운치를 자아낸다. 마을 앞바다가 마치 배를 넣어놓은 듯 하다고 해서 포전리라 칭해진 섬, 신양진항에 도착해 정월대보름 축제가 열리는 술밭공원으로 향했다. 마을 주민들이 전통 율놀이에 한창인 술밭공원에는 저녁행사의 주인공인 '달집'이 서있다. 갈대 꽃 섬이라고도 불리는 노화도의 달집은 갈대로 지어진 것이 특징이다. 마을 청년회로 구성된 풍물패가 펼치는 흥겨운 풍물놀이와 함께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는 때는 늦은 오전이다.

주로 전북 양식업에 종사하는 마을 청년회와 부녀회가 함께 행사를 주관해 진행하는 포전리 달맞이 축제는 새해를 맞는 신성의례 및 건강과 생활의 풍요를 기원하는 다양한 점세 및 놀이가 행해지는 한편, 마을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에 뜻을 두는 마을잔치를 함께 한다. 오전에는 마을 복지회관에서 장수 어르신들께 건강을 기원하는 선물 증정식을 겸한 경로잔치를 치르고, 주민 전체가 점심을 함께 먹으며 화합을 도모한다. 점심을 먹고 난 오후에는 군고패를 구성해 마당놀이와 풍어, 풍년을 기리는 배굿과 들굿을 친다. 마을 복지회관에서 한바탕 풍물놀이가 판을 벌이고 지신밟기에 나선 군고패 행렬을 따라갔다. 동네 골목골목을 돌며 집집이 방문해 지신밟기를 하는데, 여러 집 지붕 위를 눌러둔 돌덩이가 보인다. 세찬 바닷바람이 불 때 날아가지 말라고 돌로 눌러둔 것이다. 지신밟기를 희망한 각 집마다 쌀을 그득하게 담고 복돈을 올린 것과 함께 정한수를 함께 떠놓고 상을 준비해두는데, 집 마당과 방에서 북과 장구, 팽파리 등을 치며 액운을 쫓는 곳을 치는 군고패는 준비된 쌀을 뿌려 잡귀를 몰아내고 물을 뿌려 모든 액운이 씻겨 내린다. 어느 집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군고패를 반가이 맞는데, 유일하게 상이 차려지지 않은 마을공동 우물에도 둘러 풍물굿을 친다. 이 우물은 발견 이후 아무리 큰 가뭄 때라도 단 한번도 마른 적이 없다고, 하여 물이 귀한 섬사람들에게는 귀중한 생명수였던 샘이고, 현재까지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갯가에 헌식하는 모습



마을 주민들 모두
홍겨움이 배가 되는
풍물굿



달집태우기

정성을 다해 지신밟기를 하는 곳 중 또한 이색적인 장소로 기억되는 마을 파래 창고가 있다. 이곳에서 전복과 함께 주 생산물인 파래를 공동으로 보관하는 창고다. 마지막으로, 군고패는 갯가로 가 배굿을 친다. 올 한해 풍어를 기원하며 뱃사공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함께 치르는데, 용왕 신을 위한 상 옆으로 또 한 상이 차려져 있다. 이것은 그간 물에서 살다 먼저 간 뱃사람들의 넋을 달래는 상으로, 염낭굿이 끝나면 그대로 바다에 헌식한다.

어느새 저녁, 마을 앞 술밭공원에서 농악과 액막이 굿을 하며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고 이곳 마을어머님들이 주가 된 농협 난타반이 난타 공연으로 흥을 돋는다. 이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 행사 시작이 멀지 않았다. 미리 준비해둔 달집엔 소원을 적은 소원지들이 꽤 많이 걸려있다. 행운과 소원성취 발원문을 달아둔 달집을 주민 전체가 풍물패와 함께 돌며 가정의 행복과 주민화합 및 풍년과 풍어가 함께하길 비는 시간을 가진 후 이장 주도로 하는 제를 올린다. 보통 돼지머리를 올리는 제사상과 다르게 이곳에선 소머리를 올리고 액막이굿을 친다. 드디어 달집을 태울 때다. 불을 놓자마자 활활 타오르는 달집 옆으로 미리 설치해둔 폭죽이 함께 터지며 환호성을 부른다. 달집이 타는 동안 농악대는 주변을 돌며 사물을 치고, 인근 마을 주민들과 참석객들과 함께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음식과 술을 나누며 축제는 막을 내린다. 🇰🇷

노화도 옆 보길도 둘러보기



노화도는 해남 땅끝마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이다. 보통 보길도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노화도를 지나서 가야한다. 예전에는 땅끝마을에서 노화도와 보길도로 각각 배가 다녔으나 지금은 노화도와 보길도에 다리가 있어 노화도에 내리면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노화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북 생산지중 한 곳이다. 이 지역은 해안선과 갯벌이 발달해 양식장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보길도 세연정

원도군 보길면 부항리

노화도에서 보길도를 잇는 다리가 2008년 개통됨에 따라 보길도로의 여행이 한결 편리해졌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인이었던 고산 윤선도(1587~1671)의 유적은 세연정이 들어선 고산원림, 고산문학체험공원, 동천석실, 곡수당과 낙서재 등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고산 윤선도는 병자호란때 인조를 돕기위해 강화도로 향하던 중 '삼천도의 치욕'을 듣고 곧바로 방향을 전환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중 해변과 섬, 숲과 나무 등 보길도의 경치에 매료되어 정착하게 되었다. 책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치던 공간인 낙서재와 곡수당에서 마주 보이는 앞산 중턱의 바위지대에 만들어진 동천석실에 오르면 전망이 아주 좋고 차를 마시면서 시문을 짓던 고산의 정신이 전이되는 듯하다.



보길도 땅끝 전망대

원도군 보길면 선원리

보길도는 한 곳 한 곳이 자연의 깊은 맛을 느끼게 하는 매력으로 가득하다. 남해의 끝자락을 장식하는 작은 섬들이 포개지듯 자리한 바다의 경관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다. 섬 곳곳을 둘러보는 하루가 끝나간다면 해가 지기 전 서둘러 땅끝전망대를 찾아보자. 대양과 맞닿은 보길도지만 한려수도의 수많은 섬으로 드넓은 바다의 경관이 펼쳐지는 곳으로 아무런 시설 하나 없이 안내판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전망대는 남해 바다의 광활함을 제대로 보여준다. 모퉁리 공룡알해변 끝 뾰족한 보죽산의 모습을 곁에 두고 바라보는 시원한 바다는 가슴이 트이는 청량제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사람과 자동차와 깎아지른 절벽의 전망대를 적시는 시간이 되면 보길도 최고의 아름다움을 만나게 된다



여 백

와흘 본향당 신과세제 1곳

제주도



본향신을 모시는 아름다운 마을 ‘와흘리’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1km 떨어져 있는 조천읍 와흘리를 찾았다. 제주에서는 음력 1월 1일부터 2월 초순까지 마을마다 돌아가며 굿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와흘리에서 열리는 본향당 신과세제는 좀 특별하다. 감귤농사가 전체 농가의 70%를 차지하며 구그네, 꾀꼬리, 새미, 당오름 등 여러 오름에 둘러싸여 있는 와흘리는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다. 한라산의 정기를 받은 산맥 모양이 완만하고 천천히 바다로 흘러내리고 있어 그 형국이 마치 편안하게 누운 사람의 형체와 같다고 하여 늘 와(臥)자와 산(山)자를 써 와흘리라 이름 붙여진 곳이다. 경치가 아름답고 새들이 지저귀는 마을은 아침햇살에 눈부시게 반사되는 한라산 절경과 확 트인 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 누구나 한번쯤 살고 싶어 하는 마을로 손꼽힌다. 이곳 사람들은 ‘한거리 하로산당’이라고도 하는 본향신을 모신 당에서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을 기해 그 전날 와흘본향당에서 신과세제를 지낸다. 한거리에 있는 한라산신을 모시는 당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본향당은 제주도 민속자료 제 9-3호로 지정되어있다.

주위를 흠담으로 에두른 제장은 무척 독특하다. 커다란 팽나무 두 그루가 펼친 가지 아래 마련된 넓은 제장도 그렇거니와 계단식으로 돌을 놓아 마련한 두 개의 제단 또한 그런데, 제를 지내는 형식에서 또 한번 놀라게 된다. 와흘본향당에 모신 당신은 마을 전체의 안녕을 지켜주고 생업, 산육, 치병 등의 기원을 들어주는데 본향신이면서 산신인 하로산또와 산육신이면서 치병신인 서정승 따님아기로, 직능이 다른 남녀 신이자 부부신이다. 송당본향당의 열한 번째 아들인 하로산또와 그 부인인 서정승따님아기는 부부신이지만 제단을 따로 차린다. 그것은 이 신들의 내력과 무관하지 않다. 와흘에는 먼저 여신이 좌정하고 있었으나 여신에 반한 남신의 구애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 어느날 여신은 돼지털을 그슬려 먹었다가 부정하다는 이유로 남신과 떨어지게 되었다는 본풀이가 있다. 이 본풀이는 이른 새벽부터 5명이 한 팀을 이룬 무당이 해뜨기 전부터 반나절 동안 친 당굿이 마무리되는 점심나절 이후 시작된다. 마을 부녀회는 이때 모든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국수와 막걸리로 점심으로 제공한다.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와흘 분향당 신과세제

아름다운 경치와
독특한 도세상이 어우러지는
와흘 분향당 신과세제!





도제상 차림을 준비하는
마을 어머님들의
분주한 손길!

등불 같은 소망을 밝히는 와흘리 본향당

신과세제는 새해를 맞아 우선 신에게 새배를 하는 제사로, 매년 음력 정월 14일에 큰 당굿을 벌인다. 올해 신과세제는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2월 23일 진행했다. 굿을 전담하는 매회인심방과 무악기인 연물을 올리는 소미 4~5명을 대동해 굿을 치는 것으로 시작되는 와흘리 본향당 신과세제는 신을 청해 기원하고 즐겁게 놀린 뒤 한해 운수를 보는 켓문열림, 초감제, 나까시리놀림, 산반음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신과세제 제차에는 산신놀이가 더해져 있다. 산신놀이는 중산간 당굿에서 별이는 것으로, 오늘날 이 지역에서만 제대로 전승되고 있다. 세제에 참여할 무당 중 두 명이 가느다란 대나무로 만든 사냥총을 들고 포수로 분장해 사냥감인 닭을 두고 다투다 사이 좋게 나눠 갖는 연극적 의례인 산신놀이는 와흘리 주민의 자긍심이기도 하다. 이런 의례가 점차 사라지는 오늘날 전통의 맥을 간직한 당굿으로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교식 마을제를 따로 하지 않고 당굿을 유일한 마을제로 삼는 와흘리에서는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비를 돕는데, 신과세제를 앞두고 가장 먼저 미리 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금줄을 쳐두는데, 당굿에 참여하는 제관은 남성 셋이 맡는다. 제관 선출은 연말 혹은 정초에 열리는 마을 총회에서 이뤄지는데 대개는 이장, 개발위원장, 유지 1명이 현관으로 선정된다. 이들은 사흘 간 외출을 삼가며 정성을 다하고 돼지고기를 금식하며 목욕재계를 한다. 제사 비용은 각 호마다 건어 총당하는데, 마을공금을 사용하지 않고 따로 돈을 걷는 이유는



마을을 지켜주는
커다란 팽나무 두그루!

마을 사람의 정성을 모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신과세제의 제수는 도제상 차림과 개별 제물 차림으로 이원화된다. 도제상 차림 제물은 마을 아낙들이 공동으로 준비하며, 개별 제물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제각기 마련하는 제물이다. 대개 메 2그릇, 과일, 채소, 바다고기, 술 2잔, 돌레떡, 소지, 지전, 명실, 제비 쌀, 계란을 준비하는데, 바다고기는 대개 옥돔을 구운 것이고 사발 크기로 준비한 시루떡과 제일 전날 밤이나 당일 아침에 집에서 직접 만든 돌레떡은 특별히 따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다. 산신을 모시는 집안에서는 메를 3기 준비하는데 정성을 더하는 이들은 옥돔 외에도 명태, 오징어를 더 준비해 진설한다. 제단이 모자랄 지경으로 각기 차려 올려진 제물이 두 그루의 커다란 팽나무와 어울려 그 자체로 큰 장관을 이룬다.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굿판이 끝날 때까지 불을 켜며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아낙들의 모습이 정겨운데, 재미있게도 신과세제 제물을 마련하는데 참여한 이 아낙들 중 몇은 이 마을 출신이지만 타지로 시집간 이다. 왜 와흘본향당이 마을 공동체의 성소(聖所)이면서 정기적인 당굿을 통해 공동체의 유대감을 확신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지 이 아낙들을 보면 그저 알게 된다. 이들은 식구들의 무사안녕과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며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곳에 죄를 고하고 용서를 빈다. 아기가 태어나도 가장 먼저 이곳에 들리 인사를 한다. 무속이 미신으로 치부되는 요즘이지만, 제주와 와흘리 사람들에게 와흘본향당은 등불 같은 소망을 밝혀온 곳이다. 390여 년간 와흘리 사람들의 삶을 보듬어온 팽나무처럼, 본향당은 마음을 의지하며 함께 살아온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이다. 🌈

와홀리에서 시작하는 제주 둘러보기 코스



선녀와나무꾼 테마공원

대중교통이용 시
55분,
자가용 이용
18분 소요

선녀와나무꾼은 1950~1980년 그 시절 추억의 테마를 소재로 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실내 상설로 이루어진 마을에 고향이다. 우리 부모님께서 실제로 살았던 모습을 실물 크기로 재현을 해서 현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잊혀져가는 옛 모습을 좀 더 가까이 보고 만지며 관찰할 수 있는 현장감, 생동감 그리고 그 시대상을 경험할 수 있는 테마공원이다. 대지 약 2만여평에 실내공간은 단층으로 약 4천여평 규모로 이루어져 옛 도심의 모습 달동네마을, 어부생활관, 농악박물관, 민속박물관, 자수박물관, 선사시대체험관, 학교재현관 등 예전에 즐겨 놀았던 팽이치기, 딱지치기, 그네타기, 윷놀이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공원이다. 소요시간 50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267



가장 제주다운을 간직한 제주돌문화공원은 제주의 형성과정과 제주민의 삶속에 녹아 있는 돌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박물관이자 생태공원이다. 그리고, 한 리산 명실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전설을 핵심테마로 꾸며진 설화의 공간이다. 또한, 2006년도 문화관광부주관 관광지개발사업 평가에서 우수 관광지로 선정되었으며, 제주돌문화공원을 방문한 해외 유명인사들이 "공간과 돌의 완벽함"에 극찬하기도 하였다. 제주돌문화공원은 환경을 먼저 생각하면서 제주의 정체성, 향토성, 예술성을 살려 조성하고 있으며, 제주 돌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써 제주도민이 자랑스러워하고, 내·외국인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종합문화공원으로 계속 꾸며 나가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에코랜드 테마파크는 1800년대 증기기관차인 불드린 기차를 모델화하여 영국에서 수제품으로 제작된 링컨 기차로 30만평의 꽃자랑 원시림을 기차로 체험하는 테마파크이다. 30만평의 꽃자랑 부지에 기차길을 놓고 호수를 만들어 자연생태체험도 하고 산책 및 피크닉도 할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영국에 특별주문 제작한 빨간색 기차는 총 5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기차 여행을 즐기는 동안 신비의 숲 꽃자랑에서 서식하는 곤충과 동물 그리고 다양한 식물들을 체험할 수 있다. 에코브릿지, 로버크래프트, 에코공장, 피크닉가든, 키즈타운, 에코로드, 총이맨발체험, 수상카페, 토끼버리 등 보고 즐길거리가 많다. 소요시간은 60분~120분 정도로 개인차가 있다.

제주시 조천읍 변영로 1278-169



에코랜드테마파크

도보 10분 미만,
자가용 이용
8분 소요



대중교통 이용 시
20분.
자가용 이용 시 8분

'토종달마을'로 유명한 교래리! 교래리 토종달 거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1970년대 말부터 토종달을 집 마당이나 텃밭 등에 풀어 사육해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토종달 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토종달 전문 음식점이 성업하고 있다. 2008년 이 마을을 찾았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음식점 방문록에 "제주의 맛, 한국의 맛, 교래 토종달의 진미, 정말로 맛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2009년 토종달 유통특구로 선포되었다. 닭 백숙과 닭 샤브샤브와 유명하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489 <안다미로>



교래리 토종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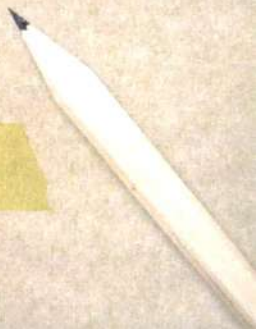
교래마을에서
대중교통 이용 20분
자가용 이용 시
5분 소요

영화 '연동연가'에서 인상 깊은 장소로 등장하는 산굼부리는 천연기념물제263호로 둘레가 2km가 넘는 화구 산굼부리만을 둘러보는 장동건(태희)과 고소영(영서)이 걷는 장면으로 등장한다. 제주도에는 360여개의 기생화산이 분포되어 있지만 이곳 산굼부리를 제외한 다른화산은 모두 대접을 얻어놓은 듯한 분화구의 형태이고, 산굼부리 분화구만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용암이나 화산재의 분출없이 폭발이 일어나 그곳에 있던 암석을 날려 그 구멍만이 남겨진 것이다. 이러한 화산을 마르(Maar)라고 부르는데 한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희귀한 화산이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38번지 일대



산굼부리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는..

사업개요

○ 추진목적

- 민족고유의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축제 및 민속놀이 활성화
- 한국적 축제의 원형을 지키고 있는 축제 및 마을을 지원 홍보하여 국내·외 관광콘텐츠로 활용

○ 주요내용

- 지역단위 소규모 전통예술잔치 발굴 및 육성 지원
 -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마을축제 선정
 -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축제 선정
 - 축제에 소요되는 현물 또는 현금 지원
- 마을축제의 관광자원화
 - 축제 및 마을을 홍보하여 관광콘텐츠로 활용

선정계획

○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축제 선정(약 40개 마을지원)

- 기존 선정 우수 축제 선정 : 5개
- 신규 지원 축제 선정 : 35개
- : 16개 시·도 지자체 마을 공고 후 축제 선정

○ 축제선정 심사

- 심사위원 구성 : 마을축제조사 참여 연구원 외 관련 전문가 5인 내외
- 심사규정 : 심사위원 구성 후 세부내용 협의

구분	평가내용	배점	
심의기준	전승의 충실성	20	100
	축제의 전통성	20	
	자발적 참여도	20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비율	20	
	전승의 연속성	20	



○ 지원신청자격 : **전통마을 축제를 주관하는 마을 단위**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 국고(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를 받는 단체 및 보존회
-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
(예시 :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의 지부 지회 등)

○ 지원대상

- 마을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통마을축제
- 매년 4월 ~ 익년 2월(양력) 중 진행되는 전통마을축제
-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축제
(예 : 동제+놀이, 풍물굿형 동제, 무당굿형 동제, 마을 대동놀이 등)

○ 축제지원

- 축제성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2백만원 ~ 5백만원

○ 선정 기념패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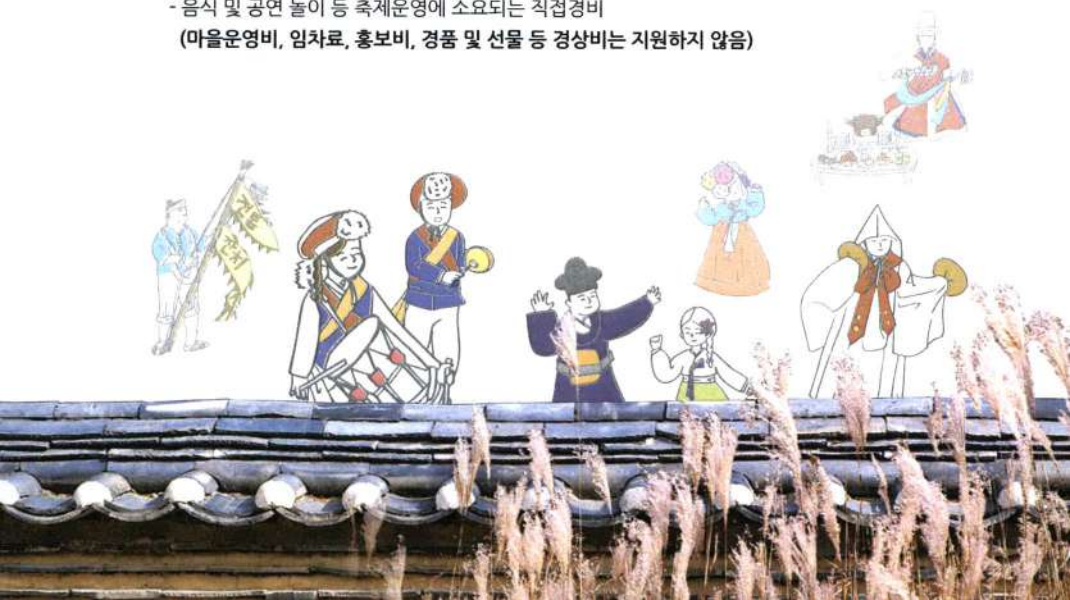
- 연속 선정 된 우수 축제 마을 선정 기념패 증정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 선정 우수 축제' 선정 기념패 증정
: 마을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자발적 참여 유도

○ 지원조건 : 단년도 지원원칙

- * 단, 마을축제 평가 후 우수축제로 선정 된 마을은 3년 연속지원 및 선정패 증정

○ 지원항목

- 음식 및 공연 놀이 등 축제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마을운영비, 임차료, 홍보비, 경품 및 선물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 관련연락처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연락처		02)580-3261
기관명	연락처	관련 잔치
삼척시 문화공보실	033)570-3208	신남리 해신제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033)640-5113	도배 (합동세배)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033)640-5113	건금마을 용물달기
엄정면사무소	043)850-2414	목계마을 대보름축제
문화연구소<길>	041)632-6245	백월산 산신제
홍성읍주민센터	041)630-9601	광경동미륵제
지천면사무소	054)979-6830	영오리 천왕제
가산면사무소	054)979-5413	화산소금단지 물기 및 달집태우기
부안읍사무소	063)580-4601	내요리 돌모산 당산제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사업소	063)350-2679	죽림마을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광주광산문화원	062)942-3379	내동마을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지산면사무소	061)540-6753	길은리 한가위 술래놀이
약산면사무소	061)550-6440	약산 당목당제
보성문화원	061)852-2629	대포리 갯귀신제
신전면사무소	061)430-5620	사초 해신제
남양면사무소	061)830-6136	선정마을 12당산굿별신제
고흥문화원	061)835-5245	월악 당산제
포두면사무소	061)830-6314	포두면 달맞이 축제
오곡면사무소	061)363-2503	오곡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나주문화원	061)332-5115	진동 액막이굿
부산면사무소	061)860-0609	호계리 별신제
노화읍사무소	061)550-6258	포전리 달맞이 축제
조천읍사무소	064)728-7813	와흘 본향당 신과세제

발행일 2013년 3월 29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제작 (주)디커뮤니케이션

감수 김진순 (코리아루트 대표)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은 작은공통체 전통예술간치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비매품으로 제작하였습니다.